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현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식/등록번호:다-3379/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 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4월 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9 호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燈 달기' 확산

'맑고…' · 우리는 선우 · 전북불교대 등 앞장
실직자 · 장애인 · 북동포돕기 기금마련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등을 밝히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의 등(燈)밝히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자비의 등 밝히기는 단순히 등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이웃을 위해 다는 연등'이란 주제로 등을 접수받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등의 명칭도 △세상의 모든 아픈이들을 위한 등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기들을 위한 등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한 등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사는 당신을 위한 등 등으로 정했다. 수익금 전액은 복지시설 후원과 실직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 박광서)도 '북한동포를 위한 민족돕기 등' '해외난민을 위한 구호의 등' '일체생명을 위한 왕생의 등' 등 10종류의 자비의 등을 접수 받고있다. 접수된 등은 4월13일 저녁 8시 장충단공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벗겨지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점등식을 갖고 5월 5일까지 불을 밝힌다.

우리는선우는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불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며 "자비의 등은 장애인과 불자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지난해에 이어 북녘동포돕기 '한 등 더 켜기 운동' 일환으로 노란 등을 단다. 수익금 전액은 금강국수공장 설립 및 식량지원금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감건기)은 '이웃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부터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불교대학은 올해 실직자 ·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자비의 등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통일 화합 나눔 전법 지혜 자비의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손영철)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팔등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중근기자〉



식목일…"희망을 심는다" 식목일을 맞아 교계 각 단체와 사찰에서 희망을 심는 식목행사가 펼쳐졌다. 서울 천중사(주지 이규범)는 5일 일요가족법회 전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유실수 심기 및 꽃동산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어린이회도 5일 조계사 경내에서 꽃심기행사를 펼쳤다. 맑고향기롭게는 3월29일 오전8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극락전 뒷편 언덕을 꽃동산으로 장엄했다. 사진은 천중사 유실수 심기 현장. 〈사진=고영배 기자〉

"권리제한 폐지-종헌 개정"

선학원, 조계종에 요구

선학원(이사장 정일)이 조계종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권리제한의 해제를 요구했다. 또 조계종 종헌 9조3항을 '손질'하지 않고는 종단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학원은 1일자로 발행된 기관지 '선원'에 게재한 '정관개정 요구, 종단에 묻는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학원은 "현재의 공식 명칭인 '재단법인 선학원'을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으로 하자"는 요구에 대해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임을 명시하는 정관에서 '재단법인'을 뺀다면 사실상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칭이 변경될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종지봉대" 요구와 관련 "만약의 경우 정관에 종지종통을 봉대한다고 삽입했을 경우 종단이 또다시 종헌종법을 바꾸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재단스님들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밝혀 종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종단이 "선학원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하자"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미 관례대로 조계종 소속 스님이 임원을 맡고 있다"며 "96년 8월27일의 합의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범행스님 조실추대 반대"
조계종, 법주사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이 법주사가 범행스님을 조실로 추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종도로서 종헌 종법을 준수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총무원은 3월31일자로 법주사에 송달한 공문을 통해 범행스님을 조실로 모시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78년 개정된 선학원 정관을 앞장서서 환원시키고 수원 팔달사를 선학원에서 탈퇴시켜 종단에 재산등록을 마친후 종단에서 주지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귀면와(사진위)와 암막새(왼쪽), 토기(오른쪽)

인각사서 통일신라유물 발견

승가대불사碑 귀면와 · 암막새 · 토기 등

〈삼국유사〉의 산실 군위 인각사(주지 대원)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귀면와 2점을 비롯 다양한 막새류, 광기와, 토기 수십점이 발굴됐다.

2월18일부터 40일간 인각사를 발굴조사한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는 현 사찰외곽의 미륵당지에서 인각사의 창건시기를 밝혀줄 통일신라시대의 유구가 다량 발견됐다며 "전면 확대 발굴조사 및 담장과 건물지의 평면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천주상보〉

불교문화 체험기행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 발: 4월12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신흥사 참회법회 중계안내

불교방송 4월 5일(일) 오후2시~3시 생중계

불교TV 4월 7일(화) 녹화중계(2회)
오전11시 10분~12시
오후8시~8시 50분

초코파이 보살



일요일 아침 6시. 지난 밤에 챙겨둔 다과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는 이법운보살(57).

집을 떠난지 두시간만에 이보살이 도착한 곳은 1사단 대대법당 혜국사. 이씨가 법당에 들어서자 와-하는 환호성과 함께 순식간에 병사들이 노보살을 에워싸며 보따리를 받아든다.

"요즘 몸은 어떠니? 〈보왕삼매경론〉은 하루에 몇번씩 독송하니?" 등의 안부를 물으며 이씨는 일일이 장병불자들의 손을 잡아준다. 얼핏보면 오랜만에 아들을 면회온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씨가 풀어 놓는 보따리 속에서는 어김없이 초코파이가 쏟아져 나온다. 10년동안 한결같이 이씨의 단골 메뉴로 사랑 받아온 초코파이다. '초코파이 보살님' 이라는 별명과 함께.

이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군법사가 없는 군법당 법회를 지원하며 군포교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 법회에 나설때마다 어려운 살림에도 초코파이를 꼭 마련한다. 한 번 갈때마다 1백개 이상씩을 준비해 갔으니 10년동안 이보살이 군불자들에게 전달한 초코파이만도 4만개가 넘는다.

이씨의 군포교는 식당 구석에 종이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는 1사단 대대 군종병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접하고 부터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초코파이 만큼 군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챙여 준비해간 초코파이가 모자라 못 먹는 병사가 생기면 어쩌나 마음 졸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씨는 초코파이와 함께 부처님 법도 전달한다. 15년전 기독교에서 개종, 불광사 광덕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은 후 계속 정진수행해 6년전 조계종 포교사에 임명됐다.

기력이 떨어져 움직일 수 없을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군포교에 나서겠다는 이보살.

"10년동안 군법당을 찾다보니 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젠 그 녀석들이 결혼해서 부인까지 데리고 옵니다. 군인들만 포교 한줄 알았는데 불자 며느리들까지 생겨 신바람이 납니다. 부처님법 전하며 사는 기쁨이 바로 이런것이구나 새삼 느낍니다." 〈김주일 기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철웅스님 경제난극복 법회 12 · 13면
IMF 증후군 '확산' 20면



사 설

조계종 종회 해산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해산위기에 처했다.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임을 자랑하고 있고,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불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나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무슨 망신인가?

개혁종단의 대의기관으로 자처하며 출범한지 4년째지만 그 동안 중앙종회는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만 연출하였다.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를 합쳐 18회를 소집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여덟 번이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되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일간 회기를 정해 소집된 제 130회 임시중앙종회가 정원미달로 중요한 안건처리를 못한 채 유회되자, 다시 제 131회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했지만 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굉계없는 무덤이야 없겠지만 도저히 우리 일반종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종회의원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종단의 사부대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난의 화살을 막을 길이 없다. 참석하지 않은 종회의원 각자가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직무태만이요, 자질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중앙종회 일부에서는 심지어 해산론과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종회의 파행을 보며 우리불자들은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

개혁종단이 출범할 당시부터 이러한 조짐과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헌종법에 따라 여법하게 중앙종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종헌에 의하면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되나 그 대의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2부(비구, 비구니)대중으로만 구성되어 비구스님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가부장적 봉건체제의 유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종단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남성중심의 이기주의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국가체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참여와 연대의 조직체계가 요망되는 사회인데 종회만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조계종 중앙종회 조직의 문제점과 운영의 파행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중앙종회의 구성과 조직이 명실공히 사부대중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일제의 그릇된 유산인 25교구 본사제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종단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각 교구별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부화하여 대표자 수를 정해야 한다.

둘째, 종회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과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종회법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현 종회의원들은 지금까지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대표성을 포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를 사부대중에게 정확히 알리고 참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성과 자각이 없이는 종단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종회는 여법한 사부대중의 대의기관으로서 종단발전을 위한 입법기능과 비판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종회의원들의 개혁종회라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은 반성과 자각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건교부, 수도권 관광지개발 규제 완화

"사찰환경훼손 우려"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유흥시설 등 수도권 관광지내 기존 시설의 종류나 위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여주 신륵사, 양평 용문사, 수원 봉녕사, 의정부 자재암 등 사찰관광지와 북한산·관악산공원, 정릉유원지 등 55개에 이르는 관광지에 소재한 사찰들이 심각한 환경훼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기존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지침을 개정,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월30일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내 관광지 개발사업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시설, 유원지, 온천지구 등 수도권내 관광지내에 설치돼 있는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 주차장과 같은 시설의 종류나 위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관광 시설을 규모확대 없이 종류와 위치만 바꾸는데도 변경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러나 수도권 관광지내 사찰과 환경단체들은 관광지에 터키탕, 룸싸롱, 단란주점 등 음란 유흥시설과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뻔해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찰수행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이지범 간사는 "그동안 그나마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무분별한 시설변경을 조장할 경우 환경관련 민원과 사찰환경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6월 지자체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로인해 유흥업소의 증대 등 관광문화의 퇴폐화와 그로인한 사찰 수행환경의 훼손, 환경오염의 가중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 종교활동 침해 고층건물 제한 마땅"

서울지법 봉은사관련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홍권부장판사)는 3월29일 사찰 인근에 짓고 있는 고층빌딩이 종교활동과 경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소재 봉은사가 빌딩건축주 김모씨와 건설업체 S사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신축건물의 높이를 15층까지로 제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봉은사는 15층도 너무 높아 사찰 수행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전통사찰인 봉은사에는 선불당(지방문화재 64호), 판전 및 화엄경판(지방문화재 83, 84호)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1백m안에는 건물신축 허가가 날 수 없으나 지난 94년 불법으로 허가(79m거리 안에서)가 난 것으로 판결이 났었다.

나라와 민족위한 기원법회

종단협주최, 2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가 29일 오후6시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통령과 정관계, 경제계, 언론계등 사회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기로 했다.

종단협은 또 26일 봉행되는 봉축 연등축제에 소속 종단 모두가 참가키로 하고 각 종단별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문화재 올해보수비

3백46억원 '결정'

황룡사지 유물전시관·미륵사지석탑등 135건

올해 불교문화재 보수비가 지난해보다 37%가 늘어난 3백45억6천4백67만6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수정비건수는 지난해 1백58건에 비해 23건이 줄어든 1백35건.

서울이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각 건립 1건에 3억4천만원, 부산이 범어사 성보전시관 건립 등 2건에 21억2천만원, 대구가 동화사 극락전 단청보수 등 4건에 9억7천만원, 광주가 원효사 일주문 건립에 3억9천만원. 경기도는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복원 등 6건에 5억9천만원, 강원도는 원주 법천사지 정비 등 14건에 26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충북은 7건에 10억9천만원, 충남은 14건에 35억1천만원, 전북은 11건에 18억6천만원, 전남은 26건에 51억1천만원, 경북은 22건에 47억원, 경남은 22건에 1백5억4천만원, 제주는 2건에 3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내년 문화재 보수지원비에는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건립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에도 각각 14억2천만원, 7억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송재건 中信會 회장 회보에 사퇴성명서

조계종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사표가 반려되자 3월27일 성명서를 발표해 거듭 사퇴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송회장은 성명에서 "종단은 일방적인 종무행정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러다가는 군소종파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고 비구중심의 종무행정을 비판하고 "종단행정에 아무런 개선의 힘이 되지 못하면서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태임을 절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송회장의 사퇴성명은 중앙신도회보 2호(4월1일자 발행)에 게재됐다.

"3·29법난 4주기 개혁정신 자성 촉구"

실천승가회등 12개 단체

3월29일 법난 4주기를 맞은 가운데 조계종단 개혁정신이 퇴색돼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종의 일념으로 개혁불사를 위해 전 종도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는 자성의 소리가 제기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인권위원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법난 4주기를 맞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을 비롯한 10개 불교운동단체는 29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정신은 무딘 칼날이 되었고, 비판과 견제의 기능은 퇴색되고 있다"며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의 정신으로 개혁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8일 '개혁종단 평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 9일 '3·29, 4·10법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10·27 법난의 최대 피해지와 가해자가 18년만에 만났다. 이날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0·27로 1백만명의 신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지적하자 전씨는 "내 책임"이라며 시과의 뜻을 밝혔다.

▩ 10·27법난 피해자 가해자 만남

월주스님 "1백만신도 이탈" 지적 전두환씨 "내 책임입니다" 사과

10·27법난의 최대 피해자와 가해자랄 수 있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전두환 전대통령이 18년만에 만났다. 3월 28일 조계사 초하루법회에 참석한 전씨 내외가 지난해 자신의 석방에 힘써준 데 대한 보답으로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는 인사에 이어 화제는 곧바로 10·27로 이어졌다.

전씨가 먼저 "월주스님이 당시 총무원장인 것을 이번에 교도소 가서 알았다. 재임시에 불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줬는데 오히려 절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며 얘기를 꺼냈다.

10·27법난으로 그해 6월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던 월주스님은 4개월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전두환정권은 당시 불교계 비리척결을 이유로 전국사찰에 군인들을 투입, 3백여명의 스님들을 연행하고 56명을 구속했다. 월주스님도 보안사에 끌려가 23일 동안 고초를 겪었다.

전씨는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사찰에 불순분자들이 숨어있고 부패한 스님들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해서 조용히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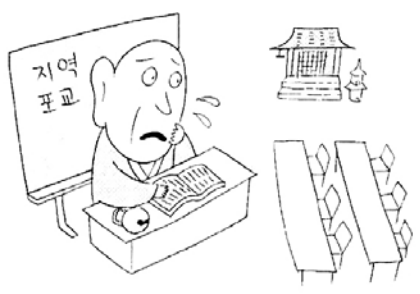
월주스님은 "이 일로 불교가 부패한 집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됐고, 1백만명 이상의 신도가 떨어져 나갔다"며 "당시 사건에 대해 감정은 없지만, 기억은 생생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놔두면 불교계에서 알아서 했을텐데 일방적인 보고를 듣고 그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마침내 전씨가 "어찌됐든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이니 내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성 명 서

-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 정부에 바란다. -

"민족 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 절대 반대한다."

국립지방박물관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곧 민족문화유산 학살 정책이요 한민족 정신(혼)의 자멸 정책이다.
또한 불교, 유교, 도교 민족종교 등 동양사상 말살 정책이다. 즉시 철회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대로 민족문화의 창달책을 강구하라.

민족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 공동체요 민족정신(혼)은 그 민족의 영원한 생존 진리요 큰길(大道)이다.
민족 문화재는 우리민족 5천년 역사상 민족 혼의 결정체요 산물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민족 문화의 창달을 기하겠다고 선서하고 취임사를 통해 민족 문화의 세계화에 온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가치는 계승 발전 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였다고 본다. 또 취임 전후에도 수 차례 21세기 문화 산업에 대한 대민 공약을 하여 왔다.
그런데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 및 인수위 100대 과제 중에 국립지방박물관(9개소)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조항에 아연 실색하며 그래도 되는 것이 민족 문화재인지? 93년 김영삼 대통령과 문민정부도 계획하더니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정부도 똑 같은 뜻이니 진정, 그 저의가 무엇인가? 오늘날 IMF 난국 초래도 겉국 민족 특유의 민족정신문화(민족혼)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양문물을 여과없이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오늘날 IMF 난국 극복은 오직 한민족 고유의 특이한 민족정신(혼) 문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진정 민족정신(혼)과 민족문화재가 없는 한국을 한 번 생각해 보라.

이에 한국불교승가회 중앙회회원 일동은 3월 27일 임시총회(서울 종암동 수덕사)를 개최하고 민족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절대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하루속히 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1. 민족문화재 관리는 전 국민의 이름(세금)으로 중앙정부(국립중앙박물관)가 관리하고 창달하여야 한다.
   (왜?) 민족 문화재는 한민족 특유의 혼이 담겨 있는 위대한 정신적 결정체요 산물이기 때문이다.
2. 민족문화재의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서는 지자체 이관은 더욱 불가능하다.
   (왜?) 모든 출토된 문화재는 국고로 귀속되며 그 관리를 국립박물관이 맡는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앙박물관이 지방박물관의 문화재 전체를 환수 및 수용 관리할 능력이 없고 또 매장 문화재 보전 및 개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민족문화재의 지자체(민간) 이관 위탁 관리는 곧 민족문화재 유산의 학살 정책이다.
   (왜?) 종교적 편견이 심한 특정인의 관리는 고의적으로 민족 문화재를 사장시켜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 금차 정부에서는 매장 문화재 및 문화재 유적지 분포도 제작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버리지 않았는가? 만일 문화재 관리비를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삭감 및 전액 중단해 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4. 지방자치단체(민간)는 민족문화재를 관리할 자격과 책임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 민족 문화재를 어찌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자격과 책임과 능력이 있는가?
   예 광주 지방박물관(지방 박물관 9개소 중 하나)의 한해 운영비는 약 30억원 「97년도 입장료 수입 겨우 3천여만원」 또 민족문화재 없는 지방 문화재 관람자가 진정 얼마나 될까?
5. 민족 문화재의 지자체 이관 관리 정책은 곧 불교, 유교, 도교 민족 종교의 맥을 끊어 놓겠다는 하나의 민족 종교 말살 정책이기 때문이다.
   (왜?) 민족문화재의 99%가 곧 5천여년간 민족 정신문화를 형성한 이들 종교 진리의 진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한민족정신(혼)의 결정체가 아닌가?!
   국민의 정부는 종교적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갖가지 종교 편향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 유한한 권력으로 무한한 한민족 특유의 정신(혼)문화와 문화재를 함부로 다스리지 말라. 오늘 세계 3천여 문명과 종족중에 한나라(세계 150여 나라 중)를 이루고 있음은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혼)과 5천년 민족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호도 종교적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지 말라. 기어코 민족적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6. 민족 문화재 영구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인 문화재 보존 과학 기구 및 문화재 창달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문화재 영구 보존 및 창달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라.
7. 불교, 유교, 도교, 민족 종교계, 종단 및 학계와 언론계, 국회 정각회, 각 정당 불교회, 신도단체 및 신도, 문화재 애호가, 한민족정신(혼)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대동단결하여 민족 문화재 보존 및 창달을 위해 민족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민간)이관 위탁관리를 절대 반대하며 범 종교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특히 문화재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는 호법적 차원에서 그 수호책을 강구하자.

불기 2542년(서기 1997년) 3월 27일

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

회 장 無空 徐甲生(無量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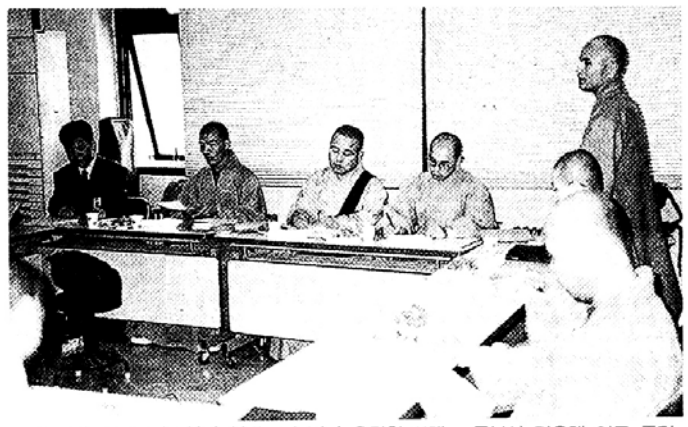
부 회 장	雪雲 白雲植(祈園精舍)	총무부장	道峰 蔡洙山(藥師寺)
부 회 장	明鍾 金仁昌(淸井寺)	교무부장	賢岩 朴昌東(願力庵)
부 회 장	法運 鄭承敏(慧承寺)	재무부장	德峰 柳成彦(聖國寺)
부 회 장	大輪 陳億斗(泰光寺)	호법부장	性德 金安大(修德寺)
부 회 장	道明 金賢姬(大度寺)	감 사	性覺 崔仁哲(觀音寺)
사무총장	法雲 李大淵(法雲寺)	감 사	妙峰 全成模(靑龍寺)

●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584-14 ● 전화 (02)904-0016

정기법회 의존…지역포교 '부실'

조계종 '교구본사 포교실태' 설문·세미나

재정·인력부족-소임자 무관심등 이유
'포교지리학' 도입 지역 여건 파악 필요



◇조계종 포교연구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1개 교구본사 가운데 인근 주민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은 5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월 31일 열린 포교국장 세미나 모습.

조계종 교구본사들은 인근주민 포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없이 초하루와 재일법회 위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근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대부분 시행치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3월 한달 동안 포교연구실이 '교구본사 인근지역 포교상황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에는 24개 교구본사(선암사 제외) 가운데 11개 교구본사가 응답했다. 포교연구실은 애초 3월31일 열린 포교국장 세미나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설문지 응답사찰이 적어 발표하지 않았다.

포교연구실은 회수율이 적은 것에 대해 "교구본사의 포교에 대한 무관심의 한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설문응답 사찰은 용주사 해인사 고운사 신흥사 대흥사 범어사 화엄사 법주사 쌍계사 월정사 불국사 등이다.

'인근주민 포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군법당 및 교도소법회 지원(1곳), 여름수련대회 개최(1곳), 불교교양대학 운영(1곳), 인근 학교 장학금 지급(1곳),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복지시설 운영(2곳), 각종 법회 봉행(5곳) 등으로 주민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종 법회와 여름수련대회는 엄격한 의미의 지역주민 포교프로그램과 거리가 멀어 제외한다면 실제 인근주민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5곳 뿐이다. 사실상 교구본사의 인근주민 포교는 백지상태나 다름없다는 결론이다.

인근주민 포교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복수 응답) 재정 및 인력부족(1), 소임자들의 무관심(2), 타종교의 적극적 활동(2), 잦은 소임자 변경(1), 유교적인 분위기(1)와 주민참여 저조(1)라고 답했다.

한편 31일 열린 '사찰 인근지역 포교방안' 주제의 포교국장 세미나에서 화랑스님(전 범어사 포교국장)은 교구본사의 포교부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방법을 차용, '포교지리학'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즉 인구밀도, 직업분포, 산업, 교육환경, 주민생활상, 보건, 경제, 풍기, 오락, 풍습, 여성과 아동의 문제, 종교분포의 특색, 사회기관의 분포 등의 항목에 걸친 세밀한 지역 파악이 포교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화랑스님은 또 위 항목에 따른 세부항목도 제시했다. 포교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문화 경제 가정 개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랑스님은 "사찰은 포교절대구역을 설정하여 지도를 그려보고, 도표를 작성하고, 인원을 파악하며 관공서의 수와 학교 및 학생 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장은 예산이 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백년 앞을 내다보는 인재불사라는 측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한 결과 교구본사 포교국장 소임자는 7곳을 제외하고 교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교국장이 공석인 교구본사도 3곳으로 나타났다.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종단정치와 무관하게 포교와 교육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포교원과 교육원을 법원으로 설치한 취지가 교구본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따라 지역포교의 구심점인 교구본사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도선 열반 1100년

이광준박사(동서심리학연구소 대표)는 선심리학자다. 젊은날 도선사에 살았던 그는 전생에 도선국사(827~898)와 인연이 깊었나 보다.

"1988년 음 3월(4월6일)은 도선국사 열반 1100주기입니다. 국사께서는 민족의 안녕을 위해 전국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찰을 개창 또는 중창하셨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천년대계를 세워주신 그 유덕을 알고서 어찌 국사의 진면목을 추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박사는 지난해 도선국사의 비보적 평화론과 선사상을 기리기 위해 '도선국사 열반 1100주년 기념 국제불교학술대회 추진위원회'란 이름을 내 걸었다. 그러나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절도 단체도 기업체도 없었다. 결국 그는 넉넉치 않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 국내외 학자 10명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세미나를 열어 왜곡되거나 덜 밝혀진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한줄기 빛을 찾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춘삼월이 되었으나 IMF까지 겹쳐 그의 꿈은 꽃을 피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박사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가을로 행사를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도선국사를 말할때 먼저 '풍수'를 연상한다. 스님을 풍수도참가로 오인하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도선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평화적으로 가꿀 수 있다는 것이 이박사의 지론이다.

도선국사가 보여준 풍수의 본질은 무엇일까. 스님은 땅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보았다. 침뜸에서 기가 과한 곳은 사해주고 허한곳은 보해주듯 그 원리를 땅에 적용한것이 비보(裨補)사탑설 이다.

옥룡사의 경우 습지를 숯으로 메운후 절을 세웠다. 진양용암사지에는 물이없다. 스님은 그곳에 절을 세워 기를 돌렸다.

"인심과 산천지세는 서로 닮지 않음이 없다. 인심이 불합하니 지역마다 나뉘어 九韓을 만들기도 하고 三韓을 만들기도 한다. 부처의 道를 약쑥으로 삼아 '병든 산천'을 치료하도록 한다."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한 도선국사의 나라사랑 비보사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무설설 무법법'의 화두를 타파한 스님의 화두를 되새겨 보자.

中信會 송회장 종단비판 사퇴성명 반응

"종단정서 무시 갈등만 야기"
"정재운용 등 근본문제 지적"

"종단정서를 무시한 주장은 갈등만 일으킨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계종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의 사퇴성명서 내용을 둘러싸고 교계에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중앙신도회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송회장의 사표가 반려됨에 따라 사퇴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성명서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송회장은 3월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중앙신도회장이라는 무게있는 소임자가 종단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던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더해준다.

송회장은 성명에서 승가와 재가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비유하고 "의사와 환자는 상호교감이 있어야 하지만 조계종의 종무행정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법칙을 벗어나 있다"고 진단했다. 사부대중이 종단구성원이지만 현재의 종단은 승가중심의 '외다리 종무행정'이라고 몰아쳤다.

"일부인긴 하지만 승적은 종단에 두고도 부처님 정재를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세속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예민한 사안인 정재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다가는 자칫 군소종파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종단으로 부상하여 불교가 이 땅의 안식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다. 총무부장 원우스님은 "공인이 자주 사퇴얘기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포교사단 임동현사무국장은 "옳은 지적이라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종단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은 자칫 갈등의 소지만 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송회장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신도회장이라는 힘을 이용해 중앙신도회의 조직화에 먼저 힘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은 "성명서의 내용은 경청할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회장은 "성명 발표의 배경이 어찌됐든 승가중심의 종단운영을 비판하고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 내용은 종단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회장의 사퇴성명을 계기로 '승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수요 인터뷰 강북장애인복지관장 혜창스님

"불교사회복지 다양화 계기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17일 강북구 번동 306-12번지에 교계 최초로 강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한다. 94년 11월 조계종 개혁회의가 제정한 종헌 제21장 제117조 1항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는 조항에 따라 4년만인 지난 3월19일 초대 사회복지원장에 취임한 관장 혜창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 강북장애인복지관 개관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사업중 시범복지시설 육성을 위한 1차 사업의 하나로서 최초의 재단직영시설이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상담전문가, 직업훈련가,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이뤄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관련 기관을 수탁 및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기초로 불교 사회복지사업의 다양화와 전문화의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대지 1백28평, 연건평(지하1층 지상6층) 412평 규모의 복지관에 재활의료실과 보호작업장, 상담실, 목욕탕, 강당, 사무실 등을 완비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계사와 복지관을 왕복하는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며,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차량을 이용해 재택 서비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 17일 개관식과 동시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시죠.

▲장애가 심하여 활동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세상체험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초청, 장애인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계 및 강북구 장애인 시설 장애인 2백여명과 조계종 자원봉사단 2백여명이 하나가 되어 복지관에 재활의료실등 시설 완비 장애인 문화공연등 추진

서 드림랜드까지 장애인 걷기 대회, 장애인 체험, 장애인놀이시설 이용, 문화공연 등을 곁들이게 됩니다. 호응이 좋으면 매년 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원장으로서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계는 그간 사회복지재단과 각 사회복지법인, 사찰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기관, 일시보호소, 치매센터, 상담기관 등의 분야는 미약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교계의 여러 사회복지법인과의 연대·협조 등을 통해 이같은 미개척 분야를 개발하면서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인 성장도 도모 하겠습니다. IMF 사태로 양산되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중입니다. 사찰 및 복지관 경로식당과 사설 무료급식소를 활용,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재경 기자

북동포에게 국수 보시합시다

■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808-274
· 농협 053-01-237065
· 우체국 010041-0302852

■ 지로번호 7602812

예금주: 금강국수
문의처: (02)735-5559

현대불교신문사 금강국수공장후원회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러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3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월주스님 한일 축구전 관람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1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빗속에 열린 '월드컵공동개최기념 한·일축구'를 관전하고 2:1로 승리한 한국대표팀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월서스님이 동행했다. 월주스님 오른쪽은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와 손학규 前 보사부장관.

"광주지역 포교 새바람 일으킬 터"

11일 국난극복법회 무각사 개원하는 광민스님



"첨체된 호남지역 불교를 활성화하는 포교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1일 '무각사 개원식 및 국난극복과 불교중흥기원 광주대법회'를 갖는 광주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

무각사는 상무대 이전으로 폐사위기에 놓였으나 지난해 8월 송광사가 광주광역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송광사 광주포교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스님은 "무각사 주변에는 상무지구에 아파트단지를 비롯 관공서 은행 상가 등 중추시설이 들어서는 환경의 잇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시민선방 각종 수련회 등을 개설, 광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무각사는 5천여평의 대지에 1백10평의 대웅전, 상지당, 견성당 등 10여동이 조성된 대규모 도심포교당.

스님은 "도심포교와 전법도량으로서 하루 10여차례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대의 포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스님은 "무각사는 현재 시소유로 송광사가 포교도량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각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불자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각사가 사찰로서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전법도량 지원 등 종단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김중근 기자



영산재 첫 정기시연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스님)는 3월30·31일 신촌 봉원사 특설 도량에서 영산재 첫 정기시연회를 1시간동안 봉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발우공양으로 회향했다. 봉원사는 매주 토(오후3시30분) 일(오전11시30분)요일에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산재시연회를 갖는다. (02)392-3007

"도심사찰은 편안한 쉼터"

영등포 포교원 청림회 이상헌 초대회장



"도심 포교원은 세간에 지친 불자들이 부담없이 찾아오는 편안한 쉼터가 돼야합니다."

영등포 포교원 청림회(淸林會) 초대회장 이상헌(49)씨.

이씨가 청림회 창립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당시 영등포 포교원이 120평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도가 점점 줄고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씨는 지명스님(청계사 주지)의 후원을 받아 9일 아마추어무선사, 직장인, 주부 등 뜻있는 불자 30여명과 함께 청림회를 결성했다.

이씨는 "매주 목요일 다른 사찰·포교원 스님들 법문을 듣고, 참선, 단전호흡, 선체조, 불교기초교리·건강관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교차로

출소자 시설 건립기원



성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19일 경주 원효사에서 불우출소자를 위한 생활관 불공원 건립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남북불교 실무회담' 평가회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스님은 1일 북경에서 열린 '남북불교 실무회담' 평가회를 가졌다.

불교아카데미 입학식



지선 KBUF 불교아카데미 원장 스님(백양사 주지)은 3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서 제3기 불교아카데미 입학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 수계 설법회



우학 영남불교대학장 스님은 19~24일 대구시 남구 봉덕3동에 있는 영남불교대에서 전계대화상 청하스님 등을 모시고 '국난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수계 설법회'를 봉행한다.

천일지장기도 천도재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일 오전 10시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 이운 6백주년 기념 및 천일지장기도 4백일 영가천도재 법회를 봉행했다.

둥지마을 후원회원 모임

법현 둥지청소년의집 원장 스님(자현사 주지)은 12일 오전11시 안산시 대부도동 자현사에서 제1회 둥지마을 후원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는다. (032)883-9033

개금불사 탱화 점안



도일 경기도 오봉산 석굴암 주지는 26일 오전10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상 개금불사 및 탱화 조성 점안식을 봉행한다. (0351)40-3573

'국토 푸르게 가꾸기' 행사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스님(방생선원 주지)은 3월 29일 경기 이천군 7군단사령부 호국상승사에서 '국토를 푸르게 가꾸기-은행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봉축 꽃꽂이 작품 발표회



지연 한국불교 꽃꽂이회장 스님은 15일 오후3시 성북동 길상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교꽃꽂이 작품발표회를 개최한다.

지장보살 점안식 봉행

무진 경남 함안 마애사 주지는 3월30일 지장전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용추사 천불전 낙성

묘현 전남 담양 용추사 주지는 3월30일 천불전 낙성식 및 봉불식을 봉행했다.

'IMF극복과 불교인' 강연



박완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15일 오후7시 경북 영주불교법우회에서 'IMF 극복을 위한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한다.

'현대인의 수행자세' 강연



정병조 동국대학교 부총장은 3일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라문화진흥원 제16회 초청 법회에서 '현대인의 수행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교계 신문사 간부와 간담



이길웅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은 3월30일 교계 신문사 간부들과 간담을 가졌다. 이실장은 간담에서 "정부의 불교관련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청소년 활동' 주제 발표

선진규 봉화산청소년수련원장은 10일 창원청소년회관에서 한국가족계획협회가 주최한 청소년범죄 예방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 '지역청소년 활동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산 쑥뜸요법' 출간



김윤세 (주)인산가 대표이사는 최근 난치병·불치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한 〈인산쑥뜸요법〉(인산출판부 刊)을 출간했다.

btn '날마다 좋은날' 진행



황청원 작가는 1일 불교TV '날마다 좋은날'의 진행을 맡았다. '날마다 좋은날'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20 ~10시50분까지 30분동안 생방송 된다.

불교시민대학서 강연



윤구병 前 충북대 교수는 2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시민대학에서 '함께 사는 삶을 찾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숭인동 '고려한약방' 개원

허창걸 남순지장회 회원(96년 귀순)은 3월10일 종로구 숭인동에 고려한약방을 개원했다. (02)233-8283



새 사미(니)복 입고 書道 정진

Focus

3일 금요일 오전 7시 수원 봉녕사승가대학(학장 묘엄) 서예실습시간. 한 획 한 획 붓을 옮기며 마음의 움직임을 관(觀)하는 학승들의 모습에는 수행자의 기품이 서려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풍진작과 승가위계 확립을 위해 새로운 사미(니) 의제를 실시한지 한달이 지났다. 학인 중에는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인으로서 대중들과 수순하기 위해 깃과 소매에 짙은 갈색 띠를 직접 둘렀다. 새 사미(니)의복을 입고 신도를 만나게 되면 낯설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승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학인이 동참했다. 일능사미니는 "의복은 바뀌었지만 학인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영배 기자

중학 불교교과서 제작 공로 표창패



◇고우익씨



◇김형중씨



◇김남일씨



◇최봉수씨

최봉수 불교교육연합회 간사, 고우익 전국교법사단장, 김남일 전국교법사단 사무총장,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는 중학교 종교(불교) 교과서가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승인됨에 따라 3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중학교 종교(불교) 교과서는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송석구)가 97년에 제작한 것이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개인 모금 총액 1,458,000원(47명) △한 주 한끼굶기 772,840원(67명) △밥한공기 나누기 154,000원(31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 결연 3216,000원(124명) △단체 성금 및 결연 200,000원(1단체)
〈3월31일 현재 총 967,288,212원〉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성 명 서

- 다시 개혁의 정신을 드높이자 -

94년 정권으로부터의 예속과 종단내 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했던 사부대중의 간절한 개혁의지가 종단개혁이라는 물꼬를 만들었다. 당시 사부대중의 개혁열망은 정치권력과 야합했던 비자주적 종권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정권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했으며 조계종단 내부의 인사행정의 부조리와 비민주적 운영체계를 해소하면서 개혁종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당시의 개혁의지의 소산인 현재의 종단실정을 지켜보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1대 종회이후 총 18회 종회 중 8회가 유예되면서 얼마전 종회는 성원부족으로 해산지경에 이르렀고, 문중간의 이권다툼과 대립,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갖가지 소문과 잡음등이 끊이지 않아 과연 현재의 종단이 불과 4년전에 그처럼 격심한 개혁의 고통을 겪으며 탄생한 '개혁종단'인가 하는 의구심조차 갖게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IMF의 경제식민지로 예속당하고 그로 인한 실업인구가 15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98년 하반기 이후는 이를 훨씬 넘어서리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정작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요 구원자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민족종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불교종단이 내부의 갈등과 대립, 파행적 종회운영으로 다시금 전종도들을 실망케 하고 있으며 불교자주화와 종단개혁불사 건설이 중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도들의 개혁의지와 열망을 손상시키고 있다.

고통받는 중생의 구제와 더불어 쉼없는 자기성찰과 수행의 병행으로 거듭나야 할 한국불교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물질중심의 사고와 21C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 외래사상의 영향으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때 마음의 귀의처가 될 수 있는 불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위상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조계종 종단은 다시 한번 개혁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4년 전 당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개혁불사에 끝까지 참여했던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개혁의지와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치의 물러남 없는 수행의 마음으로 개혁불사를 건설하여, '민주종단', '자주종단'으로서 1600여년 한국불교사에 한획을 긋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1998. 3. 28.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奉 祝

남양주시 천마산 修進寺 觀音殿 점안식과 落成法會 및 經濟回復과 國泰民安 大法會

各界尊師와 四部大衆 十方諸賢諸位께

佛菩薩님의 慈悲光明이 늘 함께하시기를 祈願합니다.

萬物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경기 남양주시의 檗山 천마산의 淸淨한 精氣를 이어받고 雄建된 聖殿 修進寺 도량에 觀音殿을 建立하여 점안식과 落成法會 및 經濟回復과 國泰民安을 위한 大法會를 奉行코저 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무루 參席하시어 이 法會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종단 총무원장님께서는 혹 초청장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본광고를 보시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日 時 : 佛紀二五四二年 四月十七日(음 三月二十一日)午後二時
■場 所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三四二-一 천마산 修進寺
■연락처 : (0三四六五九一-七七一0(修進寺)
(0二七四二-八八九五(總務院)

住持 玄翁 南亭
證明宗正 東光 後援
證明元老院長 冶翁 白光 後援
證明元老副院長 蓂雲 寅鉉 後援
證明元老副院長 慧山 慧成 後援
證明元老議長 單潭 晩悟 後援
後援宗會院長 淨松 道圓 後援
後援文化院長 靑海 晩月 後援
後援布敎院長 一峰 文曲 後援
後援敎育院長 東悟 晩覺 後援
後援監察院長

後援 護成院長 古潭
後援 釜山宗務院長 白光
後援 京畿北部宗務院長 寅鉉
後援 京畿東部宗務院長 慧成
後援 慶北宗務院長 晩悟
後援 濟州宗務院長 道圓
後援 慶南西部宗務院長 晩月
後援 慶南中部宗務院長 文曲
後援 慶南東部宗務院長 晩覺

大韓佛敎總和宗
總務院長 全南亭

'더불어사는 마음' 위기극복 열쇠

◇진흥원 IMF 극복수련대회가 3월28일부터 29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렸다.



1080배·사경하며 "다시 일어서자"

진흥원 IMF탈출 수련대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다시 일어서자'를 주제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한 IMF극복 용맹정진수련대회.

90여명의 참가자들이 업경대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려는 듯 1천80배 용맹정진 수련을 하며 염송하는 '석가모니불' 소리가 수련원을 메아리친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어 새로운 모습을 갈망하려는 듯.

수련회 참가자들은 10자(字) 1배 하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반야심경과 법성게를 사경한다. 한획 한획 긋는 정성이 남다르다. 경제위기가 과거부터 국민들이 지어온 업장이듯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은 또 각자의 원을 담은 발원문도 작성하여 부처님께 올렸다.

산행시간. 수련생들은 수련원주변 산에 올라 계곡 곳곳에 '당당한 일꾼으로 거듭나자'는 희망을 기원하면서 도라지를 심었다.

이어 '인과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두스님(청주 관음사 회주)은 "우리나라에 IMF가 온 것은 우리가 이기심에 끄달려 살아온 것에 대한 과보"라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개혁에 동참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더불어 살고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쉽게 어려움은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의했다.

김덕수법사(대전 생활불교회 이사장)와 최응호법사(진흥원 소장)는 오전강의를 통해 "세상이 혼란스럽게 진행되더러도 흔들리지말고 부처님 진법에 의지하여 복짓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언론사에서 26년동안 근무하다 지난 2월 명예퇴직했다는 이상윽씨(서울 한강로1가)는 "그동안 집안사람의 대리신앙에 의지하다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했다"며 "정성을 들여 용맹정진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매달 셋째주 토, 일요일 다보수련원에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용맹정진수련회를 갖기로 했으며, 하반기에도 2박3일 일정으로 실직자를 위한 수련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02)719-2606.

괴산=김원우 기자

"산사서 법문들으니 신심 절로"

대불련 동문회, 호텔·식당대신 사찰서 모임

각 대학 대불련 동문모임이 법회로 정착되고 있어 신선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반단체처럼 모임을 갖던 대불련동문회들의 이런 움직임은 불자로서 돈독한 신행을 통해 우의를 다지자는 것.

이들 대불련동문회는 중앙대, 원광대 서울지부, 국민대 등으로 점차 각동문회로 확산되는 추세다.

중앙대 대불련동문회(회장 서정규, 쌍용그룹 연수실장)는 19일 오전 11시 정릉 천중사에서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을 법사로 법회를 갖는다. 중앙대 대불련동문회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또 여름 겨울에는 수련대회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원찰건립불사를 위해 4천만원을 모금했다.

원광대 불일동문회(회장 차봉기, 동산한의원장) 서울지부는 11일 오후5시 사간동 송광사분원 법련사에서 일화스님(조계종총무원 사서차장)을 지도법사로 법회를 갖는다. 원광대 불일동문회 서울지부는 짝수달 둘째주 토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이에앞서 국민대 대불련동문회(회장 김병주, 국민대교수)는 4일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은동 백련사에서 기도법회를 가졌다. 국민대 대불련동문회는 정우스님(백련사)을 지도법사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백련사에서 저녁6시부터 2시간씩 염불기도를 하고 있다.

김구배씨(원광대 대불련동문)는 "대불련출신들이 직장생활하며 사찰 청년회에 나가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동문회법회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사찰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연등회 경제난극복법회 부산·경남지회 창립도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10일 부산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연다.

연등회 지방순회법회및 부산·경남 연등회 창립법회를 겸한 이날 법회는 부처님의 자비로 민족대화합을 이루고 경제난 극복의 지혜를 모으기위한 행사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이 법문한다.

이날 행사는 성오스님(범어사주지) 철형스님(쌍계사주지) 덕수스님(삼광사주지)을 비롯하여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이 참석해 부산·경남연등회 창립을 축하하고 경제난 극복을 기원하게 된다. (051)852-0813

우리 모임에선

인천하불동 신록사순례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 인천·부천지역모임은 12일 신록사에서 야외법회및 사찰순례행사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신록사 주지 세영스님이 법문한다. 또 목아불교박물관에서 12시 50분부터 영화 '부처가 되고싶은 나무'를 단체관람할 예정이다. 011-730-1174.

청원사 장교회 알뜰시장

강원도 철원 호국청원사(주지법사 손기무) 장교불자회는 11일 철원 이평리 청성식당 주차장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이번행사는 새것이나 사용가능한 생활용품 등을 교환, 판매할 예정이다. 이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다. (0353)55-3103 청원사.

경기銀 불자회장 박종국씨

경기은행불자회는 신임회장에 박종국(인천신현동 지점장), 총무에 이창석(인천 용현동지점 차장)씨를 선임하고 13일 인천 용화선원 시민선방에서 참선모임 갖기로 했다.

경기은행불자회는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매월 둘째 월요일 정기법회를 인천 용화선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또 3개월에 1회씩 강화 무애원에서 철야정진법회를 열어 신심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032)883-7861

'한통' 불자회 정기법회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는 8일 본사 대강당에서 화암스님(남양주 봉선사 총무국장)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02)526-5610



국제불교도연합회 평화기원법회

국제불교도연합회(공동의장 혜총스님)는 3월 26일 코모도 호텔에서 제7차 국제불교도대회와 국운회복및 세계인류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홍(원효종 종정) 도성(前 해인사주지) 진해(시민선원 회주) 태연(일본 조계종 총관장) 성오(범어사주지)스님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티벳의 상가취에 림포체와 라마 10명이 국운회복과 세계인류 평화를 위한 라마뮤경과 진퉁승무를 선보였다.



파라미타 청소년자원봉사센터현판

파라미타(회장 현근스님)는 3월26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현근스님(조계사 주지), 안은자교장(명성여중), 이원주교장(명성여고), 우하수교장(동대부중), 김원식교장(동대부고), 고우익단장(전국교법사단), 최병수실장(조계종 포교연구실) 김해인사무국장(파라미타) 등이 참석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파라미타의 98년도 중점사업이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승가원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청광, 무심정사 주지)이 3월30일 오전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주공7단지내 복지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승가원 이사장 지하, 백련사 주지 흥교스님, 오세응 국회부의장, 오성수 성남시장 등 5백여명이 참석.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5백여평 규모.



표충사 사명대사 509주기 추모재

밀양 표충사(주지 신허)는 3월 31일 표충서원에서 제 509회 사명대사 추모 춘계향사를 봉행했다.

신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명, 서산, 기허대선사의 호국충혼을 되살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 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법회에는 보광사주지 화산스님, 전 해인사주지 도성스님, 통도사주지 월파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탐방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국민화합·자연보호 원력 실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3월30일 악산 홍은사에서 5층 불탑 제막식 및 대법회를 개최하고 탑돌이행사를 가졌다.

23개 산악회 1천여명 회원 6월초 '지역감정해소' 법회 사찰수질살리기운동 전개

3월 30일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 지정수행도량인 안동 홍은사 5층불탑 제막식및 대법회에 참석한 서울 동부불교산악회, 안동불교산악회등 3백여명의 산악인 불자들은 종진스님(해인사 율원장)의 법문에 이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탑돌이를 했다. 약산 홍은사 불탑은 넓이 2.1m, 높이 6m로 자비와 효사상 선양을 기원하는 5층 석탑. 이로써 5월 10일까지 동국대 손현칠교수팀의 단청작업이 끝나면 20억여원이 투입된 불교산악인연합회 수행도량 홍은사 불사는 완공을 보게 된다.

전국 10개지역 23개 불교산악회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97년 법주사에서 '산행을 통해 신행을 증진하고 우리 산하를 청정국토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창립했다. 그런만큼 산악인불자들의 신행다지기는 활발하다. 12일 경남 양산불교산악회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은사에서 수련산행대회를 갖는다. 또 19일에는 서울지역 동부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연심회와 안동불교산악회가 연합하여 홍은사에서 수련산행대회를 준비중이다.

불교산악인연합은 창립 이후 '지역화합 국민화합'을 다짐하며 산악회간 연대활동을 강화해왔다. 지역화합을 위해 광주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가 연합하여 광주와 부산에서 산악모임을 갖고 벽허물기 산행을 실시했다. 3월 1일에는 경북 영주불교산악회가 서울지역 4개 불교산악회와 함께 도봉산 망월사에서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간(都·農間) 친목을 다지는 3·1정신 계승을 위한 산행모임을 갖기도 했다.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앞으로 전남, 충남등 도단위 미창립 2개지역등을 중앙회에서 지원키로 하는등 올해내 전국도지부 결성을 완료할 계획. 또 제주지회와 인천지회도 창립하여 1백여 단위산악회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손현수회장은 "산행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찰 정화조설치 계몽운동과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박완일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



건국이래 최대위기인 IMF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불자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그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불자이며 연사로 널리 알려진 박완일교수의 초청법회가 오는 11일 해동용궁사 대웅전에서 거행됩니다.
금번 초청되는 박교수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 명쾌한 강의로 청중을 사로잡는 시대의 달변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기 연사입니다.

◇ 일 시 : 4월 11일(음 3. 15) 토요일 10시 30분
◇ 장 소 : 〈부산〉해동용궁사 대웅전
◇ 교 통 : 용궁사버스 매일 운행함(시내버스 181번)
◇ 연락처 : 051)722-7744, 7755
◇ 후원회 : 불교TV, 기장군불교사암연합회, 불해동불교신문사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만등만화육법공양대법회



부처님께 일만 등불과 일만의 꽃을 바침은
세세생생 이어지는 공덕을 쌓는 것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옛날부터 부처님께 진실한 공양의 뜻이 담긴 향(香), 등(燈), 다(茶), 꽃(花), 과일(果), 쌀(米)의 여섯가지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고귀한 공양으로 쳐왔습니다.

금번 동해사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불심이 깊은 항도 부산에서 그 불사를 재현하여 불자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2년 4월 12일(음 3.16)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 KBS 부산홀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동해사
(T.0561-745-6885, 051-441-5038)
■ 후 원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BBS 불교부산방송,교계언론사, 부산불교운전기사회
※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법회안내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목동 법안정사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0일 오전 10시 경국사 초열흘법회. 매월 음력24일 오전 10시 경국사 관음재일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등록〉 강의. (02)765-9602



혜광스님(법주사 주지)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봉안 8주년 기념대법회 및 저녁 7시 철야기도법회. 26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0433)43-3615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12일 오전 10시 일산 여래사법회. 19일 오전 10시 구룡사 일요가족법회. 2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다보법회. (02)260-3015



법성스님(대승사 주지) 19일 개원 2주년 기념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일요법회. (02)747-5589



일관스님(혜능선원 원장)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0일 오전 10시 경국사 초열흘법회. 매월 음력24일 오전 10시 경국사 관음재일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등록〉 강의. (02)765-960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

동해사 육법공양 재현

선혜선인이 보광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던 그 지극함으로 맞아야 할 초파일. 향, 등, 차, 꽃, 과일, 쌀 여섯가지 공양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의식을 재현하는 만등만화 육법공양이 봉행돼 불자들의 주목을 끈다.

동해사(주지 도주) 주최로 12일 KBS 부산홀에서 열리는 육법공양법회는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쌀공양의 순서로 정성껏 치뤄지게 된다. 특히 도주스님이 직접 만든 180여송이의 연꽃, 작약, 목단으로 재현되는 꽃공양은 불전공화시연, 칠경화재현, 불전화혼의식 시연, 남방불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꽃공양과 현대의 불전공화를 소개해 시대별 꽃공양의 변천과 오늘날 공양의 의미를 되짚게 된다. (0561)745-6885

신행수첩

빛으로 중생어둠 밝히자

부산청년회 연등제작 경연

부처님 오신 참뜻을 우리들 마음에 깊이 담기 위한 봉축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등만들기.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불교청년회(회장 김흥기)는 19일 범어사 탑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겸한 제1회 연등만들기 경연대회를 연다. 경연은 연등만들기와 창작등 만들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 연잎을 빚고,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들의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저절로 닮아가게 될 것이다. 접수마감은 11일. (051)867-8048

서산대사 호국불심 기려

대둔사 나라사랑 글짓기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가 서산대사 탄신 478주년을 맞아 8일 오전 10시부터 제4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갖는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전국 각지의 승려들을 통솔하며 구국에 앞장섰던 서산대사의 큰 뜻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나라사랑 글짓기에 동참해 보자. 이번 행사는 해남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비롯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0634)34-5503

실직자 마음달래는 여행

청룡암 무료사찰순례

살랑대는 봄바람. 그러나 실직자들의 마음은 황량하기만 하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받아야 할까?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성북동 청룡암(주지 혜조)은 실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19일 장성 백양사로 떠나는 무료사찰순례를 마련했다. 봄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백양사에서 스님의 법문도 듣고, 향긋한 차한잔속에 삶의 참 맛도 음미해 볼 수 있다.

당일 오전 7시 삼선교로타리 농협앞에서 출발하며 선착순 마감. (02)742-8120

나의 수행일기



손영철 〈무량회 회장〉

'누군들 산속에 들어가 도를 닦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도를 닦지 못하는 것은 세속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산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지런히 선행을 버리지 말라'는 발심수행장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나는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군시절 태안반도에서 복무했던 나는 시간이 날때면 늘 수덕사, 천장사를 찾았다. 교리적으로 불교에 대해 해박하지도 못했지만 그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다. 고향에 온 것처럼. 지금도 가끔 마음이 답답할때면 근교의 산사를 찾아 부처님 앞에 앉는 것은 아마도 그때의 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중위까지 복무하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군복색깔의 물건만 봐도 싫증이 났다. 군복을 벗고, 이곳 저곳에서 일을 하다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불교를 온전한 종교로써 받아들이는 계기를 맞게 됐다.

무량회(無量會). 내 수행생활은 무량회로 시작해서 무량회로 끝난다. 91년 10월 창립된 무량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근무하는 60여명이 회원이다. 경제적 이득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생환현장인 직장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위해 시작된 것이 무량회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반이면 하루일과를 모두 마친 회원들이 올림픽회관 1층에 마련된 무량사에 모여 법회를 본다. 무량사는 우리회원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거룩한 수행생활의 터전이다.

부처님은 〈보현행원품〉에서 중생들의 세계와 정토세계가 둘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그 가르침대로 내가 속한 직장생활속에서 불자로서의 참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내 수행의 최대목표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삼세의 부처님 모시는 일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 모두가 미래의 부처님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막상 법회현장에서 부딛치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주도적으로 법회를 이끌어 줄 지도법사가 없다는 것이 큰 애로점이다. 또 회원 개개인의 성향과 욕구를 반영하기도 쉽지가 않다. 격무를 마치고 법당을 찾은 회원들 가운데는 조용히 참선을 하고 싶어하는 이, 경전공부를 하려는 이, 법우들과 환담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하는 이도 있어서 모두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일 때가 많다. 그래서 불교 수행과 불자 친목 동호회의 장점을 두루 살려서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내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무량회 도반들과 함께 일궈나갈 서원을 세웠다. 우선 오는 초파일 가족과 친지, 어려운 이들을 위한 108법등을 밝히는 일이다. 경제한파로 모두들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등불 밝히는 일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틈나는 대로 무량사 법당에서 연등을 만들고 있다. 또 개인적 차원의 수행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대승보살의 차원으로 수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인연맺기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생각이다. 작지만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무량공덕을 쌓고자 한다.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여 반야지혜를 완성한다. 우리는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을 간다. 우리는 직장의 발전을 위하여 이익중생을 이상으로 산다'는 무량회 3대서원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직장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현행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직장불교 활성화 '수행의 화두'

회원의견 존중·고민 나누며 이익중생 서원



20일은 장애인의 날

산행·체육대회등 행사 다채

교계복지시설 12~24일 프로그램 마련

부처님오신날과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행사가 교계복지관과 장애인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됐다.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9일 오전 10시 팔공산 갓바위에서 시각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제7회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053)256-0114

서울 광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해성)은 동국대 수화동아리 손짓사랑회와 19일 오전 10시 석촌초등학교에서 '청각장애인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는다. 장애인과 정상인이 팀을 구성해 축구, 피구, 수화노래 배우기,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02)202-5831 원심회(회장 덕신)도 19일 오전 10시 용산가족공원에서 체육대회를 연다. (02)720-4528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장)은 17일 오전 1시 장애인나들이 및 연예인 공연을 펼칠예정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드림랜드 구간 장애인 행진, 장애인체험, 드림랜드 놀이시설 이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02)723-5101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은 12일 오전 10시 자원 활동자 파송 단체인 부름의 전화에서 벌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남산 벚꽃 놀이에 참가한다. 남산길 7㎞를 휠체어를 밀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이 행사에 참가할 건장한 남성불자들을 기다린다고. (02)741-4696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도 20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초청, 재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체육대회 및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051)247-4084

원주 소쩍새마을은 20일 지역주민을 초청해 수용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며(0371-762-3745), 경남 거제 치자마을도 20일 수용 장애인을 위한 다과회와 기념행사를 갖는다. (0558)32-185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22일~2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청, 제주 등지에서 구두, 넥타이, 생활소품 등 장애인생산품 특별판매행사를 벌인다. (02)718-9363~5



◇장애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게 시 판

♣ 인사

조계종총무원 △사서차장 일화스님 △사업국장 성호스님 △조사국장 정호스님 △기획국장 중현스님 △감사국장 증수스님 △사회국장 종서스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한보광 △정보통신연구소장 이금석 △지역정책연구소장 김영종 △관광산업연구소장 서태양 △출판부장 신일식 △교육방송국장 선상규(학생부처장 겸직)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장 김종진

♣ 알림

△청소년 건전 노래방=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청소년 문화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건전노래방 운영 및 기계 대여사업을 한다. 노래방 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각종 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등에 무료 대여 및 설치를 한다. (032)573-4855

△여불련 연수교육=10일~11일 양일간 도선사에서 전국여성불자지도자 연수교육 실시. 주제는 '종교의 여성과 사회적 기능'. (02)738-5586

♣ 강좌

△박물관대학=광주민속박물관(관장 이종일)은 4·5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사상과 문화'를 주제로 박물관대학을 마련한다. 삼국시대의 불교사상, 선종의 사상과 선문화, 강진지역 답사 등이다. (062)514-9866, 521-9041

♣ 모집

△이동목욕 도우미=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목욕을 도울 간호사, 운전기사, 목욕도우미를 모집. (02)852-0522

△동화구연·피아노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이야기 화법, 동화 말하기, 아동지도를 위한 대화법, 바이엘, 체르니, 째즈, 클래식 등을 지도하는 동화구연교실 및 피아노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817-8052

♣ 이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의 부설기관인 노인상담전화 사무실이 대구시 남구 이천 2동으로 이전했다. (053)476-6631

△해동불교신문사(구 부산불교)는 3월22일 부산시 진구 양정2동 406-11 조양빌딩 202호로 이전. (051)851-6633, 6644

♣ 부음

△엄상호 건영육영재단 회장(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건영그룹회장)의 모친 강순분여사(79세)가 1일 오전 9시30분 별세, 3일 오전 8시 경북 의성 비봉산에 안치됐다. (02)3445-4461

우리옷 —— 연/지/곤/지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전국 사찰주문 쇄도 ●
우리옷 연/지/곤/지
▶문의처 02)3461-8552~3

● 연지곤지는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로 보급합니다. ●

1일출가

해은사 「행복찾기 수련」

"행복찾기"란
이미 여기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행복꺼리에 바로 눈뜸(正見)을 뜻합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것에 바로 눈 떠 누릴 줄 아는 지혜를
쉽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분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 행복찾기 수련내용

	주 제	내 용
첫째 마당	한계 없는 나	· 참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연찬 · 중생으로서가 아닌 성자로서 자신의 실상을 자각
둘째 마당	마음 맑히기	· 자신을 제약하던 모든 번뇌를 회향하고 존재 전반에 대한 감사
셋째 마당	나에게 반한 나	· 자기 주인으로서의 나에게 찬탄함.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대한 실상 찬탄
넷째 마당	세상 밝히기	· 나와 세상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는 뜻대로 사는 삶.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1시부터 일요일 5시까지
● 장 소 : 해은사 김해시 동상동 산10번지 분산성 만장대
T. 0525)33-0705 F. 0525)36-5589
● 참가비 : 6만원

※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해은사

'한국가사와 사상연구' 등 펴내
불교가사 국문학장르로 개척 김주곤 교수

"歌辭문학 사상배경은 불교"


◇김주곤박사가 낸 책.

불교가사(佛敎歌辭)는 4·4조로 리듬이 유연하고 내용이 쉬운데다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그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바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불교가사를 국문학의 한 장르로 개척하고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이를 알리려는 사람이 있다. 최근 〈한국가사 연구〉와 〈한국가사와 사상연구〉(이상 국학자료원 刊)를 연속해서 펴낸 김주곤교수(65, 경산대 국문학과)가 그 주인공.

"4대째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란 탓에 평상시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불교가사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고시가(古詩歌)연구를 하던 중 불교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가사는 고려말에 발생한 이래 조선조에 들어와서 크게 융성한 시조와 함께 우리 고시가의 양대 축을 이루어왔다. 특히 정토·윤회·미륵 등 불교사상이 담긴 불교가사는 당시의 사상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돼 왔다.

김교수가 지난 94년 펴낸 〈한국불교가사연구〉(집문당 刊)는 불교가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성과가 없었던 당시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가사의 형성배경에서부터 나옹·서산·경허스님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서원·왕생·참선류 등 내용상 분류는 물론 문학사적 위상을 재평가해냈다.

이번에 펴낸 〈한국가사와 사상연구〉에서는 불교가사에 나타난 정토·미륵·선·충효사상을 밝힘으로써 깊이를 한층 더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사의 최고봉이랄 수 있는 송강가사에도 불교사상이 녹아 있음을 입증해냈다. 또 〈한국가사 연구〉에서 송강가사가 유교적 도교적이라는 기존의 정설을 뒤엎은 자신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환경에 따라 무아의 불성에 물든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에 제행무상·윤회·선정(禪定)사상이 스며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송강가사에 불교사상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학문적·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불교사상을 원용하지 않고는 인간과 자연을 표현하기 힘들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서구에서 선 열증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물질문명의 병폐를 인간심성회복으로 해결하자는 자각때문이라고 지적한 김주곤 교수는 "불교가사에는 가치관 혼돈시대의 오늘을 바로잡고 삶의 긍극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단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옛것으로만 치부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불교가사의 의미를 되새겨 주면 모두들 감동하지요"라며 우리 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계속 펴내고 싶다고 말한다.

한명우 기자

불심시심 〈124〉

시는 구름과 물의 의미

禪房花木晩來幽 선방의 꽃과 나무 늦은 시각 더 그윽해져
(선방화목만래유)
安得詞翁共此樓 어쩌면 시인과 이 누대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안득사옹공차루)
詩至每言雲水意 시 지극한은 항시 구름과 물의 뜻을 말함이나
(시지매언운수의)
月明其奈別離愁 달 밝아지면 이별 수심을 그 어찌해야 하리까
(월명기내별리수)
鴛聲繞岸淸如滑 꾀꼬리 소리 언덕 둘려 맑기 미끄러질 듯하고
(앵성요안청여활)
山色當窓翠欲流 산빛은 창에 다달아 물 흐르듯 푸르다
(산색당창취욕류)
衮衮相逢眞好事 자주자주 만남이 참으로 좋은 일이니
(곤곤상봉진호사)
不須留待菊花秋 굳이 국화 피는 가을을 꼭 기다릴 필요야.
(불수유대국화추)

인악화상의 '평와의 운에 차운한다(次平窩韻)' 시로 봄날의 경치를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다. 꽃과 나무의 향기도 해저녁이 되어서 더 짙게 풍기는 것이 산중의 정경이다. 더구나 조용한 선방과 어울려 있다면 그 그윽함이 말할 수 없는 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때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역시 시를 사랑하는 친구이면 좋겠다.

그래서 짓는 시 또한 자연의 소재 그대로여야 한다. 구름이나 흐르는 물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연의 유유함이다. 운수란 집착이 없기에 승려의 행색으로 대유되기도 하지만, 시의 저작 자체도 이 구름, 물의 흐름보다 더한 이야기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달의 밝음이 서로의 만남을 도울 듯도 하지만, 밝음 뒤의 어두움이나 만남 뒤의 헤어짐이 전제되어 오히려 수심으로 내비칠 소지가 강하다. 그러기에 달밤의 이별이 만남보다 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일 수가 있겠다.

새의 울음은 봄을 알리는 잔령자이다. 꾀꼬리의 울음은 새 울음의 극치로 칭송된다. 그 맑기의 매끄러움 때문이다. 봄의 색깔은 창을 뚫고 들어와 사람들을 싱그럽게 한다. 그 푸르름이 물줄기처럼 흘러든다. 자연의 구성은 소리와 빛이다. 이것은 존재일 뿐 움직임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것을 동작으로 생동화한다. 소리는 미끄러지고 빛은 흐른다. 이것이 바로 진리요, 선의 일상사가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교작법무는 총 4종"

법현스님 논문발표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선무학회〉지 98년도 봄호(7호)에 발표한 논문 '불교무용연구-춤의 분류와 반주음악을 중심으로'에서 "불교의식의 상단 중단 하단 의식 모두에서 작법무가 사용되었으며 불교무용에서 사용되는 작법무는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 등 4종"이라고 밝혔다.

나비무에는 오공양작법 도량계작법 등 14종, 바라무에는 천수바라 요잡바라 등 7종, 타주무 1종, 법고무 1종이 쓰인다. 바라무 7종과 법고무는 현재 행해지고 있지만 나비무 16가지 작법중 만다라작법은 舞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타주무는 범패와 기악반주 없이 무가 이루어지고, 나비무와 바라무에는 홋소리가 사용되고 법고무에는 범패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비무와 바라무, 법고무에 사용되는 기악반주는 모두 호적과 사물 삼현육각이다.

법현스님은 "민속무용 '승무'를 불교무용인 것으로 이해되어온 기존까지의 용어는 재고되어야 하며 민속무 '승무'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화제의 공연 & 전시


◇명무명인전에 나오는 자은스님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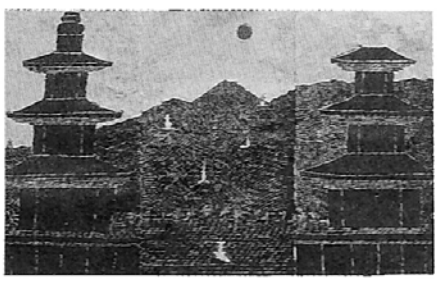
한국의 명무명인전 10·11일 호암아트홀

민족예술의 우수성 체험 기회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은 11·12일 양일간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제16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을 개최한다.

11일에는 춘앵전(김희숙) 도살풀이춤(양길순) 가야금병창(강정숙) 승무(임이조) 태평무(강윤나) 경기민요(이춘희) 살풀이춤(김정녀) 대금산조(이생강), 12일에는 태평무(고선아) 살풀이춤(정명자) 승무(김진홍) 으뜸춤(허순선) 가야금산조(양승희) 한량무(이척) 살풀이춤(엄옥자) 재생(자은스님 오미자) 등이 공연된다. 인간문화재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다수 출연하는 이번 명무명인전은 민족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맘껏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재생'은 전생의 업보로 문둥병에 걸려 고통속에서 삶을 살다가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가피로 병을 고치고 스님이 되어 득도하는 한 인간의 삶을 조명한 춤이다. (02)585-7318


◇제4회 관화미술제에 나온 김상구作 '경주 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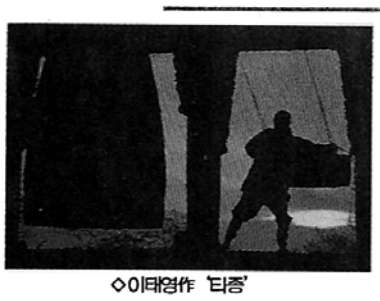
서울판화미술제 15일까지 예술의전당

"경주남산" 등 1300여 작품 감상

제4회 서울판화미술제가 7일부터 15일까지 서초동 예술의 전당 전관에서 펼쳐진다. 현대판화공방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3개 화랑과 국내외 공방 9개, 관련업체 5개사 들이 참가하는 이번 판화미술제에는 김상구 강승희 김기창 황남채 김승연 도윤희 임효 백순실 씨 등 국내작가 3백여명이 참여해 '경주 남산' 등 1천3백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김유정 서유정 유귀열 이은경 정길재씨 등이 '21세기 판화의 예보'라는 제목의 대규모 공동설치작품을 발표한다. 매일 오후2~5시 어린이 판화교실, 판화백일장과 판화경매제(13일 오후4시) 등 판화의 대중화와 판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번 판화미술제에서는 IMF시대를 맞는 국민미술제라는 취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판화작품을 살 수 있다. (02)518-6323


◇이태영作 '타종'

대한민국 사진전 '대상'
최재영씨 '다정한 속삭임'

불교소재작품 다수 입상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이봉하)가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에서 대상은 최재영씨(53, '98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다정한 속삭임'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서일성씨의 '힘', 특선작으로는 김형덕씨의 '참선' 이태영씨의 '타종' 함재호씨의 '환희' 등 10작품이, 입선작으로는 서춘식씨의 '바라춤' 이정환씨의 '열반의 길' 등 1백42점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등숭 등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전시된 후 대전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회전시를 갖는다.

안성 봉업사지서 목탑지 발견

10세기 조성…소조불상편 등 수습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이 모셔졌던 안성 봉업사지(奉業寺址·일명 죽산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10세기 전반의 목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비롯 고려시대의 건물지 21개소, 금박을 입힌 소조불상편, 명문기와 등이 다량 수습됐다.

28일 봉업사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진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부터 3월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발굴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목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발견. 한변의 길이가 13m인 정방형의 이 건물지는 이중기단 위에 정·측면 각각 4칸(혹은 5칸) 규모의 건물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나말여초의 두늬있는 기와가 출토돼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명문기와는 70여 종류로 분류되는데 '흥국8(興國八·983년)'·'신유년유년작(辛酉年作·961년)' 등은 명기와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발과 의습편이 대부분인 소조불상편은 의습에는 채색흔적과 금박편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경기도박물관은 5월31일까지 봉업사지 및 회암사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테마전시회 '경기도 지정문화재 순례 I'을 개최하고 있다.

불기 2542년 봉축행사용품 보급

연꽃 향기 가득히

btn이 부처님 오신날을 보다 장엄하게 꾸며 드립니다

btn이 연꽃향기 가득한 마음으로 4·8 봉축행사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친근한 디자인, 격조 높은 고급품질로 btn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 내겠습니다.
- btn 임직원 합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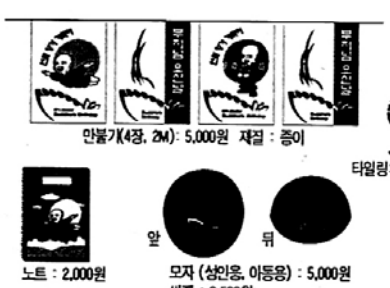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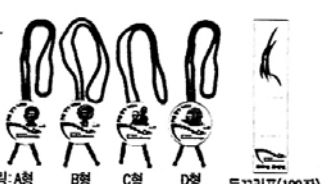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현수막(A형) : 6M 40,000원, 8M 50,000원, 10M 60,000원

불기 2542년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B형) : 6M 40,000원, 8M 50,000원, 10M 60,000원



플래너 거치대 25,000원
플래너 2종 1세트 : 50,000원
번 : 50,000원 (거치대 포함)


만불기(4장, 2M): 5,000원 재질 :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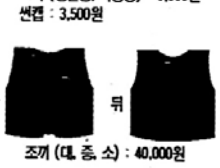

타월링: A형 B형 C형 D형 가격 : 1,000원

등꼬리표(100장) 2,000원

노트 : 2,000원

모자 (성인용, 아동용) : 5,000원
썬캡 : 3,500원


노트 : 1,000원


조끼 (대, 중, 소) : 40,000원


티셔츠 (대, 중, 소) : 9,000원
래글드퍼, 앞뒤 인쇄, 성인용, 아동용

폴로티셔츠 (대, 중, 소) : 15,000원
앞 자수, 성인용, 아동용 (고급형)

어깨띠 : 3,000원 (100매 이상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버튼 : 400원 (A형, B형, C형, D형 낱개판매)
버튼형 열쇠고리 : 1,000원 (A형, B형, C형, D형 낱개판매 . 뒷면 거울 부착)


퓬시 스티커 : 100원 (A형, B형, C형, D형, E형 낱개판매)



차량스티커 : 2,000원
예쁘시, 방수 고급스티커


공선 : 30,000원
4색혼합 100개 들이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TV 채널32 불교TV에서 방영되는 광고와 각 사찰로 발송되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상담전화 (02)3270-3366 (신용카드 구매가능)
- 4월10일까지 선주문시 5%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농협중앙회 069-01-233103 예금주:불교텔레비전(주)

우 121-73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416
문화사업단 : TEL:02)3270-3366(대)
FAX:02)3270-3498

btn 불교텔레비전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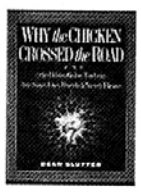
부처님 얼굴



동·서양에 흩어진 부처님 상호 95개를 정관(正觀)할 수 있는 〈부처님 얼굴(Buddha Book : A Meeting of Images)〉은 헨리 마티스(화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감독), 백남준(비디오 아티스트) 등이 그린 부처님 상호와 동·서양의 박물관·사찰 등에 소장된 희귀본 부처님 상호를 모았다.

이 책은 미국 불교시사지 〈트리사이클〉의 편집인 프랭크 오린스키가 부처님 상호를 선별하고, 美 콜럼비아대학 로버트 트루만교수(인도-티벳학)가 현대적 해석을 붙였다. 美 Chronicle Books 刊. (96 pp. ISBN 0-81181-777-6)

닭이 길을 건넌 까닭은



우주적 보편성을 파헤친 진지한 이야기이지만 쾌활한 모험이 있는 〈닭이 길을 건넌 까닭은(Why the Chicken Crossed the Road)〉은 현대인의 문화적 배경을 일상의 언어로 깊이있는 깨달음의 가르침을 밝혀낸 문화비평서.

60년대 히피세대인 딘 슬러터는 "롤링스톤의 '만족(Satisfaction)' 노랫말과 〈티벳 사자의 서〉를 비교하는 등 대중문화 속에서 깨달음의 화두를 찾고 싶었다"며 저술 동기를 밝혔다. 美 Putnam 刊. (224 pp. ISBN 0-87477-905-7)

성덕태자 사전



일본불교 중흥의 시조로 알려진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생애와 사상, 불교신앙 등을 집대성한 〈성덕태자 사전〉이 이시다 쇼호오(石田尙豊)의 편집으로 출간됐다.

일본내에서 '추앙'과 '비판'이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아 온 성덕태자와 관련하여 중도적이고 객관적 입장을 견지, 집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성덕태자 관련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근거로, 불교사 고대사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등 모든 분야의 성과물을 모았다. 日 백서방(柏書房) 刊.

'무욕의 삶'으로 행복한 사람들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여성학자 노르베리 16년간 라다크생활
서구 물질문명 유입 공동체 파괴 염려



◇라다크인들은 무욕의 물교적 삶을 산다.

사방이 산이고 황갈색에서 연초록까지 다양하면서도 따뜻한 색조를 띤 거대한 산정들의 고원 '작은 티벳' 라다크. 한겨울 디딜때마다 황량한 모래와 먼지구름이 일어나 '정토(淨土)'라고 부르기엔 왠지 어색한 곳. 그러나 웃음띤 얼굴들을 마주하면 생각은 이내 바뀐다.

무욕 무소유. 이들의 삶은 그 자체가 불교다. 순야타, 즉 공(空)의 철학이 이들을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미술과 음악, 문화와 농업에 불교는 뗄 수 없이 스며들어 있다.

녹색평론사에서 펴낸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천년이 넘게 티벳 불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자급자족의 삶을 꾸려온 히말라야 고원 라다크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찾는다. 저자 스웨덴 출신의 여성학자 헬레나 노르베리는 16년간의 현지체험에서 목격한 '근대화 과정'에 따른 유서깊은 공동체의 생명력과 불교적 삶의 상실을 우려하면서 그 해답을 화엄의 연기사상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라는 공의 자비심을 타고난듯이 보였다.

마을사람 타시는 이렇게 말한다. "비와 바람과 땅이 나무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속의 모든 것이 나무를 나무로 만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성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사물은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과 이해는 그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며, 자비심과 함께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한 염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심은 이른바 깨달음의 방법이다.

그런 라다크에 변화가 시작됐다. 1974년 인도정부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술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저자는 자비심으로 뭉쳐진 불교적 삶이 파괴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을 염려한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라다크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서구문명의 개발위주논리는 결과적으로 환경과 인간심성의 파괴를 가져왔다. 어찌 라다크 뿐이겠는가. 헬레나 노르베리는 〈오래된 미래-라다크에서 배운다〉에서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명우 기자

■ 맹란자씨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역사속으로 죽음기행



◇맹란자씨

"어떻게 살것인가" 부처님·김삿갓 등 동서양 1백여명의 죽음관이 주는 지혜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죽음을 잃으라. 그러면 삶이 보이리라." 저자 맹란자씨(56·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는 삶이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가끔은 자신을 죽음앞에 세워보는 일도 무익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역사 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세훈刊)는 부처님을 비롯해 세네카와 네로, 광해군과 마지막 황제 부의,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두보와 김삿갓,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등소평과 스탈린 등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집약시키면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할 삶의 모습을 그려보이고 있다.

6·25피난중 산골뒷방에서 본 여동생의 시신, 10년뒤 중학생이던 남동생의 갑작스런 죽음과 심장마비로 인한 어머니의 외로운 죽음. 저자의 죽음에 대한 탐구는 남다른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데만도 30여년이란 긴 시간의 공을 들였다.

"남은 생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없다. 생사란 본래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라는 불교의 죽음관에는 영원한 자유와 해탈만이 있다.

고은 시인은 책 추천사에서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혼자의 창가에서 TV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뜨거운 질문임을 모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부분. 동서고금 1백여 인물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죽음을 압축하고 비슷한 죽음을 짝지은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 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필독서. 자살이 부쩍 늘고 있는 요즘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

"삼국시대 불교는 통치이념"

장지훈씨 '한국고대 미륵신앙 연구' 펴내



장지훈씨(대구효성가톨릭대 강사)가 펴낸 〈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집문당 刊)는 불교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닌 일반계층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륵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미래불사상과 지상천국사상으로,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피지배계층이나 소외 집단에서 크게 신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왕들이 계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미륵신앙이 유행되면서 전륜성왕의 계율에 바탕을 둔 정법치국사상(正法治國思想)이 통치이념으로 확립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불교를 지배계층에만 국한된 특권종교로 보는 시각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서울지역 사무직 종사자 독서량

남자 16.2권 - 여자 10.9권

서울지역 사무직 종사자들의 지난 한 해 평균 독서량은 남성 16.2권 여성 10.9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민 평균 독서량인 9.7권보다는 많지만 일본 성인들의 지난해 평균독서량인 19.2권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30일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가 서울지역 20대이상 사무직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들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제5회 국민독서실태조사 1997' 발표에 따르면 사무직 남성들의 독서시간은 평일평균 30분, 주말 42분, 사무직 여성들은 평일 41분에 주말 46분으로 TV시청시간의 25~50%에 불과했다.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인각사, '삼국유사의 산실…' 펴내

조계종 인각사(주지 대원)는 최근 인각사의 뿌리와 정신, 역사를 소개한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소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는 5천년간 면면히 이어온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서문과 함께 일연과 인각사의 인연, 삼국유사의 현대적 의의, 인각사의 모습을 그린 목은 이색의 '인각사 무무당기(無無堂記)', 인각사 복원 계획이 수록돼 있다.

화제의 책

"이렇게 비슷하다니"…30여 항목 소개



불경과 성경… 윤청광 지음

불경과 성경을 둘 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슷하다니…"하며 유사한 대목이 꽤 많음을 느낄 수 있다.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에는 마아탕가 여인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에서부터 공양과 헌금, 마가다국 카아샤파와 요한, 평등한 석가모니와 하나님의 사랑 등 불경과 성경의 원문비교를 통해 30여가지 '같은 대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가르침이 같다면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 종교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요지다. 〈서울출판미디어 9천원〉

"부처님 말씀 마음의 평화 이끄는 과학"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김정빈 지음



"부처님은 일종의 과학자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과학은 마음의 평화(離苦得樂)에 관한 과학입니다" 지난해 위빠사나 명상법을 소개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펴내 큰 호응을 얻었던 작가 김정빈씨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9가지 원리〉에서 불법을 통해 지금의 자신과 현재를 아는 것이 행복을 찾는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욕망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 속할 뿐 무욕한 마음만이 지금에 속함을 깨닫는다면 욕심을 버리고 지금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요, 삶의 정도라고 말한다.

정직과 순수, 법치과 이치 등 9가지 원리에 대해 각각의 이야기를 삽입시켜 수필식으로 전개하고 있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도솔 7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6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불교대학편찬위원	동국대불교문화대학
7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8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9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연구회	반출판사
10	스님의 맨발	한 승 원	문학동네

구입문의:(02)737-0695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너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뇌허학술상에 장충식교수



뇌허 김동화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제14회 뇌허학술상 수상자로 장충식 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가 선정됐다. 뇌허학술원(원장 관응스님) 운영위원장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장)은 "2년간 수상자를 내지 못했으나 올해는 총 3백여개의 저술과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장충식 교수의 저서 〈한국의 불교미술〉를 뽑게 됐다"며 학계의 성원에 감사했다. 장충식 교수는 "학문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하며 "앞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기초학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불교미술〉(1997년 2월 민족사刊)은 가람배치, 불화와 불상의 도상, 건축공예의 변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불교미술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시상식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서 열렸다.

학술단신

'한국불교학' 제23집 발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 학술지 '한국불교학' 제23집이 발간됐다. 이번호는 동국대 김영태 교수의 정년특집으로, △唐 구화산의 신라 지장선사 고찰(김영태) 등 8편의 특집 논문과 함께 △법안문익(法眼文益)의 선사상(혜원스님) △유식에 의거한 경험세계의 속성(김사업) △좌선에 있어서 비사량(非思量)의 심리(김호귀) 등 총 21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02)260-3122

선학강좌 수강생 모집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제2기 선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선문정로〉를 교재로 1·2학기(각 10주)로 나누어 목정배 교수가 강의한다. 개강은 10일 오후 3시며, 강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 수강료는 매 학기당 5만원. (02)265-5215

교수 · 학인 논문 공모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교수 및 학인 논문'을 공모한다. 승가교육기관 이상 전·현직 교수와 기본교육기관 이상 재학 학인일경우 공모가능하다.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나 교수법과 교과과정의 개선 등 승가교육 관련 논문을 우선 채택할 예정이다. 또 교수논문에는 1백만원, 학인논문에는 50만원의 논문연구비가 지원된다.(02)720-4641

신라문화 제14호 발간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 논문집 '신라문화' 제14호가 발간됐다.

이번 논문집에는 '길장(吉藏)의 〈이제장(二諦藏)〉연구'(이태승·동국대)를 비롯 7편의 논문과 일본 다케스에 쥰이치 교수(武末純一·후쿠오카대)의 논문 '고고학에서 본 변한(弁韓)·진한(辰韓)과 왜(倭)'의 번역본도 실려있다. (0561)770-2502



◇민족사에서 열리고 있는 석지현스님의 〈벽암록〉 강독모임.

◇경전 및 어록 강독 모임

주관	경전 및 어록	강사	전화
한국불교선사상 연구모임	〈백운 경한선사어록〉 등	법성스님	(02)747-5589
민족사	〈벽암록〉	석지현스님	(02)732-2403
삼학원	〈무문관〉	김영욱(고려대)	(02)765-9602
도올서원	〈벽암록〉	김용옥	(02)744-7992
삼일선원	〈화엄경〉 〈선가귀감〉	종호스님	(02)237-4438
조계사경전연구원	〈원각경〉	송찬우 (승가대)	(02)720-1390
서울불교청년회	〈법화경〉	법현스님	(02)914-3558
불경서당	〈화엄현담〉	월운스님	(0346)68-1954
부산한국불교명상봉신강원	〈직지심체요절〉	각성스님	(051)809-8945
문사수법회	〈무량수경〉	김태영법사	(0344)966-2544

경전·어록강독 "불교가 보인다"

선사상연구모임 · 불경서당 등 10여곳
화엄경 · 벽암록 · 무문관 등 강독
교사 · 직장인 · 학생 '수강 발길'

참선 수행 등 불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계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 및 어록강독 모임에 참여하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경전 및 어록강독은 초심자에게는 다소 어렵지만 부처님의 사상을 제 3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풀이하며 불교사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현재 교계 안팎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전 및 어록강독 모임은 약 10여개로, 불교사상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화엄경〉과 선수행관을 엿볼 수 있는 〈벽암록〉 〈무문관〉 등 선전강독이 주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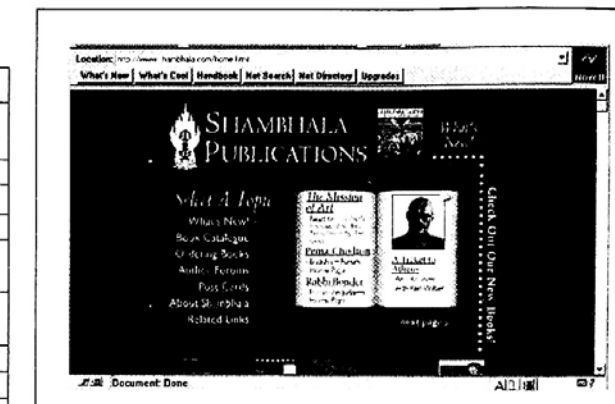
한국불교선사상연구모임(이하 '선사상연구모임')은 선불교사상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간화선의 현대적 재해석을 목적으로 20여명이 수강한 가운데 96년 12월 처음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30~40대로 교사, 직장인, 대학강사 등. 법성스님(대승사 주지)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혜보각선사(大慧普覺禪師)의 〈서장(書藏)〉 강독을 마쳤다. 또 4일부터는 2차로 〈백운 경한선사어록(白雲 景閑禪師語錄)〉과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강독을 시작했다. 법성스님은 "선전(禪典) 강독은 일반인들도 체계적인 선 수행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 수행과 함께 실천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선을 토대로한 보살행의 방법을 제시해 주어 선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선전의 대표로 손꼽히는 〈벽암록〉 강독은 민족사와 도올서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될 도올서원의 〈벽암록〉 강독은 4백여명의 수강자가 몰려 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도올서원에서 〈벽암록〉 강의를 듣고 있는 김영진씨(대학원생)는 "물질문명에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선밖에 없다는 사실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선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독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심자는 아니지만 강독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학문적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전강독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불교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불교연구의 성과도 가져온다.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이 지도하는 불경서당은 화엄교학 체계를 바탕으로 15년간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불교연구 성과물을 남기기도 했다. 각 대학교수들이 그 중심을 이루며 그동안 관련 전공분야를 불교적으로 응용한 논문 발표나 불교를 또다른 전공으로 선택, 연구를 시작하기도 한 것. 불경서당에 참석하고 있는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는 "원전강독은 불교사상의 진수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 그 매력이 있다"며 "불교사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삼학원과 삼일선원 등은 원전강독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은정희 교수(서울교대 철학과) 등 철학 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사론〉 강독 모임등의 소규모 강독 모임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공부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높여가고 있다.

김정은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삼발라 · 위즈덤 등 불서정보 「접속」

해외불서를 찾아라

세계 도처에서 출판되는 불서(佛書)들을 소개받을 수는 사이트가 있다. 출간된 불서들을 열람하고 통신구매도 가능한 사이트로, 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이용,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삼발라(http://www.shambhala.com/home.html)는 美 대륙을 꿰뚫는 서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티벳계 불교출판사.

〈The Compass of Zen〉(숭산스님), 〈Teaching of Zen〉(샤론 살즈버그), 〈Inside the Music〉(디미트리 엘리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위즈덤출판사(http://www.wisdompubs.org)는 경전, 동시대 고승 법문, 석학들의 연구서 등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대승불교계 출판사. △심리학 △철학 △선(Zen) △문화 등의 코너에서 다양한 불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이중 △선(Zen) 코너는 미국에서 발간된 다양한 화두집의 특설장. 영국 옥스포드의 팔리성전협회와 계약, 팔리경전 등 협회 출판물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논장연구(Abhidhamma Studies)〉, 〈선심(The Good Heart)〉, 〈부처님 제자(Great Disciples of the Buddha)〉, 〈자성(自性)을 찾아라?(Who is My Self?)〉 등 신간 8권을 소개한다.

△아마존서점(http://www.amazon.com)는 2백5십만권의 장서를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최대 서점으로 군소 불교출판사의 책 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간간히 발간하는 불서도 검색할 수 있는 곳. 이 사이트에서 'buddhism'을 키워드로 입력해, 불서를 검색하면 총 8백여권의 책을 소개받을 수 있다.

"초기불교교단 치외법권 인정
계율엄격·무소유 생활때문"

신성현씨 '초기불교교단과 국가와의 관계'



초기불교 교단이 국가로부터 출세간적 세외성(世外性)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장(律藏)에 근거, 엄격한 계율을 바탕으로 비영리활동과 무소유의 최저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현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보 제34집에서 논문 '초기불교교단과 국가와의 관계 -율장을 중심으로-'를 통해 "초기불교교단, 즉 상가(Samgha)가 국가로부터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자적 계율을 지녀 국가의 법 없이도 청정한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상가가 국가와 단절된다면 본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중생구제'의 의미와 불교본래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교단은 국가와 결합하면서 국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간적 출세간이었다"며 "그것은 국가가 상가의 출세간성을 승인하며 국가권력을 상가에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통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상가의 출세간을 국가가 인정하였다는 것은 불교가 국가에 이익이 되며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요익(饒益)하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그 인식에는 엄격한 생활을 가능케하는 독자적 계율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

신씨는 초기교단의 세외성 확보의 구체적 배경으로 △국왕의 적극적 지원 △교단과 국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불교교단에 대한 국왕의 지원은 불교교단을 이상으로 하는 국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고를 생겨나게 했는데, 국왕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모습을 그리며 교단을 계율로써 통제하듯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의식을 키웠다. 또 부처님과 전륜성왕 사이의 유사점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 인물이자 한 사람인 것으로, 전륜성왕의 사회구조는 불교 상가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종교와 국가는 개인과 사회 등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에 그 방식이 어떠하든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교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엄격한 계율을 통한 절제된 생활로 세외성이 인정됐던 초기불교교단의 모습은 오늘날의 한국불교에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고 덧붙였다. 〈정〉

티벳스님 6명 美서 단식투쟁

"티벳이 겪는 고통 세계인 알아달라"

클린턴 美 정부는 티벳 현지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해야 하는가? 6명의 티벳 스님들이 헐리우드에서 2주째 단식투쟁을 하고 리차드 기어 등 헐리우드 스타들이 티벳 인권과 독립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단식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깔마시체스님(25)은 "미국에게 곤란함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티벳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세계가 보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티벳스님들의 단식투쟁은 3월초 국제법률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가 "중국은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티벳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티벳의 종교 문화 정체성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위헌'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제티벳캠페인 공동회장인 리처드 기어(영화배우)도 인도 뉴델리 뉴스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6명의 스님은 6백만 티벳인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미국은 티벳 현지에 특별사절단을 파견, 이를 토대로 유엔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미국 개입을 촉구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 복용하면 1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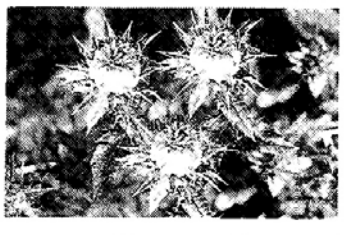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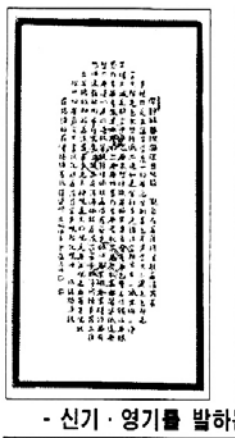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 신기 · 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문체와 용이 있고 법과 태기 있습니다. (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야)216-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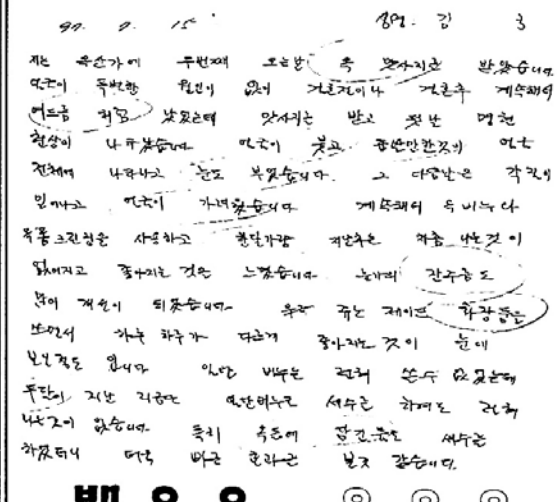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얼굴미용



백옥 옥 옥 옥 옥
팔반 팔 벨 네 이
염지 찌 트 익 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玉山家 분점 운영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777-0105(우림판매가)

한 형 조

무문관 탑방

47

용담의 촛불 ③

학승으로서의 덕산의 교만과 아집은 남달랐다. 그럼에도 노파의 칼날 앞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남방의 새로운 조류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근처 어디에 큰 선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노파는 5리 너머에 용담을 일러 주었다. 산사에 이르러 우선 예의 큰 소리부터 쳤다. "내 오래전부터 용담의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연못(潭)도 없고, 더구나 용(龍)은 못배기도 아니 보이는 구나." 기선을 잡자는 것이었는데 용담의 대답이 맹랑했다. "그려, 자네야말로 진정 용담에 이르렀네." 진짜 용담에는 연못이나 용 따위의 대상(物) 혹은 표지는 없어야 한다. 남전의 말처럼 "궁극은 결코 어떤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不是佛 不是心 不是物)." 덕산은 용담의 응수를 즉각 알아듣지 못했다. 어리둥절하다가 아무튼 하루 묵어가기로 했다.

학자답게 덕산은 변설로 용담을 성가시게 했다. 늦도록 장황한 형이상학을 농하는 덕산이 딱해, 용담은 늦었으니 그만 처소로 돌아가라고 했다. 뜨악하니 발을 걷고 나서는 덕산 앞에 칠흑의 어둠이 닥아섰다. (때는 아마 여름이었나 보다) 덕산은 되돌아와 용담에게 말했다.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용담은 종이등에 불을 붙여 건넸다. 덕산이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용담은 훅하고 불을 꺼버렸다. 등불이 꺼지는 충격이 놀랍게도 덕산의 칠흑같은 정신에 불을 붙였다. 덕산은 기뻐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이후로는 천하의 노승들이 하는 말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림 · 이준석

과연 덕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 알겠는가. 선의 비밀을 꿰뚫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혜개의 말마따나 '문 없는 문의 빗장(無門關)'을 벗겨야 "역대의 여러 조사들과 손잡고 한 자리에 어울려,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들을 것이다." 가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용훼(容喙)할 일은 아니지만, 그 계기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사물과 세계의 정보를 얻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쓴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대개는 눈, 즉 시각을 통해서 온다. 신경이 곤두서고 피곤할 때 가끔 눈을 감고 그 언저리를 누르면서 생각한다. "내가 너무 많이 보는구나. 쇼펜하우어가 그랬던가. 눈이 있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욕망이 눈이라는 기관을 있게 했다고."

과도한 봄은 욕망의 발현이고, 동시에 공포의 확장이다. 그를 통해 세계는 자신의 실재성을 거역할 수 없는 위압으로 강요한다. 정신의 해방은 이 견고하고 딱딱한 세계를 허물어뜨리면서 시작한다. 고타마 붓다의 통찰의 첫걸음이 이것이고, 나중 소승불교의 근본테제가 또한 이것이다. 아비달마의 분석을 기억할 것이다. 세계는 자체의 실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가 거짓, 혹은 착각으로 얽어놓은 허구의 건축물임을 밝히려는 그 치밀한 노력을. 〈반야(般若)〉는 그 차가운 교설의 전통을 이어 말한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이 말은 세계의 본질, 혹은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우정 다르다는 것을 간결하게 일깨우고 있다. 깨달음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세계의 실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혁명적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때 자유가, 그것도 영원의 자유와 열락이 찾아든다고 〈반야심경〉은 전한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께서는 이 소식을 깨우치시고 일체의 고통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셨다." 관자재, 즉 "자유롭게 본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습관인 '오관(五識)과 의식(六識)의 야합 혹은 공생'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유식(唯識)은 알라야식(阿賴耶識)을 둘러싼 그 소외의 실상과 해방의 도정을 밝히고자 한다.

어쨌거나 영원(nirvana)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용담은 '훅' 불을 껐다… "눈을 반쯤만 뜨고 보라"

시각의 맹목적 의존부터 줄여야 한다. 선은 말한다. "간간안반개(看看眼半開)," 눈을 반쯤만 뜨고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이다. 법당의 부처님도 가늘게 눈을 뜨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세계가 주는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각을 통한 정보의 창구를 좁히면 자연히 다른 쪽에 쓸 에너지가 늘어난다. (영화 〈서편제〉는 소리의 감각과 목의 발성을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소리꾼을 그리고 있다) 수행자는 외적 세계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비축된 에너지를 세계의 실상과 정신의 비밀을 향한 수직적 탐구로 돌려나간다.

덕산의 앞을 막아선 것은 캄캄한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 세계는 그저 연속된 무차별의 공간일 뿐이다. 의식은 분별(vikalpa 分別)을 먹이로 살찌는 바, 구분도 확인도 불가능한 혼돈상태를 의식은 견뎌내지 못한다. 죄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먹방이라 한다. 한 점 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 말을 걸 사람도 없이 몇날 며칠을 그냥 두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미쳐버리고 만다. 덕산 또한 그 자기부정과 혼돈의 두려움 앞에서 전율하며, 한걸음을 나아가지 못했다. 덕산은 용담을 돌아보며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다. 그런데 용담은 손을 내밀다가 다시 거두어들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감정에 얽매이지 말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6

정사유 ②

우리의 관심 흥미따라 대상 다르게 보이니 마음의 집착을 놓자

독창적이고 유일한 존재이길 바라고 모든 존재들과의 친밀감을 원하는 우리는 고립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죽는 것 등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정사유(正思惟)에서 '열림'과 '역행'의 미덕은 우리에게 고독, 행복, 두려움 등의 감정을 발견하고 마음을 챙기는(正念) 것을 가르친다. 여러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종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는 대상은 달라진다. 거리를 걷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식점이다. 길가의 화려한 구두가게는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의 흥미와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역행(renunciation)'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다.

몸을 관하는 명상수행은 역행(逆行)의 본보기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팔정도를 걷는 우리는 몸의 무상성(無常性)과 부정(不淨)한 측면을 보아야 한다.

아잔차(Achaan Chah) 스님은 제자들에게 명상수행을 가르친 후 항상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듯이 익숙하지 않는 방법 규칙 등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맛있는 음료, 익숙한 여행등 기대하던 변화 만을 가지려고 한다. 이때 감정에 끄달리지 않는 '역행'이 필요하다.

또 아잔차 스님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할 때, 사리불 존자가 수행자들에게 육체적 고립과 정신적 고립 그리고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고립을 권고한 이유를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곳을 찾아가 "옴(Om)"하고 외쳐보지만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내면을 관하기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마음과 몸이 변화를 겪고 고독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 평온이 오든 안오든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바른 인(因)을 짓고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활용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할까', '평온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우리는 내면을 깊이 관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집착, 습관, 공포 등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

명상수행은 두려운 고독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숱한 감정들에게 영향 받는 마음과 몸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또 불유쾌한 발견이지만 유익한 경험이며 감정들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편을 가르친다.

명상수행은 때론 우리에게 피곤함과 절망감을 줄 수도 있지만 정사유의 미덕인 '열림' '역행' 등의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다.

수행자에게 지루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잠시도 가만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는 셈이다.

우리의 수행은 순환하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 노여움을 품어주고 편안함을 찾아주기도 하고, 아주 바쁜 일과를 보내는 마음과 같이 소용돌이 치고 미워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마음은 인내의 여정으로 챙겨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손수하는 것, 이를 테면 식사 후에 조심스레 설거지를 하거나, 마음을 챙겨 얌전하게 덜거덕대지 않고 집안 일을 하는 것들은 선정(禪定) 계발에 도움이 되고 수행을 쉽게 만들어 준다. 그와 같은 생활 자세는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마음챙김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속에 헤매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조급하다. 그래서 행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번뇌에 빠지든지, 모두 극단을 간다.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은 깊은 지혜를 얻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번역=오종욱 기자

불교와 수학 ⑤⓪ 자기닮음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⑮⑤

한국사회 '악의 꽃' 만발 IMF맞아 한사람 善의지 온누리 빛 될수도

지난 호의 이야기는 '전인류와 개인', 그리고 '개인과 세포' 사이의 관계에 구조적인 닮음이 있음을 내용으로 했다. 또한 이러한 상부와 하부 사이의 닮음구조를 수학에서는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

기령 새의 깃털의 각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의 날개 모양처럼 보인다. 눈송이의 결정(結晶), 고사리, 해안선… 등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그것이 외국, 또는 일본이라는 식으로 특정 장소를 말할 수는 없더라도 한국의 것은 금방 구별할 수 있다. 중경 한토막은 어김없이 한국 전체,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병들게 되면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암세포, 에이즈 등의 무서운 세포도 처음에는 하나에서 병들기 시작하며, 마침내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게 한다. 특히 사회나 기업 구조에 있어서는 한 계층의 활동이 전체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체구조를 보고 아래 계층의 낱낱을 관찰하면 전체와 같은 작은 구조가 곳곳에 잠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의 독재적인 경향은 관공서와 기업 등 거의 모든 조직에서 나타났다. 한때 권력기관에서는 인권유린이 다반사였고, 심한 경우에는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다. 그러자 상아탑을 자처하는 대학에서조차 학생간에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일부 학생은 교수에게 밀가루를 던져 모멸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원이 이 모양이니 사회 곳곳에서는 온갖 부조리가 범람했다.

최근 서울대 치과대학에서는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이 오갔음이 보도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대학의 교수는 치과대학에만 있는 사건이라고 애써 변명하고 '치과대학 교수들은 이빨이 좋아서 잘 먹는다'는 식의 농담으로 얼버무린다. 그러나 이미 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곳에서도 규모는 다를망정 유사한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전에 한 용감한 중소기업 사장은 '마피아의 총대를 맨 검사들'이라는 표제의 글을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게재한 일이 있었다. 또 의정부 판사 전원이 뇌물사건에 관련되어 전임되었다. 그것은 카오스이론의 자기닮음 현상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이다. 대학, 법조계 등은 하나의 하부계층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는 그 위에 정치권력 구조가 있다. 전, 노 전직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조(兆)가 넘는 돈을 긁어 모았고, YS는 한보에게 5조원의 부정융자를 했다. 전체 구조가 부패할 때 그 하부구조 곳곳에서는 그 규모에 어울릴 만큼의 부정부패가 생기고, 드디어 나라 전체가 부실화되어 IMF사태를 맞은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하위 구조인 한 세포가 병들 때 상부 구조인 몸 전체가 병든다고 했다. 또한 몸전체가 병들면 세포가 병들게 된다. 이때 '일즉다 다즉일'의 논리는 순환논리가 되어 끊임없이 부패와 죽음의 무한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뿐이다. 그러나 카오스이론은 '나비효과'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며칠 후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의지가 얼마든지 전 사회, 온누리에 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한다.

유마거사는 '중생의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보살은 중생이 병들 때 함께 앓게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의 마음에서다. 사회 전체가 요청하는 선의지가 보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생명체에 있어서의 생물학적인 생명 의지가 보살의 마음이다. 생물적인 생명의지와 마음 사이의 선의지가 일체화되어 있다. 최근 나라 전체가 병들어 IMF 한파로 건국 이래 최대의 난국을 맞고 있다.

전사회는 계층마다 악의 꽃이 만발하는 프랙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개체와 전체가 함께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의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형기에 나 하나만이라도 선의 바람을 발휘한다면 내일에도 온누리에 빛이 가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일즉다 다즉일'의 철학이자 현실적으로는 나비 효과의 발효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 장가 안가길 잘했네 ① ②



각권 6,500원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주옥같은 수필집.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국 출판계를 강타했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전 ④ 권 각권 6,000원

"우학 스님!
불교가 이렇게 재미 있군요!
열번을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옵니다."

우학 스님의 책

☞ 새로운 불교공부 —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上·下
☞ 불교 EQ ① ② —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집
☞ 불교 사경집 —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초발심자경문·증도가 등 3여 경전

-도서출판 좋은인연-

도서출판 좋은인연 (영남불교대학 부속 출판사) 053)475-3707

향 다이어트



살! 살! 살!

아름다운 몸매를 앗아간 악마!
그래서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불여도 봤습니다!
착용도 해봤습니다!
마시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살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향인 아로마 트림을 사용했습니다. 코에다만 대주세요.
이 아로마 트림은 100% 천연향으로 이 향에는 테크펜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호르몬 대사에 신속한 영향을 주어 불필요한 지방질을 산화시켜주며 맛의 90%인 음식의 향을 조절하여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므로 자연스러운 식욕조절로 번거로움 없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냄새만 맡으면 …

냄새만 맡는 다이어트는

■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 대부분 다이어트 제품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로마 트림은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서나 코에 대고 흡입만 하는 간편한 요법이다.
■ 천연향으로 인체에 조화롭게 작용한다. 다이어트가 몸을 상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로마 트림은 천연향으로 원하는 만큼 사용해도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
■ 인내와 고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 다이어트를 실패한 분이 많습니다. 장기간 무리한 고통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망설이는 분 지금 이 아로마 트림을 사용해 보세요.
■ 자연스러움은 곧 과학이다. 아로마 트림의 천연향은 후각의 자연스런 자극을 과학적으로 응용해 음식의 맛과 냄새에 변화를 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제품으로 미국 청소년비만협회 회장인 어니스트 반드그웨히 박사의 자신있는 제품입니다.

탤런트 윤주영

상담실 02)755-9821

시방세계

"IMF수심 '안민가'로 풀자"

경주 충담재

신라 충담스님 오늘의 누구일까
온 국민이 충담이 돼야한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3월 29일. 벚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경주 반월성에 정갈하게 옷을 차려 입은 선남선녀 3백여명이 모였다.

'열치매 나토안 다리' '기랑라의 즈지이슈라 일로 나릿재 벽해' 등 얼핏 봐서는 뜻을 알수 없는 향가귀절들이 써진 오색의 번들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흰 단에는 각종 다과와 꽃이 올려져 있다. '안민가'를 불러 나라의 광안과 번영을 기원했던 충담스님을 기리는 충담재는 흥겨운 풍물패의 장단으로 시작됐다.

충담스님은 신라 경덕왕때의 화랑이자 스님이다. 〈삼국유사 권2 기이(紀異) 제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사조'에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전한 스님은 매년 음력 3월3일과 9월9일 남산 삼화령에서 미륵불께 차를 올리며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이 살았던 경덕왕때는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면서도 천재이변이 많았던 시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일에 충실할 때 나라가 안정된다고 노래한 것이 바로 '안민가'다. 오늘의 현실을 돌이켜 볼때 많은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충담재는 어느해 보다 뜻이 크다. 안민을 노래한 스님의 목소리가 신라의 하늘을 수놓고 있어도 21세기를 앞둔 오늘의 경주 하늘에는 IMF의 수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국다도협회 경주지부 선다회 회원들이 정갈하고 향기로운 차를 바치는 시간, 참가자들은 남산 삼화령에 올라 미륵불께 차를 공양하며 안민을 기원했던 충담이 되고자 발원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언덕위로 아스라히 펼쳐진 하늘. 저 신라의 하늘을 뒤덮었을 충담스님의 차향기를 생각하며 질문을 던진다. 신라의 충담은 오늘의 누구일까. 온 국민이 바로 충담이어야 할 것이다. 경제대란 실업대란의 시절인연을 만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충담이 되지 않고는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 한다면
만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중생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땅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할때
나라가 유지됨을 알것입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경주지역 20개 문화단체가 충담스님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제10회 충담재가 3월29일 경주 반월산성에서 열렸다.

국악인 박덕화씨가 낭랑히 읽어 내려가는 안민가의 구절구절에 담긴 충담스님의 가르침과 염원, 참가자들은 숙연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 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아쉬움으로만 끝날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충담스님의 뜻을 기리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시와 음악과 차를 바치며 다짐해 왔듯 올해도 큰 마음을 내어 다짐했다.

화랑의 후예다운 삶을 서원한 정토화랑단의 발원문이 하늘가득 퍼지며 행사는 정점을 이뤘다.

"푸른 냇가 조약돌은 천년을 흘러 구르고 낭(郎)의 마음 뒤좇던 달과 구름 예있으니 저희 또한 여기모여 충담사의 마음 닮고 기파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발원하나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경주 선다회 회원들이 충담스님께 차를 올리고 있다.



나원리 석탑유물 통일신라 금속공예품 '공개'

금동소불상 · 금동소탑등 20여점 보존처리


◇금동소불상. 화염광배에 시무외 여원인을 취하고 있는 금동불입상. 발견당시 순금제 불상으로 알려졌으나 보존처리후 금동불상으로 판명돼 보존처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금동소탑. 영락이 있는 상륜부와 지붕돌의 풍탁들이 사실미를 더해주는 금동3층소탑. 다른 다층소탑들과 함께 신라탑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96년 3월 경주 나원리 5층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과 이 사리함에 들어있던 금동불상, 금동소탑 등이 보존처리를 마치고 공개됐다(관련기사 본지 71호 1·6면, 80호 1면).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3월27일 공개한 유물들은 △금동사리함 △금동소탑 4점 △금동소불상 1점 △종이류 △목제소탑 1점 및 파편 △구슬 등 총 20여점.

이 가운데 시무외여원인(모든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손모양)을 취하고 있는 금동소불상(높이 4㎝, 무게 20g)은 발견당시 순금제 불상으로 추정되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X선에 의한 분석 결과 금·동과 함께 수은 성분이 검출돼 도금된 금동불임이 밝혀졌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금을 녹이기 위해 수은을 사용하는 등 제련술이 크게 발달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4기의 금동소탑 중 거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3층소탑(높이 10.6㎝)은 단층기단에 영락장식이 있는 상륜부와 옥개(지붕) 네곳의 풍탁이 잘 남아있어 상륜부가 대부분 소실된 신라석탑 복원에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3점의 다층소탑(높이 8.6㎝~8.8㎝)들은 황룡사 9층목탑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소탑의 크기도 황룡사탑(약 80m)과 비례를 이뤄 서로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 금동사리함(15×15×15㎝)은 일부분의 도금막이 벗겨졌으나 섬세한 선각으로 바깥 사방에는 사천왕상을, 뚜껑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기고 있다. 사리함 안쪽 벽면에 붙어있던 종이파편은 글의 일부내용으로 보아 불국사 석가탑이나 화엄사 5층석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추정된다. 또 사리공내에서 발견된 목제소탑(현존높이 10.5㎝)은 기단부를 비롯한 일부분이 결실됐으나 탑신부와 상륜부는 남아있으며 금동사리함내에서 수습된 소탑들 중 완형은 1점(높이 4.3㎝)이고 대부분은 얇은 판으로 파손된 상태다.


◇충담스님과 경덕왕의 일화를 들려주며 '왜 충담스님은 왕의 곁을 떠났을까' 화두를 던지는 윤경렬옹.

윤경렬선생이 들려주는 '충담스님'

"왜 충담스님은 왕의 곁을 떠났을까"

충담스님은 신라35대 경덕왕때 사람입니다. 경덕왕은 742년부터 765년까지 24년동안 재위를 누렸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워졌고 성덕대왕신종이 제작된 시기입니다. 남산 금송정(琴松亭)에서 거문고를 타면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옥보고나 집에서 피리를 불면 흐르는 달도 길을 멈추어 듣고 갔다는 월명스님도 모두 이때 사람이지요. 충담스님은 도솔가를 지은 월명스님과 향가를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태평성대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충담스님은 찬기파랑가를 지은 시인이었으며 동시에 화랑도였습니다. 무릇 화랑들이 그러하였듯 스님도 무술과 풍류에 능했습니다. 스님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 등 향가2편과 임금과 국민에게 보내는 법문과도 같은 이야기 한자락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많은 것을 생각케 합니다.

삼월삼짓날 경덕왕은 귀정문루에 올라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훌륭한 스님을 만날 인연이 있는 날이다. 누가 위의(威儀)있는 훌륭한 스님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위풍이 당당하고 좋은 옷을 입은 스님이 지나가기에 모셔왔더니 왕은 "내가 만나려는 위의있는 스님이 아니다"면서 스님을 돌려보냈답니다.

다시 한스님이 헤어진 장삼에 앵통(앵두나무통 혹은 삼태기를 쟀다고도 함)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신하들은 왕이 초라한 모습의 스님을 찾을리 없다 싶어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저 삼태기를 메고가는 비구를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왕은 스님을 보더니 반가워하며 "어디서 오는길이요?"하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해마다 중상(重三) 중구일(重九日)이면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해 왔습니다. 오늘이 삼월 삼짓날이라 차를 달여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차를 나에게도 한 사발 줄수 있겠소?"

"부처님은 만 중생의 어버이이옵고 임금님은 만 백성의 어버이십니다. 어찌 차를 아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종로를 내려 숯불을 피우고 물을 끓여 차를 타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차맛이 신비스러웠고 사발에서는 오랫동안 향기가 풍겼답니다.

왕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네 충담이라고 합니다."

"오! 저유명한 찬기파랑가를 지으신 충담이시오?"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공안히 할 노래를 한수 지어주시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 올렸는데 그 노래가 '안민가'입니다.

경덕왕은 만족하여 "내 그대를 국사로 모실터이니 대궐에 있어 달라"고 청했지만 스님은 다구를 주섬주섬 거두더니 "중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면서 두 번 절하고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충담스님은 왕의 곁을 떠났을까요?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튜울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에버랜드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득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8월 30일까지, 방생도 가능합니다)

● 아미타전 관람요금
(1명이상 단체에 한함)

상품명	내용내용	일반개인	일반단체	아미타전 무대기획 어른	무대기획 중고생	무대기획 어린이
아미타	무대기획+아미타전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 1	무대기획+에버랜드 자유이용권	15,000	13,000	10,000	7,000	5,000
아미타 2	무대기획+에버랜드 자유이용권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 3	무대기획+에버랜드 고원+VIP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 4	무대기획+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공 동 주 관 :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737-8881 팩스 737-0697,737-0690)

봉축 현수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청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 격:
6m×90cm=₩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한울기획
◆ 전화:(02)474-2040~1
◆ FAX:(02)477-2316
조흥은행 임 미 순
435-06-085707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상유품(象喩品) ②

生而有利安 생이유리안
伴忝和爲安 반난화위안
命盡爲福安 명진위복안
衆惡不犯安 중악불범안

좋은 곳에 태어나는게 첫째의 안락
온화한 이와 짝하는게 둘째의 안락
목숨 다할때 복있는게 셋째의 안락
뭇 악도 범하지 않으니 넷째의 안락

人家有母樂 인가유모락
有父斯亦樂 유부사역락
世有沙門樂 세유사문락
天下有道樂 천하유도락

사람의 집에 어머니 계셔 즐겁고
아버지 계셔 또한 즐겁다
세상엔 사문이 있어 즐겁고
천하엔 도가 있어 즐겁다

持戒終老安 지계종노안
信正所正善 신정소정선

從是往定 종시왕정
如馬調御 여마조어
斷恚無漏 단에무루
是受天樂 시수천락

이로부터 선정으로 나아감은
말을 잘 길들이는 것 같이
성냄을 끊고 번뇌 없애니
이는 하늘의 즐거움 받는 것이다

不自放恣 불자방자
從是多聞 종시다오
羸馬比良 이마비량
棄惡爲賢 기악위현

스스로 방자하게 놀지않고
이로부터 항상 깨어있으면
파리한 말이 좋은 말 되듯이
악을 버려 어진 이가 된다

애욕품(愛欲品) ①

心放在姪行 심방재음행
欲愛增枝條 욕애증지조
分布生熾盛 분포생치성

"성냄 끊고 번뇌 없애 선정에 들면 이는 하늘의 즐거움 받는 것이다"

智慧最安身 지혜최안신
不犯惡最安 불범악최안

계율 지키면 늙도록에 편안하고
바르게 믿으면 바른대로 좋고
지혜 있음은 내몸 가장 편해 좋고
악이 범하지 않으니 가장 편안하다

如馬調順 여마조난
隨意所如 수의소여
信戒精進 신계정진
定法要具 정법요구

말을 잘 길들여 놓으면
뜻에 따라 어디고 가는 것처럼
믿음과 계율과 정진
선정의 법을 반드시 갖추어라

明行成立 명행성립
忍和意定 인화의정
是斷諸苦 시단제고
隨意所如 수의소여

지혜와 행이 잘 이뤄지고
인욕과 화합의 뜻 오롯하면
이것이 온갖 괴로움 끊는것
가음대로 어디고 여여하리라

超躍貪果猿 초약탐과후

마음을 음행에 풀어놓으면
애욕은 더욱 가지를 뻗쳐서
사방으로 퍼져 무성해진다
과일을 탐해 날뛰는 원숭이 같이

以爲愛忍苦 이위애인고
貪欲著世間 탐욕착세간
憂患日夜長 우환일야장
莅如蔓草生 연여만초생

애욕을 참기란 괴롭다 하여
탐욕 부리며 세간에 집착하면
우환은 밤낮으로 자라난다
마치 넝쿨이 뻗어나가는 것 같이

人爲愚愛惑 인위은애혹
不能捨情欲 불능사정욕
如是憂愛多 여시우애다
湧湧盈于池 잔잔영우지

사람들은 은애에 미혹하여
정욕을 버리지 못하니
그럴수록 근심과 애욕은 많아진다
물이 흘러 못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이

龍眼

파계사 성전암 주석

철웅스님

경제난 극복 법회

"잘 살려면 마음 비우고



◇1만3천여 불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철웅스님 법문을 듣고 있다.



◇경제난도 마음의 병에서 왔다는 스님은 "잘 살고 싶거든 많이 베풀라"고 강조한다.

20년만에 산문나와 대중설법
1만3천여 불자 참석 '야단법석'

20년을 파계사 성전암에서 안거해온 철웅스님이 산문을 나와 첫 대중법문을 했다. 스님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설파하고자 동체대비 원력을 낸 것이다. 스님의 법회가 있던 3월31일 팔공산 파계사는 1만3천여명의 불자들로 '야단법석'을 이뤘다. 법회장인 앞마당은 신도들로 메워졌고, 법당, 앞동산 등 스님의 법문이 들리는 곳이면 사람들이 무리져 모여앉아 스님의 법문에 감동으로 합장하고 박수를 보냈다.

특유의 설법으로 대중을 일깨워온 철웅스님은 89년 서옹스님(前 조계종 종정·고불총림 방장)으로부터 '부촉정법'을 받았다. "달이 영담에 비치니(月照映潭) 바람이 옛 전나무에서 일어난다(風生古檜). 쌍매가 하늘을 찌르니(雙髻沖天) 누가 능히 너를 감당하리오(惟能那爾)."



◇철웅스님이 20년째 안거해온 팔공산 파계사 성전암 전경. 성전암은 성철스님이 60년대 8년동안 철조망을 치고 장좌불와한 곳으로도 유명한 참선 수행도량 이다.

약력

- 1934년 10월 20일 경남 生
- 58년 석우스님을 은사로 출가
- 이후 72년까지 회엄사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
- 72년부터 現 성전암 주석
- 89년 서옹스님으로부터 '부촉정법' 받음
- 저서 〈종교의 생활〉〈선과 생활〉〈반야심경과 성서〉〈생활불교〉〈무한성의 구현〉〈장엄한 생명의 노래〉〈주장자〉 등 다수

달빛은 구름에 화해서 희고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초동들의 노랫소리 무한한 것은
누가 능히 알리오.

인류역사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사상 등 각 방면에서 많이들 몸부림을 치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풀린 적이 없습니다. 왜 입니까.

문제가 어디있는가 하면 바로 마음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이율배반으로 공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도 이율배반으로 선과 악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으로 여러분이 찾는 모든 행복 번영 건강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에 보람과 젊음의 환희를 느끼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도 50고개를 넘기면 늙음으로 죽어갑니다. 지구촌의 영웅호걸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행복을 밖으로 밖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꿈을 좇아 헤매며 어리석음을 짓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나 행복은 마음 자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심 환경 직업 등 모든 현상계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망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모순인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사람은 건강해야 하고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도 중족해야지, 남을 봐주지는 못해도 얻어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편안하기를 바라며 명예도 있어야 하고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갖가지 방법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바닷물은 퍼도퍼도 끝이 없는 것과 같이 끝없는 복을 바란다는 이말입니다.

이같은 중생들의 바람이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석가모니부처님 공자 예수가 출현한 것입니다. 싯달타태자는 인도의 선각자에게 그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을 절감하고 스스로의 고행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의 장소를 찾아 설산을 헤매게 됩니다. 6년 고행끝에 득도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잘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못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끌고온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시간시간으로 바뀝니다. 변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에서 생긴 지수화풍의 4대로 이뤄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몸으로 아는 일체의 것이 모두 헛된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 자체로 부처님의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일깨워주시고자 스스로 고행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부처라고 알고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음을 알아 '본래 무명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흰 고무신과 검은 고무신에 때가 묻었습니다. 검은 신은 닦을수록 더 검어지지만 흰 신은 닦으면 닦을수록 희어집니다. 본래 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본래 부처이기에 세세생생 닦으면 '이크'하고 본성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매일 참마음을 쓰면서도 모릅니다. 그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만 내고 있습니다. 이 분별심이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 있기에 부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면 분별심이 없어집니다. 분별심이 없어지면 무명이 없어집니다. 무명이 없어지면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면 부처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으면 부처님 복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 복을 받으면 부처님 건강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건강을 얻으면 부처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생명을 얻으면 부처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 자유를 얻으면 부처님 해탈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해탈을 얻으면 부처님 열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열반을 얻으면 부처님 법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법신을 얻으면 부처님 화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화신을 얻으면 부처님 보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보신을 얻으면 부처님 삼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삼신을 얻으면 부처님 사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사신을 얻으면 부처님 오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을 얻으면 부처님 육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육신을 얻으면 부처님 칠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칠신을 얻으면 부처님 팔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팔신을 얻으면 부처님 구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구신을 얻으면 부처님 십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십신을 얻으면 부처님 백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백신을 얻으면 부처님 천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천신을 얻으면 부처님 만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만신을 얻으면 부처님 억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억신을 얻으면 부처님 조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조신을 얻으면 부처님 경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경신을 얻으면 부처님 해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해신을 얻으면 부처님 자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자신을 얻으면 부처님 양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양신을 얻으면 부처님 구경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구경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량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량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변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변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애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애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장애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장애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능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능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통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통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지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지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견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견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문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문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언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언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행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행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성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성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각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각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증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증신을 얻으면 부처님 무소불득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무소불득

파계사 성전암 주석 경제난 극복 법회

철웅스님

많이 나눠 주세요"

"몸으로 아는 일체 것
모두 헛됨 깨달아
분별심 버리면
본래 모습 드러납니다"



◇파계사 조실 고송스님(조계종 원로의원 · 사진 왼쪽)에게 안거 20년만의 하산을 고하고 있는 철웅스님.

고송스님 친견한 철웅스님

"내려왔습니다" - "잘 내려왔어"

철웅스님은 이날 오후1시 법회 참석에 앞서 내원에 주석하고 있는 파계사 조실 고송스님을 친견했다.

철웅 스님, 내려왔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고송 잘 내려왔어.

철웅 20년만에 하산했습니다.

고송 난 스님노릇 제대로 못한것 같아. 난 아주 빠졌거든.

철웅 스님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스님처럼 살기가 소원입니다. 이제 저는 길바닥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고송 몸바꿀 때가 얼마 안남았어.

철웅 (고송스님 손을 잡으며) 보세요, 스님 혈색이 전보다 더 좋으십니다. 스님 오래사실 것입니다.

"IMF 한파 홍청망청 살아온 과보
근검절약 정직 자신감 가지면 위기극복"

싫다 등 시비하는 분별심을 본마음으로 알고 살거든요. 몸의 그림자인 7정에서 모든 분별심이 생겨납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고 집착하는데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등 일곱가지 감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7정으로 오장육부가 녹아요.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심장 위장 간장 등은 처음부터 아프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정이 생겨서 아픈거지. 그러니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이지만 이렇게 생긴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무량한 덕, 환희심,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약입니다.

이 분별심으로 쌓아온 무수한 선입견과 편견만 비우고 버리면 저절로 본성인 부처가 드러나고 의식도 부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 도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종교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 열쇠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성을 바르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형상도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것은 궁극적인 의문입니다.

일생동안 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나를 모릅니다. 바둑을 두려면 집을 짓고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정치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천하를 경영합니다. 종착역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영웅호걸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생노병사의 문제를 해결못하고 다들 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처이고 만물의 뿌리가 나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인치고 에고이스트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 신부 스님으로 지옥을 채운다고 하는 말이 떠돌 정도면 그저 우스개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옥 안갑니다. 지상의 싸움은 소위 위인 지도자라고 하는 에고이스트로부터 생겨나니까요.

우리 나라 꼴이 왜 이렇습니까. 경제난리를 겪고 있지만 결국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속아지를 이렇게 쓰는데 위대한 경제박사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살고 싶거든 많이 줘라." 이 위대한 철학을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씀씀이들 속에서 위대한 학자 정치가 지도자가 나오겠나 이말입니다. 하다못해 세금내는 것도 긍지를 삼아야 합니다. 국고가 튼튼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무슨 국방정책입니까. 정직함만이 위대한 부(富)를 이룹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코리안입니다. 국시가 홍익인간입니다. 마음속에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국시를 새겨야 합니다. 고려도 고구려 옛 땅을 찾기 위해 홍익인간의 국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삽니까. 사색당쟁으로 억불정책으로 더렵혀진 조선조 5백년사를 토해내야 합니다. 자유당시절 혼란기를 거치고도 국방과 경제부강을 이룬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IMF가 왔습니다. 흥청망청 살아온 과보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운전수를 잘못 만난 탓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현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성현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난국의 극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어리석은 짓 집어치워야 하고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듯 허리띠를 졸라매면 위기는 끝납니다. 근검절약하고 자신감을 갖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잠을 4시간 이상 자지마세요. 특히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영감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부지런하란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국민이 공부 안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인격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의 불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합시다.

경제난국도 마음만 비우면 돈 한푼없이도 경영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시공이 갈라지기 전 부모미생전에 이미 모두 이루고 있는 부처자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실상인 그 불성으로부터 무한한 지혜가 샘솟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작자수이고 인과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는 불보살님과 조상과 부모형제, 천지 자연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의 세계가 오려면 범부에서 성현으로 의식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집착을 끊어버리면 위대한 생명의 율동이 흐릅니다. 즐겁고 기쁘고 무한한 지혜가 용솟음칩니다. 사람이 자기의 실상이 부처라고 자각하면 자아 일체감이 저절로 파악되어서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비와 사랑이 구현됩니다. 자성을 직관하는 사람은 일체의 미망이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죄와 병과 죽음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이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5천여 부처님 여러분.

무량한 덕과 지혜로 장엄한 조화를 만들어 다시 일으킵시다. 그러면 살될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여러분 본성이 위대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산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지구의 복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래의 3백년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국운은 왔습니다.

특히 정치인들도 여야 싸움말고 아름다운 풍토를 일으켜야 합니다. 잘 살고 못사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체대비정신을 실천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신뒤에 소식이 없더니
오늘 저 4월 남쪽 바람에 보리가 익어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더라.
액!

정리=위영란 · 이윤호 기자

나와 경전 〈48〉

제법집요경



이 창 경
신구전문대 교수

법성스님을 만난 것은 1975년 겨울 화엄사에서였다. 학승 일칭스님이 번역한 〈제법집요경〉을 만난 것도 바로 그 겨울 산사에서였다. 〈제법집요경〉은 윤회, 번뇌, 무상 등 불교 기초교리와 수행자로서 바르게 행할 바를 밝혀놓은 경전이다. 해이해진 마음, 느슨해진 신심을 곧추세워 다시금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경전이다. 나는 〈제법집요경〉과 법성스님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 〈제법집요경〉을 통해 스님을 만날 수 있었고, 스님을 통해 〈제법집요경〉을 만났기 때문이다.

1975년 대학캠퍼스는 스산했다. 최루탄 가스로 뒤덮이는 날이 많았고 굳게 닫힌 교문은 전경들이 지키는 날이 많은 그런 때였다. 터져버릴것 같은 답답함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던 그해 겨울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12월 어느날 화엄사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는다는 불교학생회의 안내문을 게시판에서 보았다. 무엇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고통이 자연스럽게 화엄사로 향하게 했다.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내리던 눈은 구례에 도착해서도 그치지 않았다. 흰 눈을 뒤집어쓰고 도착한 우리를 처음으로 맞아주신 스님이 바로 법성스님이었다. 일주문 밖까지 나와 눈을 맞으며 우리를 반겨주신 스님에게서 알 수 없는 광온이 느껴졌다. 스님과 정식으로 인사를 한 것은 이튿날 경전강독시간이었다. 법성스님이 강의를 맡았는데, 그 경전이 바로 〈제법집요경〉이었다.

〈제법집요경〉은 10권으로 되어 있다. 교리 중에서 요점을 묶어놓은 경이라는 뜻이다. 목제번뇌품, 설법품, 염리자신품 등 36개 품으로 이루어진 이 경의 요체는 중생이 지혜의 눈을 떠서 번뇌를 끊는다는 것이다. 육신의 애착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탐욕은 무엇인가, 보시는 무엇인가 등 〈제법집요경〉은 이 평범한 물음들에 차근차근 답해주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 경전의 내용,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소리 모두가 감동이었다. 몰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벌이 총총한 새벽, 계곡의 얼음을 깨고 찬물로 세수한 후 법당에 꿇어 앉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나니 정신이 새벽별처럼 맑아졌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머리속에서 나와 법당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새벽 바람을 쐬고 돌아와 차근차근 제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전 그대로가 아니었다. 〈제법집요경〉에서 본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다.

"탐욕은 캄캄한 어둠과 같은 것이다. 지혜의 밝은 빛이 있어야 이를 없앨 수 있다. 또 탐욕은 잡풀 무성한 숲과 같아 지혜의 예리한 칼이 있어야 베어버릴 수 있다. 탐욕은 검푸른 강물과도 같아 지혜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다." 지혜의 빛, 지혜의 칼, 지혜의 배는 어디에 있는가. 어둠과 무명을 단칼에 잘라버릴 그 무서운 힘을 지닌 지혜의 칼은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 있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스님은 〈제법집요경〉을 강독하시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분명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침울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신의 전부입니까. 거울에 비치지 않은 다른 곳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허상에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5일간의 수행을 마치고 난 마지막 밤, 일주문을 벗어나며 우리는 스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님이 아닌 사람을 보았다. 초발심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는 바른 수행자가 거기 서 있음을 보았다. 그 후 스님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 젊은 혼돈의 시절, 버리는 것이 더 큰 얻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스님이기에 가끔은 〈제법집요경〉을 뒤적이며 스님의 흔적을 찾는다.

윤회·집착·보시 등 차근차근 설명
교리요점 36품 10권으로 정리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戊寅年 3월 현대정보결혼 연구원 5주년이 됩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5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며
우리 불자님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98년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회비를 50% 감면
10만원으로 모시겠사오니
많은 성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쉽고 재미있게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알기 쉽게 서술.
부처님의 삶과 고민, 그리고
그 핵심사상을 단숨에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각 저/신국판/값 4,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 : 720-9372~3

'98사진영상의 해

덕유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2 ←



◇해발 960m 지점에 건설된 양수발전소. 이곳이 안국사와 적상산 史庫 터다. 현재의 안국사는 1949년 여순사건으로 인해 소실된 호국사터로 옮겨지었다.



◇60년대 중반부터 지역신도들과 합심해 중창된 백련사 전경.

고찰서 피어오르는 나라사랑 불심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있는 덕유산(德裕山). 중국 대륙에서 넘어 오는 황사와 산안개가 자욱히 피어 올라 한낮에도 앞산의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정상으로 오르는 능선에는 희끗희끗 눈무더기들이 계절을 잊고 붙어 있지만 골짜기마다 새순 돋아 오르는 아우성이 가득했다.

지리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백두대간은 영취산(1076)에서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을 나뉘고 위로 육십령을 거쳐 덕유산에 이른다. 덕유산은 남덕유산(1508), 삿갓봉(1767), 무룡산(1492), 동엽령(1260), 덕유상봉(1614)으로 이어진다. 향적봉이라고도 불리는 덕유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펼쳐진 산경은 두문산(1051)과 적상산(1034)을 품으며 추풍령, 속리산으로 혈맥을 잇고 있다.

민족수난사 함께 겪어

덕유산 산역에는 백련사(白蓮寺)와 원통사(圓通寺), 안국사(安國寺)가 자리하고 있다. 세 사찰은 하나같이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불교사상을 민중의 삶으로 전했던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의 수난마저 온 몸으로 겪어야 했던 역사이기도 하다.

무주 구천동, 9천명의 성인이 살았다는 절경의 계곡을 지나 덕유상봉으로 오르는 길에 자리한 백련사(주지 큼상)는 비 새는 지붕을 고치는 기와불사가 한창이었다. 신라 흥덕왕 5년(830)에 무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백련사에서는 조선조 동안 부용영관, 정관일선, 부휴선수, 벽암각성, 고한희언, 임성충언, 미월당설혼 스님등 고승들이 법석을 펴고 수행했다. 정관일선 스님의 부도(전북도유형문화재 제102호)는 천왕문 앞에 있으며 당호가 같아 한때 김시습(매월당 설잠)의 부도로 잘못 알려졌던 매월당 설혼스님의 부도는 일주문 옆 부도밭에 있다.

백련사는 과거 수많은 스승들의 법기(法氣)를 잇기에 분주하다. 일제때는 구천동 계곡이 북해도제국대학의 대학림으로 지정되어 사찰 건물이 일본식 초가로 변모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고 6·25전쟁 때는 사찰의 모든 당우가 불타 버렸었다. 그뒤 10여년을 폐허로 방치되다가 60년대 중반부터 복원불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웅전과 원통전, 명부전, 보제루, 천왕문 일주문 범종각등이 갖추어져 사격을 새신했다. 백련사의 복원불사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속에 진행됐다. 특히 요사인 문향헌(聞香軒)은 1967년 무주읍내에 개인소유로 있던 무주부의 동헌건물을 신도들이 매입하여 옮겨 지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역사의 수난속에 버려졌던 폐사지에 십시일반 시주하여 당우를 지은 신도들의 신심으로 백련사는 새로운 가람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라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원통사(주지 정공)는 남덕유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 숙종조에 탄언도영, 혜왕일학 스님등이 가람을 중창했다고 전하는 중창비가 남아 있으나 당시의 가람 규모는 알 수 없다. 원통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의병장 김동신, 문태서, 신명선등이 의병활동의 근거지로 삼아 일본의 국권침략에 맞섰던 호국도량이다.

험준한 산맥을 뒤로 하고 있는 원통사는 그 지리적 조건때문에 호국의 도량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1949년 여순사건때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전투장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절은 모두 불에 타버렸고 6·25전쟁과 불교 분규의 틈바구니에서 복구의 원력이 불을 밝히지 못한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었다. 그뒤 황법인(黃法仁)스님이 중창 원력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했다. 그러나 불제자가 한번 세운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 법인스님의 둘째아들인 황경석 거사가 8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주지 정공스님의 중창불사에 시주해 대웅전, 선초당, 명부전, 산신각등의 당우를 갖추었다. 궁벽한 산간의 원통사는 대를 잇는 불심으로 중창되어 호국도량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덕유정상 서북쪽의 적상산 마루(950)에 자리한 안국사(주지 원행)는 고려 충렬왕 3년(1277)에 월인스님이 창건한 이래 여러 대덕들이 중창했다. 1864년에 지어진 '안국사중수기'에는 "나라에서 사각(史閣)과 선원각(璇源閣)을 지어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계보를 봉안케하고 승병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으므로 조금도 염려할 바 없이 안심되는 일이다.

◇덕유산 정상 향적봉(1614)에서 바라본 지리산 방향. 좌측 봉우리가 삿갓봉이고 그 뒤가 남덕유산이다. 맑은날에는 지리산 천왕봉도 보인다.

13년 뒤에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전쟁의 불길은 적상산으로까지 번져왔는데 이미 사고를 지키기에 승병의 전투력은 역부족이었다. 자칫 사고의 장서들이 모두 유실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때 상훈스님이 사고안의 장서들을 적상산 정상인 향로봉 아래 바위굴(안렴대)로 숨겨 전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적은 기록들이 지혜로와 용기를 겸비한 스님에 의해 지켜졌던 것이다. 상훈스님의 일화는 일본작가 이노우에 야스시의 소설 〈돈황〉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전란에 휩싸인 사주(沙州)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 불경 1만여권을 명사산 천불동 석굴사원으로 감추는 세 스님의 절박한 불심과 용기 말이다.

조선말 광무6년(1902년) 안국사에 대대적인 개수공사가 진행될때 조정의 승정원 비서원랑 유인철(柳寅哲)이 안국사를 방문해 상훈스님의 일화를 듣고 '석실비장(石室祕藏)'이란 현판을 남겼다. 주지 원행스님은 "최근 그의 후손들이 족보에 '유인철 대감이 석실비장이란 현판을 안국사에 남겼다'는 기록이 있어 확인하러 왔다며 찾아와 청하루 안에 걸린 현판을 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흰 학이 단청한 극락전"

지금의 안국사는 1949년 여순사건때 전소된 호국사터에 새로 지은 것이다. 1989년부터 적상산에 무주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며 절 전체를 옮겨 지은 것이다. 안국사는 극락전등 옛건물을 옮기며 단청하나까지 옛모습 그대로 지켰다. 특히 극락전 좌측 뒤편에는 일부분 단청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한다.

옛날 한 스님이 극락전 단청불사를 위해 고심할때 한 노인이 나타나 "전각 주변에 천막을 치고 1백일동안 들여다 보지 말라"고 한뒤 단청을 시작했는데 스님이 99일째 되는 날 천막안을 들여다 보고 말았다. 천막안에서는 흰 학이 단청을 하다가 스님이 훔쳐보는 것을 알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극락전에는 딱 하루 일거리 만큼의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채 나무결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극락전 안에 보관되고 있는 괘불(국보 제1267호)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승 의겸스님의 작품이다.

덕유산이 품은 고찰들은 잃어 버린 옛 모습과 호국과 민안(民安)을 기원하던 정신을 되찾으며 백두대간의 속살에 맺힌 옛 스승들의 가르침을 오늘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藏秘室石

◇조선말 비서원랑 유인철이 쓴 '석실비장' 현판.

백련사 부용·벽암 주석처…복원 한창
원통사 을사조약때 항일운동 거점
안국사 史庫 유일하게 화마 안입어



◇정묘호란때 상훈스님이 적상산사고의 장서를 숨긴 향로봉 정상의 안렴대석굴.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다.



◇원통사 주변에는 옛 기와조각과 맷돌 등이 널려있다.

인터뷰 원통사 중창 3대인연 잇는 황경석 거사

"선친 원력·아들 왕생염원 담겼어요"



부모가 죽으면 먼 산에 묘를 쓰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묘를 쓴다고 했다. 죽은 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덕유산 깊은 계곡의 폐사 원통사를 중창복원한 일청 황경석거사(68세). 1983년부터 85년까지 3년에 걸쳐 황거사는 가파른 언덕으로 기와를 직접 나르며 원통사 대웅전을 비롯 요사채인 선초당, 초연교 등을 중창했다.

삼보법회 회장을 15년이나 역임한 황경석 거사가 원통사 중창불사를 발원한 것은 1982년 차남 선욱군을 잃고나서부터. 눈물로 49재를 마친 황거사는 마음을 잡지 못해 전국의 관음도량을 돌며 기도정진을 하던 중 양양 낙산사에서 신묘한 꿈을 꿨다. 원통사 대웅전에서 두 스님의 부축을 받고 나오는 아들을 보게 된 것. 스님께 달려가 연유를 물으니, 왕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꿈에서 깬 황거사는 곧장 원통사로 달려갔다. 신라때 창건된 고찰 원통사는 선친 법인스님이 1962년 입적할 때까지 머물었던 인연있는 도량. 당시는 1949년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해 전소된 채 겨우 초막으로 사세를 이어오던 초라한 모습이었다. 법인스님이 복원의 비원을 이루지 못한 도량을 둘째아들인 황거사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으로 중창하게 된 것이다.

용성스님 교화지침



1. 불교의 생활화이니 생활이 곧 부처님법이요, 부처님법이 곧 생활이니라.
2. 불교의 대중화이니 불사를 통하여 온 겨레 전 인류 다함께 성불인연 짓는 일이니라.
3. 불교의 지성화이니 참신 업불 간경 주력이 4대 수행이니라.

협찬 대성사(583-1475)·대각사(765-0972)
경주천통사(0561-748-8815)

백두대간통과 포장도로



■ 지역주민의 도량 일구는 안국사

실버타운·박물관·수련원등 건립

안국사는 옛 호국도량의 전통을 이어 지역주민과 함께 숨쉬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해마다 10여개 단체들이 찾아와 각종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성보전시관을 건립, 적상산의 성보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국사는 사회복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된 실버타운 '무우수 마을'은 올 가을 문을 연다. 2천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5백평 규모로 지어지는 노인복지 시설 무우수 마을은 15개의 방에 30명의 노인을 수용하는 유료양로원이다.

"각종 여가시설과 의료시설, 기도시설을 겸비하게될 무우수 마을을 유료로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무료양로시설과 어린이 복지시설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안국사 주지 원행스님은 무주의 영동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의료 혜택을 극대화 하고 인근 무주리조트 시설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적상산 주변의 자연부락은 20여개다. 그 가운데 타종교 시설이 3개뿐이란 점을 감안, 안국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포교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적상산 정상의 아름드리 참나무 숲을 지역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단체들을 위한 상설 수련학교도 설치할 계획이다.

■ 개발에 신음앓는 백두대간

47개 포장도로 생태계파괴 주범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47개의 포장도로와 25개의 비포장도로, 21개의 임업도로 등 93개에 이르는 도로들이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진부령, 미시령과 지리산 성삼재등 30개의 포장도로는 대간 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과악됐다. 환경운동 단체인 녹색연합(공동대표 강문규 노용희)은 최근 96년 5월부터 97년 11월까지 실시한 백두대간 환경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생태계 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장도로는 90년 23개에서 최근까지 47개로 늘어났다"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로를 건설할 때는 야생동물등의 이동로가 끊기지 않도록 터널형 도로를 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두대간 남한지역 6백70㎞를 직접 답사하고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 환경훼손 쟁점 지역들의 개발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군 작전지역상의 환경훼손, 고압송전탑 양수발전시설등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현황들을 살삼이 고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보고서와 함께 정부를 향해 백두대간 보전책의 마련과 백두대간 보존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자기와 경쟁 "쉼없이 배우자"

평생학습과 불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질' 향상위해 반성하는 생활하자"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4〉



그림 · 이준석

최근에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원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은 1965년경부터이며, 이의 보급은 UN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이념으로 정립되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에서까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규정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들 평생학습을 성인교육, 연수교육, 계속교육 등과 같이 지식 기술의 급진적 증가 및 변화에 따르는 후속 학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생학습은 이보다 훨씬 넓고 깊으며 인간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범위는 '삶'의 폭만치 넓고 깊다.

'삶의 질 향상'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 상대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찾을 때 참다운 의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3년 전에는 책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은 되었는데 최근에는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평생학습의 낙오자이며, 3년 전에는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이룩하였는데 최근에는 갈등과 마찰이 심하여졌다면 평생학습의 낙오자이며, 3년 전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입에 오르내리며 마찰을 빚고 있다면 또한 평생학습의 낙오자이다.

평생학습의 실천자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달라지는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평생 동안에 걸쳐 쉼이 없이 배워야 한다.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과거이며 어제보다 오늘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반성하는 생활을 할 때 자기 충족감에 넘치는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개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년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이의 실천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필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자로 공자님을 꼽고 싶다. 공자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

공자님의 말씀은 바로 평생학습의 정곡을 찌른 말씀이다. 즉 공자님은 '삶의 질'을 나선형으로 향상시켰다. 15세보다 30세, 30세보다 40세, 40세보다 50세, 50세보다 60세에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보다 원숙한 인간이 되었으며 70세에 이르러서야 '하고 싶은 바 마음대로 하여도 도덕, 법도에 어긋나는 바가 없는' 완전 자유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서는 평생동안에 걸쳐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고승이라고 칭송하는 스님들은 평생학습자였다. 필자는 50여년 전인 1945년에 오대산 상원사(上院寺)에서 방한암(方漢岩) 큰스님을 친견한 바 있는데 그때 스님의 세수(歲數)는 70세였다. 그런데 필자가 놀란 일은 스님의 정진하는 모습이었다. 밤에는 10시경에 침상에 들고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정진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취침하고 오직 스님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진의 생활의 계속이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마음대로 씀으로써 비로소 '삶의 질'은 향상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성(惺惺)한 생활이 바로 평생학습자의 모습이다.

서장(書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으며 이 말이 바로 평생학습자로서의 불자가 취할 태도이다.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12시의 끄달림을 입거니와 노승은 12시를 부린다 하시니 이 늙은이의 이 말도 억지로 함이 아니라 또한 법이 이 같은 연고이다.

둘째, 평생학습은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흔히 인간의 생존기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보고 평생학습을 정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사고에서 태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평생학습 개념 속에 태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이도 서구적인 '만 몇세'의 개념보다는 한국의 '당 몇세'의 개념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s)이며, 다른 하나는 항구적 가치이다.

발달 과업이란 "인간의 각 발달시기에 학습해야 할 과업으로서 이 학습을 이룩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기초가 되어 그 성취를 기약하며 이에 실패하면 개인의 불행,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고, 후기 발달 과업 학습에 곤란을 가져오는 학습과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발달 과업 개념은 헤비가스트(Havighurst)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발달을 유아기, 아동 중기, 청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인 후기의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육바라밀 실천 맑고 향기로운 평생학습
성실·정직·근면은 시공초월 '항구적 가치'

다른 하나의 개념은 '항구적 가치'이다. 발달 과업이 발달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항구적 가치'는 발달 단계와는 관계 없이 인생의 전기간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을 학습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항구적 가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별로 큰 변함이 없는 학습 내용일 때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성실성', '정직성', '근면성' 등의 가치는 발달에 관계 없이 모든 시대에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이다.

이와 같이 평생학습은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과 발달 단계에 관계 없이 평생 동안에 걸쳐 학습해야 할 '항구적 가치'의 양면이 있다. 이 양측면 중 불자들의 관심은 '항구적 가치'에 집중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 위주의 관능적 향락, 갑각적 문화, 인간소외 현상 등으로 특징지워지며 도덕적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여(眞如)의 세계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여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항구적 가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자로서의 불자는 무종교인이나 기타 종교인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실천을 위하여 정진의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절대의 세계인 저 언덕을 향하여 노를 힘차게 저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향기롭고 맑은 삶이 될 것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기별이 왔는가?"
"소식을 얻었는가?"
"기별을 얻었다."
"한소식한 스님이시다."

네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별' '소식'은 서로 같은 의미인 듯 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

기별은 두 가지가 있다.

기별을 한문으로 기별(奇別) 또는, 기별(寄別)로 썼을 경우에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기별(奇別)의 어원은 조선시대의 승정원(承政院)에서 나왔다. 승정원은 그날 그날 처리한 일들을 적어서 공포했다. 이를 기별이라고 불렀고 기별을 담은 종이를 기별지라고 불렀다. 조선조 관리들에게 기별을 전한

기별(記別)

부처님이 제자의 수행을 인가함 授記의 뜻 '한 소식'으로 변용

다는 것은 일이 잘 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한다는 말과 같았다.

불교에서는 기별(記別)이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부처님이 제자들의 수행이 무르익었음을 인가해 줄 때 기별을 준다. 기별은 수기(授記)와 같은 말로 미래세에 부처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기별을 주면서 부처님은 제자가 성불할 때 부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부처님의 국토 이름이 무엇이며 겁(劫)의 이름이 무엇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몇살일 것인가를 밝혀준다.

수기를 얻는다 함은 성불한다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중생이 기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다.

부처님 시대에 이루어진 수기 또는 기별이 요즘 선방(禪房)에서는 흔히 '한소식' 얻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 그것도 본래의 마음(本心)과 만나는 수행이라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과 계합하는 길이다. 따라서 선을 한 끝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한소식을 얻었다는 말은 성불도(成佛道)의 지시판을 얻었다는 말과 같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도서를 제외한 영화, 영상, 음반, 공연 예술 등 다방면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책방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866, 732-1721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계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11(代) FAX : (02)737-0697
※ 전국체제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일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대보생식
02)
427-9162~3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악간명 무집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63-16
011-337-0353
02-809-1831

• 강좌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릉지사
0391)43-5599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울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氣明緩屮子 ↔ 禪

현실적인 아름이나 정신적인 고통밤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 잃으신 분들 대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16)340-4459 ●
02)897-7731 ●

사주 · 명리학 특강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진 로 선 택 · 작명 · 기 타

기초부터 증강후 자신있는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목요일(주2회)
오후 1:30~4:30(3시간씩)
■ 수강료: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57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현재 수업진행중
- 3개월 졸업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점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개인 운세도 직접 감정중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 02)482-4550, 488-1569

경력 관리직 모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함께일할 도반을 모십니다.

■ 연령 : 40세이상
■ 대상 : 남 · 여

연락처 02)738-4224
(현해)나 찬 귀 합장

해외허가 제 745호
중국 베이징 해외유학 및 연수안내

기공속성반
침술속성반
한방속성반

※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 사무소 대표전화 02)737-0437
북경 사무소 6594-9401~3

• 구인구직 •

함께 일하실 분

◆저희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3억원)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 희 성

대 모 집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기 간 : 1998. 2. 27~ 3. 5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속에서 창자기를 참전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환영 ※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불자모심

- 40대이상
- 착실한 불교인
- 포교당 운영하셨던 분
- 부도나신 분
- 자본투자 없이 사업 같이 하실 분

02)3453-0562

평생을 모십니다.

절 신축불사(지장 · 명부시왕단)에 동참하실 재정능력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동참하실 분은 평생 절에 모시며 사후의 장의일체 49재 및 제사를 봉행해 드립니다.

02)888-1642
011)686-9925

공양주보살 모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반석1리
불광산 정토원
0338)71-8210

초파일행사에 기도스님 필요하신 분 연락바람.

011)850-9130
0416)857-3720

• 인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 법회 · 공연 •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월 · 수 · 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안숙선 판소리공연

(불타전-부처님의 생애)

■ 때 : 올해 4월 26일 오전 10시
■ 곳 : 도솔산 도안사
■ 대본 : 김재영(천보리회 법사)
■ 작창 : 안숙선(국립창극단장)

대한불교조계종 단아브리엘결사
보현도량
T. 0334)676-8700
F. 0334)676-8704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장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교미술 •

탁자,달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광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불교 조각원
02)
732-7326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대승종 귀하

■주소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1동 137-9
■성명 : 배연우(법명:정각)
■승적번호 : 31-21

본인은 1998년 4월 3일부로 본 종단을 탈종하였음을 공고함.

• 장의 · 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종합납골당** '영묘각'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갖춘 봉황 합동봉안 일주대 고봉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하층구조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저희 상조회 사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실천 드립니다. 상조회의 가입하시면 다음 관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우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 장의부 / 영묘각 사무국
고시전화당상별 출장대기 032)6128-108 032)6673-454

대한불교연화회
02)
732-9618

• 학원 •

소운서예학원 청우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하남시 창우동 320
은형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여행 •

각국 할인 항공권 및 비자안내

미국비자 · 일본비자
중국비자 그외 각국비자

※ 여권발급 · 각국 할인 항공권 성지순례 상담(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일광여행사
대표전화 02)736-6272

• 기타 •

목암주나무 묘목 판매

062)222-6003
(주간)
062)234-0095
(야간)

토굴에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중고승용차 필요하여 시주하실분 기다립니다.

011)510-2449
015)5971-7118

무불스님 · 달마보급



연락처 : 011-841-3591

「부다파야 포교기금」
PCS 016 핸드폰 특가판매

- 삼성 애니콜 1100 ₩170,000
- 삼성 애니콜 2000 ₩200,000
- 삼성 애니콜 3100 ₩370,000
- 현대 걸리버 1100 ₩130,000

(※ 각 기종 가입비 포함)

◐ 가입방법 : 전화나 방문접수→입금→개통→송달

문의처 02)732-1522 「부다파야 포교기금」

기자증 분실 공고

김정은
(현대불교신문사 취재2부 기자)

본인은 지난 3월 3일경 지하철 3호선 구간에서 기자증을 분실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080)723-4082

광 진 불 사

◇ 위 치 :부천시 괴안동
◇ 평 수 : 전평 40평
(상가건물내 위치)
◇ 가 격 : 보증금 1500, 월 60
전세 5,500
◇ 상담후 절충가능

032)663-0340
032)341-6760
011)766-8562

대구내사찰 구입합니다.

053)
255-1772
357-7986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 2, 주방 1, 법당1
◇ 가 격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17)263-6908

◆ 포교당
◇ 위치 : 대전시내 역전근방
◇ 대지 : 40평(한옥주택)
◇ 가격 : 보증금 2천만, 월 16만
(시설비 포함)
◆ 가격절충 가능!

042)257-6733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대전광역시
◆부 지 : 296평
◆법 당 : 30평 5포 전통목조 단청
◆요 사 : 방2칸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가 액 : 2억 7천만원
◆특 징 : 대전역에서 20분 거리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수려한 산세와 계곡물이 접한 기도 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함.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히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와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혹 일반인 무속인 포장도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80)512-4447
※ 중간분이 없습니다. 오해를 부탁드립니다
호출상담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 8일 오후~9일까지 스님사정상 부재로 전화받지 못합니다.

0373)374-1765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 (전기시설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가격 절충가능)

스님개인사정으로 급히 매매하오니 꼭 인수할의심 분만 전화 주십시오.

011)563-0108(휴대폰)
0551)21-5737(자택)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동사무소앞
◇ 건물보증금 : 천만원에 월세 55만원
◇ 시설양도금 : 1,900만원
(고급시설완비)
◇ 층건평 : 35평종 법당1칸, 방2칸, 부엌 1칸, 샤워및 화장실 1칸
◆ 베란다및 옥상 사용가함

02)374-5295
011)742-2955

◇ 위치 : 경북 청도
◇ 대지 : 208평
◇ 건평 : 신축주택 30평(기타 40평)
◇ 가격 : 8천만
◆ 특징: 교통, 산수호 100m 암반수 마을과 격리된 조용한 곳

0542)71-0847

◇ 위 치 : 북한산(서울시내)
◇ 임야 사용권 3,000평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주지실, 요사, 석굴
◇ 계곡과 기암괴석, 고목나무들.
◇ 서울시내 조망 가능
◇ 가 격 : 7억원정

02)512-3092

◇ 위 치 :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 대 지 : 93평
◇ 건 물 : 건물 50평 (구옥)
◇ 가 격 : 평당 240만원
◇ 급매 (교환가능, 분할가능)

0454)43-7681

◇ 암자 · 공부할 분
◇ 위 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 372-1
◇ 대 지 : 90평
◇ 건 평 : 20평
(방2개 - 주방, 거실, 욕실)
◇ 차량진입, 즉시입주 가능
◇ 96년도 신축
◇ 가 격 : 2천 550만원

053)813-5155
053)814-6785
012)1073-6780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 둥글게 둘 아니게 사는게 자비"

여러분과 항상 한자리를 하고 가는 이 도(道)의 길은 끝이 없는 길입니다. 흔히들 육신의 옷을 벗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에 의해서 진화되고, 또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진화돼서 어떤 모습으로든 천차만별의 차원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에누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오늘 꽃나무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너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어느 누가 못되려 하겠습니까 안될일 몰라서가 아니라 習과 한생각 돌리지 못해서…"

라구요. 그랬더니 꽃나무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 난 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네 뿌리가 보이지,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뿌리를 볼 수 없어. 그리고 너도 흙이 가려서 못보는 거지, 흙만 가리지 않는다면 네 뿌리를 네가 볼 수 있었을텐데." 하니까 "흙으로 덮어주지 않는다면 싹은 어떻게 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구나." 했죠. 그럴 때 그 꽃나무는 바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빠른 것이 없습니다.

불가(佛家)에서는 무명(無明)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흙이 덮여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빼놓고 싹이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걸림이 많아서 되지를 않죠. 쿠의 법·유의 법이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걸려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먹는 게 운전수이니 자기 운전은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참자기에 의해서 힘이 배출되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움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 하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자기 종자가 있고 자기 뿌리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의 자불(自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의 근본(根本)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처를 자기가 모르고는 모두 캄캄하게 되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종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세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 전부가 심성의학이며 심성과학이며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 쌀로 밥을 해먹는 것도 과학이며, 어린애를 생산해서 낳는 것도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생각을 안할 뿐이지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님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심성(心性)을 빼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일일이 말로 안할 뿐이지 이미 심성과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맞대면서 같이 돌아가는 걸 모를 뿐입니다.

이론으로 불법을 말한다면 한계가 있고 걸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空法)의 대승(大乘)의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먹었어도 살생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물고기의 모습은 진화시켜서 다시 형성시키니 모습은 모습대로 건지고 또 고기는 고기대로 약으로 쓰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도리를, 즉 안보이는 자기를 믿지 않고 모른다면 살생이 되는 것이고, 믿고 안다면 살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지구라는 것은 공기주머니와 같다고요. 같은 게 아니라 그러해요. 마음으로나 벗어날 수 있지 이 육체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공기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허공에 꽉 차 있고 써도 써도 남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자기를 믿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기가 왜 위대하냐 하면 수없이 지수화풍에서부터 만나서 형성되고, 형성됨으로 해서 원기가 돌고 원기가 도니까 생물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진화돼서 사람까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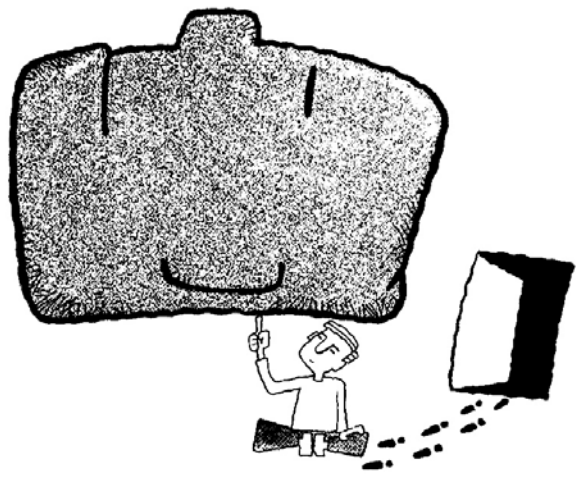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신이 심부름꾼 되면 다 잘 돌아갑니다" 아랫사람 낮게 윗사람 높이 보지 말도록

그러니 그렇게 수억겁을 돌면서 불돌고 나온 자기의 뿌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못되게 할 리가 없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건 법의 부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는데 너 이대로 있을 거냐? 달아나거라.' 하더라도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넌데 뭘 달아나.' 이럴 정도가 돼야 한다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때에 따라서는 참 딱하고 불쌍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요만한 지렁이 곤충등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요. 부자로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예요.

그러니 얼른 깨우쳐서 이 중세계(中世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 몸에서 벗어나야 지구의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란 무엇이냐? 과거·미래·현재를 말합니다. '과거' 했으면 현재부터 말하지 왜 미래가 먼저 나오는가? 그것은 과거도 현실로 오고 미래도 현실로 돌아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과거·미래·현재의 삼계(三界)지만 바로 대천(大千)이 되는 겁니다. 삼계가 대천이 됐으니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이 영이 만 개라도 영은 영이지, 만 개라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불(一佛)이라고 하죠. 예전에도 깨달은 분이 수없이 많으셨지만 일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참구하고 진리를 배우고 가는 중입니다. 부처님 법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저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빌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철 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세세생생에 자기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공부죠. 그리고 지금 배워도 죽으면 그만이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자신이 이는 것만큼은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 큰 소임을 맡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똑똑해도 넓은 아량과 둥그런 진리를 모르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은혜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의 공덕이 아니고 부모의 공덕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나중에 회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욕을 먹거나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 빼놓고 대신 밥 먹어주고 대신 살아주고 대신 똥눠주고 잠자주고 아파주고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깨닫는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고려시대의 어느 스님에게 누님이 한분 있었는데 스님은 언제나 열심히 공부할 것을 권했지만 누님은 번번히 "나는 부처님같은 동생을 두었으니 걱정이 없소.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해도 도가 높은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해 주지 않겠소?" 하면서 공부를 게을리 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누님이 절에 오기로 한 날, 스님은 떡이며 과일이며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누님이 온 것을 보고도 인사 한 마디 없이 말이예요. 그러니 누님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스님께서 오늘 왜 이러시나?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않고 먹기만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십니까? 동생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누님께서는 배가 부르지 않다는 말씀입니까"하니 "그게 무슨 말인가? 스님이 음식을 먹어 배가 부른데, 내 배가 부를 까닭이 있는가?" 했답니다. 그제서야 스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동생이 도가 높으면 누님은 도를 닦지 않아도 구제가 된다고 하시면서 어찌 음식은 다릅니까? 자기 배가 부르려면 자기가 먹는 수 밖에 없으므로 누님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했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 뿌리인 주인공을 진실히 믿어서 걱정을 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무너지게 하는 것도 너고 그걸 한 손가락으로 돌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죽는 것 사는 것의 생사를 다 버린다면 말이예요. 생사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양면을 다 놓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너무 강해서 일이 좋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주인공 뿌리에 합쳐서 둘 아니게 그 자리에 놓는다면,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게 놓는다면 그게 둘이 아니게 운전이 되죠.

그리고 좌선하는 문제도 그래요. 꼭 좌선을 할 때만 '해야겠다' 그러고 앉습니다. 또 다 했으면 '그만해야지' 하고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계속 돌아가는데 굴러가다가 서버리고 말죠. 또 몸뚱이도 송장이 돼야 맞죠? 다시 앉을 때까지는 말이예요. 하지만 그 몸뚱이가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다시 앉기도 하니 와선·입선·좌선·행선이 다 참선이다 이 소립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행을 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 참선이다 이 뜻이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만약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한다면 그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생사조차 놓고 가야 하는데 다른 일에 참견하고 갈 수가 없죠. 나는 실지로 그래요. 내 생명에 대해서 살겠다는 생각도 없고 죽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산에서 공부할 때부터 죽이겠으면 죽이고 살리겠으면 살리고 너 알아서 해라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4)

내 샘물은 막아놓고 한바가지 물을 구걸할 것인가.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척 친구들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들이 모름지기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밖에 있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퍼준 물 한바가지는 마시고 나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고로 나의 깊은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어야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누구라도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먼저 주위의 도움부터 청하게 된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 친척? 친구? 어려운 처지에서 후원자를 만날 수 있음은 행운이다.

우리들은 뭔가 일을 도모하려 하면 먼저 조건을 따져본다. 내 소유의 자산, 능력, 입지를 계산해 보고 시장, 협력자의 유무등을 검토해 본다. 어쩌면 그것이 일의 당연한 순서일 것이고 되어 가는 모습이리라.

가진 것이 넉넉하고 거기에 외부의 도움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의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시작의 발걸음은 훨씬 가볍고 희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바깥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진 것이 남달리 빈약하다면 또 어찌 할 것인가.

움치고 뛸 자리가 없다며 주저 앉고 말아야 하나?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야 하나?

도움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에도 한계가 있다. 도움이나 소유는 비유하자면 한바가지의 물과 같다.

목이 마른 내게 지금 한바가지의 물 밖에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한바가지의 물을 다 마셔버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의 갈증은 무엇으로 풀 것인가.

한바가지의 물을 지금 마셔서는 안된다. 그 물을 펌프에 들어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더 많은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오래 목마르지 않고 내 샘물을 내가 퍼 올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한바가지의 물조차 얻을 수 없다면 어찌 할 것인가. 그때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물은 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의 대다수는 이미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저 소쩍새마을이나 꽃동네를 가 보라.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들을 보면 나 자신은 부자요 능력자임을 실감케 되고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듣고 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온전한 육신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어찌 바깥의 물 한바가지 도움을 구걸하랴.

어디 그뿐인가. 마음의 능력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다 하지 않던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이라는 보배가 있다. 그것은 퍼 내어도 퍼 내어도 줄지 않는 무한량의 샘물이다.

사람의 능력은 외부의 도움이나 소유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에너지의 원천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준 보배인 셈이다. 그러니 어찌 도움을 기대하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한탄하랴.

도움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면 그건 핑계요 변명이다. 가진 게 없어서 하고픈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먼저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내 스스로 에너지로 가득 차야 한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또는 환경이 나빠서 주저한다면 아예 구상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것은 이미 허상일 수 밖에 없고 나를 앞세우는 아상의 찌꺼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부회장을 지낸 사람이 호텔웨이터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내게 가진게 없다고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실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점에 감사하기는 커녕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불만스러워 할 것인가.

밖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나를 도와야 남도 나를 돕고 하늘도 나를 돕는다.

협찬: 유근식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정신계와 물질계 맞물려 돌아가니…"

☞ 17면에서 계속

하고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나더라구요. 그믐밤에 산 속에 있어도 어떤 게 나와서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었구요. 버섯따러 다닐 때 보면 나뭇잎이 수북이 쌓인 곳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버섯이 꼭 그 안에 있어요. 싸리버섯 같은 경우는 아주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그걸 따려면 그래요. '난 너 모습 보기 싫어. 좀 보이지 않게 할 순 없어?'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길다랗게 늘이고 가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낮게 보지 말고 웃사람이라고 높이 보지도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부처님도 자기 모습과 같고, 자기 마음과 같고, 자기 생명과 같이 둘이 아니게 보십시오. 이 마음의 도리는 무한량이라 일배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극하게 한다면 삼천배 올린 것 못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고 빨라서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만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그렇게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월한다' 하는 마음, 그것도 이름입니다. 본래 초월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道)'라는 것도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계성이나 업보성·세균성·인과성·유전성 이런 것들은 이 몸뚱이의 의식 속에 있다가 차례차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어떤 물질로도 막을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근본 자리를 믿고 '모든 걸 너만이 할 수 있어'하고 관하고 놓는다면 그게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수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찰나에 올라가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입력이 된 그 자리에 새로운 입력을 하게 되면 앞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새로 입력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자나 운명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영원한 자의 생명의 근본이니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 생명의 근본이 힘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모두 움죽거리게 되는데 몸 속에서 움죽거려줘야 내 몸이 움죽거리게 되죠. 움죽거리는 몸은 또 먹여줘야 작용을 해 줍니다. 이 모두가 일체가 다 둘이 아니게 사는 법입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법 말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라고 얕보지 말고 웃사람이라고 쳐다보지도 말고 항상 자기와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내지 말고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말고 섭섭하게 하지도 말고 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대승경지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승에서 멎어버리고 말죠. 마음을 둥글게 굴리지 못하면 공부가 늘어가질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자기와 보이지 않는 자기가 합쳐져서 보이는 자기를 형성시켰습니다. 정자와 난자 그리고 내 영혼이 이렇게 한데 합쳐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은중경'에도 있듯이 한두 살 적에는 철이 없어서 어버이의 은혜를 몰랐지만 나이 20, 30이 되고 철이 들었을 때는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법의 부모는 나를 형성시키느라고 정자 난자를 필요로 했지만 길러주신 은혜는 어떻게 갚으오리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짐승들은 힘에 의해 몸뚱이를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러지만 사람으로 올라오면 사람의 고깃덩어리 먹지 않는 대신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 묘한 법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서산대사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서산대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들어가서 새가 내려오고 싶으니까 내려왔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조금 전에 살생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관하는 도리도 모르고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냥 살생이 되고 업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들고 나는 것이 다 한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나쁜 게 나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하고 관하고, 좋은 게 나오면 '감사해'하고 관하게 된다면, 업이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원한도 없어지죠. 그런 도리를 몰라서 끝끝내 마음에 남아있게 되면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는 부모 속을 썩이고 또 나라에 누가 되게 하고, 자기도 그냥 볼품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스로 누가 되게 이름을 손상시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려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와주지를 않으니 그렇게 밖엔 못 사는 거죠. 정신계를 무시하고 바깥의 물질세계로만 치우쳐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해버리니까요.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에너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한 생각 돌릴 때,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에너지가 나가서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하더라도 못바꾸는 소중한 공부입니다. 이 세상이야 돌고 돌면서 찰나찰나 변하고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뭘 아까워하고 뭘 붙들고 할 게 없잖습니까. 나투는 것 아닙니까? 나툰다는 것은 표현을 할 때 즉 쉽게 말해서 한 발짝 떼놓고 나면 한 발짝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찰나찰나 나툰다는 것도요,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것 들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일거수 일투족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부처 될 가능성은 99%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명이라는 것이 나무에 흙 덮인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보는 것입니다.

> "내가 누되지 않게하고
> 부모가 누되지 않게하고
> 부처님법이 누되지 않게해야
> 내소임 다하며 사는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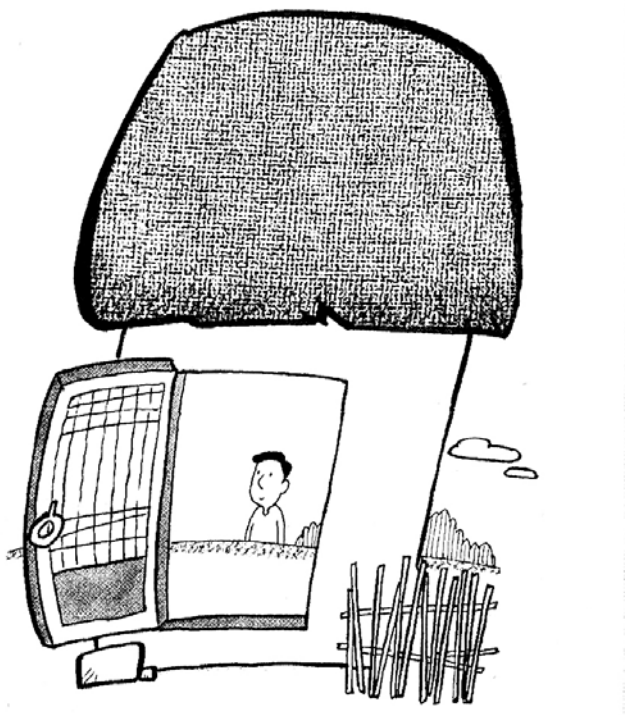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활떠나 불법없듯 생활떠나 과학없어"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과학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든지 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이나 어부가 고기를 잡는 일이나 각자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전부 과학 아님이 없습니다. 살다보면 좀 어렵고 불편한 건 지혜를 내서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잘되겠구나 하고 바꿔서 돌아가게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불법이 따로 없듯이 생활을 떠나서 과학이 따로 없습니다. 불법이나 과학이 어디 먼 데 있나요? 마음없이 살 수 없으니 심성없이 어떻게 과학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아는 분들은 그저 저절로 보이지 않는 자기 아닌 자기가 물질적인 자기를 이끌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들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해도 마음 자리에서 다른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켜주고 보디가드가 돼 주는 거예요.

어떤 신도가 와서 말하기를 집을 비우면서 '주인공, 나는 지금 급해서 나가야 하니까 집에 도둑 안들게 지켜줘' 하고선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돌아와보니 문은 열렸는데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지켜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철퇴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하고 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거기서 지키게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지키게 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걸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항상 둘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색경에 비치는 것도 내 그림자에 불과해서 그 색경에 내 모습을 비치게 하는 놈도 그놈이고, 보는 놈도 그놈입니다. 이놈이 하자는 대로 색경 속에서는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보이는 자기는 안보이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말입니다. 따라서 악이냐 선이냐, 잘못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운전하기에 달려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못살려고 하고 못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과 될 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살아온 습과 한생각을 크게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처녀때 발목을 다쳐서 한 10년 정도 무척 고생을 했나봐요. 안 다녀 본 병원없이 애를 많이 써도 낫질 않았는데 여기 와서 관하는 걸 배워가더니 자기 주인공에 대해서 제 뿌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붙들고 믿었던지 차츰 낫게 되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해줘도 영 수금도 되지 않고 기계도 자꾸 고장이 나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죠. "그 공장 안에 기계도 당신이고 직원들도 당신이고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어. 그 기계도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그러니 모두가 주인공과 둘이 아니고 당신과도 둘이 아니니, 즉 말하자면 주인을 시켜줘라. 제각각 다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공에다 맡기고 당신은 심부름꾼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수금도 잘되고 기계도 고장 없이 잘 돌아가더랍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수없는 차원의 업보가 다 있지만, 그것을 없애는 도리가 바로 과거의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다 되입력을 해서 앞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팔자운명도 붙지 않고 살생도 붙지 않고 업보도 붙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지은 죄가 많아서 어쩌랴 하지만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나온 자리에다 되입력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다 타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새로이 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팔자운명도 없어지게 된다 이 소립니다. 인과성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업보성이 되고, 업보성으로 인해서 세균성 또는 영계성이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보이는 데서 나와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보이는 데서 바로 나와도 모르고, 안보이는 데서 나와서 보이는 데로 다시 나와도 모르니 어떻게 그걸 대치를 해나갑니까. 하지만 형상이나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한다면 그건 공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바깥에 비는 것은 도깨비장난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양무제가 아무리 많은 절을 짓고 불사를 했어도 달마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원주에서 상원사 토굴에 있을 때 얘깁니다. 어느 대령이 와서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아주 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사탕 한 봉지 사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천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도란 꼭 상을 차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떡하고 과일, 물, 향, 초 이렇게 놓고서 형편이 되면 꽃이라도 하나 사다놓고 재를 지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대승의 도리로 훌떡 넘어섰다면 길에 다니다가도 상황을 봐서 급하면 그 자리에서도 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하는 줄도 모르겠지만 자기는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진화되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연이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 다음에 또 만나게 되죠.

그러니 그걸로 천도를 해달라고 왔길래 가만히 그 사탕 봉지를 들고 봤습니다. 그 사탕 속에서 뭐가 비치느냐 하면 말이예요, 그 대령이란 사람의 어머니가 이북에서 말입니다. 6·25사변이 일어났을 때 치마를 덮어쓴 채로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치마를 덮어쓴 채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대령은 뭘 왜 그리 살려달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10년 동안을 치마를 덮어쓰는 흉내를 내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살림이고 애들이고 아무것도 돌볼 수가 없었답니다. 병고쳐보겠다고 집도 팔고 돈도 다 썼는데 낫지 않고 있으니 사탕 한 봉지 사들고 그 먼 산중엘 올라온 거예요. 이젠 아이들도 못키우고 돈도 한 푼 없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사탕 한 봉지를 놓는데 그 사탕 속에서 그 불쌍함이란 말도 못해요. 하지만 명경만 명경이 아니라 쇠붙이를 갖다놔도 거기가 명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자식 살리느라 부모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거를 어떡허우. 죽은 부모가 이 도리를 안다면 자기도 벗어나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천도를 해달라고 똑같이 며느리한테 왔는데 그거를 대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했더니 그 벌벌 떨고 그러던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그건 사탕 한 봉지가 아니예요, 마음이죠.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찰나찰나 나투면서 통신이 되니까 자기가 한 것도 없고 그쪽에서 없앤 것도 없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다면 주고 받은 사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나는 얘기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애들 다 공부시키고 잘 사는데 말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니까 그냥 가까운 절에 다녀요. 허, 그래도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그저 내가 그 당시에 나 할 일만 했으면 그만이지 남이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오든 안오든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두 각자 나 할 도리만 하면 돼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소임을 다 하는 건지 그것을 잘 알면 돼요. 첫째, 내가 누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부모가 누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부처님 법이 누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하겠죠. 부처님 법이 누가 되면 일체가 다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 자비로써, 불쌍하고 슬퍼서 자기와 둘 아니게 생각을 해준다면 그게 자비예요. 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 남의 자식이 물에 빠진 것도 내 자식의 아픔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형성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모두를 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안으로 넓게 본다면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님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 '지장보살님이 문고리 잡고서 다 들여보내고 내가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끝이 없구나'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게 참 이해가 가고 그렇게 끝이 없는게 바로 진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도 사람의 도리를 다 지키지 못하면 하천세계로 떨어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사람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발길로 채여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리곤 상세계로 오른느냐 중세계에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도 자기가 산 것대로 아주 철저해요. 살면서 모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마음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그게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유인의 사람이죠.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 마음공부! 생활이 곧 교재임을 알고 생활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모습으로 시자로서 뛰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좁쌀 하나에 이 우주 전체가 다 들어간다 해도 그릇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좁쌀 하나가 들어간다해도 크지 않을 겁니다. 또 사람이 살다보면 병을 앓게 될 때도 있는데 참 그것처럼 의욕이 없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껏 여러분이 아파서 올 때 '내 몸은 좀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내 몸이 아파봐야만 아파서 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적응이 되고 나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와서 이러더군요. "스님, 어떤 까닭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포기하고 내보낸 저를 수술을 해 주셨습니까? 수술을 해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스님이 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당신 주인공에다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 주인공이 너무 안타깝게 간절히 부르고 안타깝게 맡기고 안타깝게 슬퍼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당신 마음한테 같이 한 것 아니예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꿈이지만 역력하게 요만한 칼을 들고선 뭘 요만한 걸 하나 꺼내더니 '이제는 괜찮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고 나서 괜찮다고 나아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우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만 위해서 안 아프게 하고 또는 축지법을 쓴다거나 자기 몸을 감추었다 나타냈다 하는 신통을 함부로 쓴다면 그것은 딴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뿐이지 정법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겪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통 사람처럼 그냥 편안히 누워서 열반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물질세계를 부정해도 안되고 정신세계를 부정해도 안됩니다. 둘 아니게 항상 수레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자체를 심성과학(心性科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이 조금 쉴 듯하면 김치를 넣고 볶아서 먹기도 하죠?

그것도 과학이예요. 천차만별로 생산하고 천차만별로 연구하고,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만 연구에 속하거든요. 모두가 그렇죠. 자기의 개성에 맞게 자기의 환경에 맞게 그 용도를 정하는 것, 즉 그것이 과학이예요. 부처님께선 심성과학을 가르치셨지 이름이나 형상이나 고깃덩어리에다 빌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나를 보고 절을 하셨지만 내가 위대하고 높아서가 아닙니다. 또 나한테 한 것도 아니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각자 자부처로서 자삼보(自三寶)에 귀의한 것이죠. 과거도 자기가 살아왔고 미래도 살 것이고 또 돌아와서 현재도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요. 이 도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길 가끔 하죠. 만약에 자장면을 먹어 본 사람은 '그 자장면 맛있더라'하고 찾는데 자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다구요.

그러니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좀 밝고 시원하게 사세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번은 다 죽는데 뭘 그렇게 연연해 하십니까. 그저 오는 것 내치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이 각자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혈찬 한마음선원

"역사여행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생생한 조상의 숨결을 느껴보는 어린이 문화답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단위 나들이 문화가 놀이동산에서 고궁이나 전통사찰등 우리 문화유적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교계복지관·전문단체 '어린이답사' 인기

고궁·사찰·유적등 찾아 문화유산 소중함 일깨워 새싹 불심 인성교육 한몫



◇어린이들의 문화유적답사는 교실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계 복지관들과 전문 답사단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어린이 답사기행은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일깨워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답사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역사관 정립에 한몫하고 있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옥스님)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어린이 문화유적답사기행을 실시하고 있다. 송광사 선암사 도갑사 등 전남지역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돌아보며 어린이들에게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강사회복지관(관장 정관스님)은 방학 때 중점적으로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어린이 문화기행은 고란사 낙화암 등 공주지역의 흩어져 있는 유적지들을 방문한다. 국토문화연구회 옛돌(회장 조승열)은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가족답사 프로그램으로 12일 고창 선운사 동백 빛꽃 터널 답사, 18일 고흥 능가사 소록도 방문, 5월3일 문경 봉암사와 괴산 각연사, 5월5일 어린이날 수원 용주사와 수원화성 답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문화유적답사회 고인돌(대표 이춘상)은 4월7일 운주사,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안동의 도산서원 하회마을 박물관등 유교유적지를 둘러보며 어린이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인성교육을 주로 하는 열린교실에서 1년에 두 번 문화견학을 실시한다. 우리 문화의 전반적인 모습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주 아이템으로 해 부천역사연구소와 함께 부천역사기행 등도 마련했다. 앞으로 6월이나 10월 중에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은 해마다 1월이면 어린이문화기행을 간다. 올해는 LG사이언스홀과 세계사박람회를 참관했다.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회장 정외영)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8번버스를 타고 떠나는 고궁답사'를 지난해 겨울방학 때 시작했다. 20명 정원으로 5일간 실시된 첫 답사의 호응도가 좋아 4월4일 두 번째 경복궁 코스는 하루코스로 준비했다. 앞으로 매달 답사를 마련하며 방학 때에는 4~5일간의 집중답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8번버스를 타고 떠나는 고궁답사'에 참여한 이종수(12·우이초등6)군은 "고궁에 몇 번 와봤지만 각 건물에 대한 설명과 우리 역사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라며 흥겨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강지연 기자

◇어린이 유적답사 단체

답사단체	전화번호
금강사회복지관	(0416)856-6110
덕유사회복지관	(032)325-2161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71)762-813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0662)652-424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경실련 문화역사기행	(02)771-0373
국토문화연구회 옛돌	(02)275-4333
'남누리북누리' 국토기행	(0652)74-4545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02)903-6604
누리앎	(02)739-9077
돌장승	(02)955-4554
문화답사모임신돌메	(02)722-6901
옛그늘문화유산답사회	(0551)64-8572
우리문화유적답사회 고인돌	(02)742-6746
터누리	(02)217-5066
터사랑	(02)725-1284
한서울답사여행회	(02)499-2038

건강 365일 〈17〉 대황(大黃)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일명 장군풀뿌리라고도 한다. 동의보감에 보면 어혈(瘀血)을 풀고 월경불순, 종양, 염증을 다스리며 변비를 없애준다고 나온다.

사람의 눈을 보면 노성(怒性)을 띠운 듯한 사람이 있다. 눈이 탁하기도 하고 충혈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간(肝)이 실하다고 하는 태음인(太陰人) 체질이다. 주위에서 속된 말로 간덩이가 부었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는등 노하기를 잘하는 체질이다.

태음인 체질은 만병(萬病)의 근원이 간에서 출발한다. 신경을 쓰거나 비위에 맞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전부 간에 영향을 준다. 소위 말해서 간에서 울화가 치미는 것이다. 그러면 눈이 아프거나 안면부종, 불면증, 속쓰림, 좌골신경통 등이 생기며 만성 변비가 나타난다. 여자들은 월경이 일찍 끊어지고, 갱년기 증상으로 얼굴이 열로 후끈 달아 오르고, 골다공증과 무릎관절염이 온다. 남자들에게는 정력감퇴가 온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간징의 울화를 식혀주어야 한다.

간장의 기능이 지나치면 췌장을 자극한다. 췌장은 피를 생산하는 장기이다. 췌장이 압박을 받으면 피가 생산되지 않아 빈혈이 오기도 한다.

우리 인체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精)과 혈(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위장에서 정을 생산하지 못하고 췌장에서 혈을 생산하지 못하면 인체는 온전하지 않게 된다. 정과 혈이란 집의 대들보와 같은데 대들보가 온전하지 않은 집이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이와같이 간이 허한 태음인 체질은 간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근본치료법이 된다. 간의 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간의 울화가 대장으로 전이된다. 간과 대장은 내외관계와 같아 변비와 견비통 등이 온다. 또 대장과 경락상으로 같은 위장에도 영향을 미쳐 속쓰림 위염 불면증 등이 생긴다. 위신경과 연결된 좌골과 무릎관절염도 유발시킨다.

울화병·월경불순·변비 등 치료 술에 찐다음 감초 달여넣어 복용

복용법 대황 4g~8g과 감초 4g을 달여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대황은 술에 쩌서 사용한다.

종교 교과서 지도서 발표 교법사단 29돌 기념 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은 창립29주년을 맞아 4월11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가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도교육의 해에 따른 신행체계화 방안'을 주제로 류동호교법사(광동여고)가 주제발표를 하고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사용 지도서 하권(시안)을 발표한다. 교사용 지도서 하권은 △총론(김남일교법사) 등 총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4백만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다.

문화재 애호·심성개발 중점

파라미타 올 사업 확정

파라미타(회장 현근스님)는 문화재 애호활동,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3월23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확정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외에도 사무총장 관련 정관개정안과 2억7천여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사회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사무총장을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당연직에서 포교원 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 사무소 소재지 이전과 신규등록의 건도 결의했다. 현재 사무총장 내정자는 포교원 연수국장 법경스님이다.

파라미타가 98년 중점적으로 펼칠 사업은 3월26일 개원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활동과 파라미타 국제캠프, 문화재애호활동, 심성개발훈련 등이다. 파라미타 국제캠프는 7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강원도 고성군의 세계잼버리장에서 열리는데, 사경, 불탑·단주·컵등만들기, 불교벽화그리기, 낙산사 참배 등의 불교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심성개발훈련은 참선과 발우공양 등의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심성 키우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문화재애호활동은 성보문화재 이해, 체험(수련대회), 조사, 캠페인, 정화, 관리, 소감문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지난해에는 5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문화재 애호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3월25일부터 문화재애호활동에 들어가려고 했던 파라미타는 사무총장이 공석인 까닭에 사업비 집행이 이루워지지 않아 활동이 잠시 연기됐으나 한국청소년협회가 문화재애호 교재비로 2백만원을 지원해줄 예정이어서 조만간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단 신

우리는선우 학생회 창립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3월28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중·고등학생회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된 중·고등학생회는 문화활동, 사회봉사, 환경보호활동, 공부방 학습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창립법회와 함께 향산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됐다.

무진법장사 어린이 수계

무진법장사(주지 법장스님)는 19일 오후 1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어린이 합동 수계식을 거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의 계사로는 법장스님 신공스님(상임법사) 현우스님(상임법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랑으로 크는…' 발간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스님)는 특별교육대상 청소년 지도교재 〈사랑으로 크는 청소년〉과 〈우리한밭사랑하기〉를 발간했다. 〈사랑으로 크는 청소년〉은 △청소년의 이해 △비행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한밭사랑하기〉는 자원봉사 대상시설 소개와 더불어 희망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가 수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용 책자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祕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불자 세상보기

실직…가출…범죄…자살 **IMF 증후군** 사회전체가 집단 우울증

종교계 '정신적 치유' 나설때

전문가 진단

박남진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욕상실 쉽게 자포자기"

봄은 왔지만 IMF한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들어 보지도 못한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렸다. 처음엔 IMF한파를 염려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잘 지나가겠지 하는 안도감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감당키 어렵게 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누기도 어렵게 되었다. 가장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가정의 중심도 흔들리고 있다.

정신의학적으로 자식의 죽음과 배우자의 사망을 가장 심한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보고 있으나, 요즘의 상황은 그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 같다. 자살률도 높아가고 이혼율 또한 올라가고 있다. 증후군으로 우선 불면증 초조 불안 긴장이 시작되면서 결국 의욕상실 식욕감퇴 대인관계기피증으로 발전,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게 된다. 한편 삶에 대한 의욕상실과 자포자기는 자살충동을 쉽게 할 것이며,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가정을 떠나고 포기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삶의 존재 의미와 가정의 정체성, 사회 도덕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국민 모두는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생체리듬에 맞추어 생활의 리듬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IMF시대 사회심리적 동향

삼성생명 정신건강硏 발표

①실직자는 물론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조차 실직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및 공포심리가 확산돼 소비생활이 크게 위축된다. ②불확실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변의 불안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등 부화뇌동 심리가 나타난다. ③패배주의와 열등의식이 광배해진다. ④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된다. ⑤소비행위 자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생활수준이나 소비성향이 하향평준화하는 획일적인 사고가 관친다. ⑥불안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부정 심리가 극대화된다. ⑦서민층은 상류층에, 상류층은 서민층에 현실책임을 떠넘기는 '남 탓하기' 현상이 확산된다. ⑧남편은 실직 스트레스, 아내는 가계살림과 남편 눈치보기 스트레스, 자녀들은 가정형편의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등 가족간의 스트레스기 증가한다. ⑨'하필이면 내가 해고돼야 하는가' 하는 심리는 사회전반에 걸친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발전한다. ⑩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져 계층간 갈등이 노골화된다.

작년 11월이후 한달 9백명 자살
실직자 81% 불면증 29% 자살충동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잠을 못잔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만 골무력감에 빠집니다. 이젠 직장과 사회에 대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지난해 12월 모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김모(48)씨. 그가 1일 교계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를 통해 털어놓은 말이다.

최근 '자비의 전화'에는 하루 40여통의 전화중 30%에 달하는 10~15명의 실직자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한·두달간 쉴 수 있는 사찰을 소개해 달라는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IMF체제의 영향으로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면서 '심리적 공황상태'라고 할만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실직자의 경우 정체성 상실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견디지 못한채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급증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하는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일터에 남은 자들 역시 '생존자 증후군'이라 불리는 고통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집단우울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회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96년에는 한달 평균 자살자가 7백20여명이었으나 IMF체제기 시작된 97년 11월이후 한달 평균 자살자가 9백여명에 육박했다. '실직한 아버지의 모임(대표 금정대)'이 실직자 1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1%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29%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이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IMF증후군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 어느때 보다 '정신적인 귀의처'로서의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한다. 종교가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 고유의 존재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실직자들은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 모여들지만 허탕치는 날이 대부분. 쌓이는 허탈감과 무력감이 가족과 사회전체를 우울하게 만든다. 〈시사저널 제공〉

불교적 처방

"共業이니 더불어 살아야"

월운스님 〈동국역경원장·봉선사 회주〉

사람은 전체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내던져진 공업(共業)의 존재이므로 이미 그 몸은 자기 지신만이 아닌 가족과 사회속의 한 일부임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한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하루 세끼 내 자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 이런 귀한 존재인 사람이 자포자기(自暴自棄)하여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주변인들이 막아야 한다. 특히 가족·친구의 동반자살은 또다른 미래의 부처님을 죽이는 중죄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정신적·물질적인 기반을 잃고 분한 마음에 사회적인 적대감을 가진 이들에게는 인과설과 업보설을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된다. 원하지 않은 일일지언정 모든 일이 과거 무수겁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정임을 설명해 줘야 한다. 특히 "업장을 풀기 위해서는 아침·저녁으로 단좌하여 '관세음보살'을 21번 외우면 꿈이 편안해지고 악연이 풀린다"며 권한다.

죄의식이 마비된 범죄는 경소에 법회 활동과 참선정진 등을 통해 자제력과 인내심을 키워줘야 한다. 물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긴박한 현실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관음정근' 등이 더 적절하다.

"행복의 기준을 새로 정립"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

IMF증후군에 대한 禪심리학적인 대처방안은 '위기와 불안의 심리는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거품을 걷고 본래의 삶과 기분, 경제를 찾아서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갈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생사가 윤회하듯이 경제지표의 굴곡도 부침을 거듭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을 긍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첫째, 마음을 비우자. 이제 정신없이 담아두었던 불필요한 애물단지들을 미련없이 버리자. 비운 마음에 본래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둘째, 인과의 법칙을 깨닫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였던가. 행복의 기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자.

셋째, 동사섭(同事攝)의 정신을 터득하자. 내 욕심만 채우고자 했던 이제까지의 내 생활에 너와 나를 동시에 생각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인격형성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개개인의 건전한 인격으로부터 모든 사회심리학적 증상과 사회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갓난이기들이 팔려가고 있다. 지난달 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현대판 노예 앵벌이의 실태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망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축이나 애완동물 팔아넘기듯 영아들이 앵벌이 조직에 팔아넘겨졌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에 한몫을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앵벌이는 공개된 아동학대이자 아동인권유린이며, 이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섯살짜리 아이가 돌이 갓 지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껌을 파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셨다면 무슨 말씀하셨을까. 〈편집자 주〉

앵벌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갓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면 양약을 가려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 것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를 받을 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하사 해탈케 하신다. 〈선교방편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개장(蓋障)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청정한 비구나 모든 보살은 길을 가면서도 생초(生草)를 밟지 않는다. 더구나 손으로 그것을 뽑을리 만무하다. 이런 터에 어찌 대비(大悲)의 마음을 지닌 이가 세울들의 피와 살을 취해 식료(食料)로 삼을까 보냐. 〈능엄경〉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이르셨다. "모든 고기에는 무량한 인연이 얽혀 있으니, 보살은 그 중에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일으켜 응당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그 일부분만 설하리라. 대혜야, 온갖 중생은 무시(無始) 이래 생사 속에 있으면서 윤회를 계속해 온 터이므로, 일찍이 부모·형제·부부·권속·친구·애인·하인 따위의 관계가 안 맺어졌던 중생이란 존재치 않는다. 그런 중생들이 생을 바꾸어 새나 짐승의 몸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중에서 취하여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입능가경〉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금수·벌레·천인(賤人)중 살려 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에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심리진단 체크리스트

'아버지의 전화'(소장 정송, 02-208-0660)는 최근 실직 가장 1백여명을 면접, 불안 심리상태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가장 많은 대답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66%) '돈 걱정을 많이 한다'(55%) '훌쩍 떠나고 싶다'(40%)는 것 등.

'아버지의 전화'는 상담결과를 토대로 불안심리 체크리스트〈표〉 20개 항목을 설정했다. 39점 이하면 전문기관에서 상담, 40~54점은 주위 사람의 위로나 따뜻한 대화를, 나머지는 보통(55~69점) 양호(70~84점) 희망적(85점 이상).

- ○심이 심을 때가 있다
- ○매시기 귀찮고 의욕이 없다
- ○소화기 안되고 속이 거북
- ○식사후 약을 먹거나 건강 이상
-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
- ○갈곳이 없어 배회하 어 집생각
- ○요행이나 복권당첨 생각
- ○술을 더 많이 마신다
- ○우울하여 의사와 상의하고 싶다
- ○미리기 이프거나 멍하다
-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 ○희망이 없어 미칠것 같다
- ○되는 일 없고 뭐에 나가기 싫다
- ○신경질 잘 내고 짜증
- ○가정생활이 귀찮다
- ○살지 사실을 남이 알까 두렵다
-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다
- ○무부 성생활이 싫어졌다
- ○돈 걱정을 많이 한다
- ○비관적 생각에 밋 하늘 자주본다

* 부 그렇다=1점 기끔=2점 보통=3점 아니다=4점 절대 아니다=5점으로 항목별 점수를 합산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번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 양택풍수측면 :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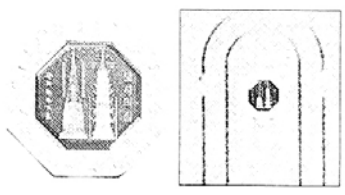
◎ 불자님들께는
본 책지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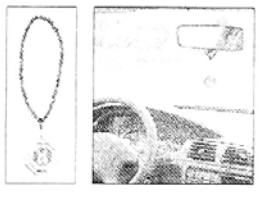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8㎝×8㎝ ·가격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떼어 놓을래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괄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①결혼 ②명성 ③부 ④가정 ⑤지식 ⑥건강 ⑦조력자 ⑧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괄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담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갑(甲)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길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니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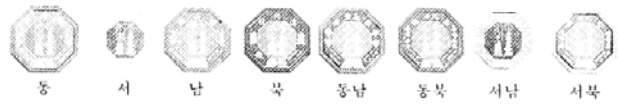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①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②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③규격 : 30㎝×30㎝
④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9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괄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시론

병든 사회 고치려면

하이얀 목련과 노오란 개나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노래하건만 IMF한파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은 봄을 맞이할 여유가 없다.

늘어만 가는 실직 노숙자,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중·고생, 급증하는 이혼, 이혼한 부모가 버린 아이들, 갓난아이를 버리는 미혼모, 그 갓난아이를 매매하여 앵벌이에 이용하는가 하면 십대 청소년들이 동반 자살하고 가족 3대가 함께 생을 끝맺기도 한다. 탈주한 강도범이 의적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도 전혀 죄의식없는 기업가,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하는 정치인들, 도대체 아수라 지옥이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통 사회가 병들어 있다.

자살·갓난아이 매매등 아수라지옥이 따로없다



최훈동 〈백산신경정신과 원장〉

잊그제까지 어엿한 직장인이요 믿음직한 가장이 실업자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던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 가족 또한 심한 우울과 열등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자가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언제 해고당하고 파산될 지 모르는 대기실 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적절히 달래줄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 뒤에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십대 학생들의 자살 뒤에는 결손가정이 있다. 부모의 불화, 술주정하는 아버지, 과잉 간섭하고 통제하는 부모나 폭력적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여 조그만 문제에도 부서져 버리는 유약한 아이로 만드는 부모 등 양 극단의 부모가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한 학교에서도 비민주적으로 교육받고 성적제일주의의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인격은 무시되고 일류학교만 목표로 삼게 된다. 십대들의 자살은 이러한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똑같은 경우가 어른들의 자살에도 적용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공정하지 못한 인사, 부의 균등한 분배가 실현되지 않는 빈부의 현격한 차, 온갖 비리와 부정한 방법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자살로 대표되는 사회병리의 문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결과이다. 사회적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통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다. 고통없이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성숙한 사회를 기약하기 위하여 지금의 위기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어리석음이라 설파하셨고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셨다. 물질적 탐욕에 집착하고 자신의 안락만을 기원하는 신앙행위는 이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물질적 빈곤을 단지 물질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시적으로 부유함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또다른 정신적 빈곤위기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 해결방법은 불교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이다.

나만 잘 살고자 하지 말고 함께 살며(보시), 욕심을 다스려서 맑게 살며(지계), 분노와 급한 마음을 다스려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며(인욕), 쉽게 벌어 잘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노력하며(정진),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성찰하여 산란하지 않고(선정), 바른 지혜로 외향적 물적 가치를 추구하는 중생의 삶에서 내면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살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종교인이 모범보여야 각성과 책임 필요할때

이러한 것을 주지시키고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이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 몫이다. 하나의 촛불로써 온 방안이 환해지듯 종교인들의 각성과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열린마당

조계종 신도교무금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신도교무금의 일부를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3월25일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위원 모두가 사퇴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도교무금에 관한 법에 따라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직적 기반의 확보와 함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총무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도교무금을 둘러싼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창립 1주년을 맞은 중앙신도회와 총무원이 신도교무금 사용을 둘러싸고 물밑협상을 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신도회 재정자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앙신도회 창립총회에서 송재건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직정비등 선행돼야 지원 검토"

지현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중앙신도회가 출범한지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중앙신도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중앙신도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지원 즉 신도증 발급업무의 신도회 주관과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증 발급업무를 중앙신도회에서 주관해 재정에 도움을 받겠다는 사고는 사실에 대한 오인인 동시에 업무자체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신도증 발급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신도증 발급용역비, 홍보비 등의 총액(올해예산 1억3천만원)은 신도교부금 수입과 유사하거나 미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도증 업무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며 생각처럼 수월한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신도교무금의 사용은 포교, 사회, 복지, 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무금은 매년 적립하면서 종단의 일반 예산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무금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종도들의 중의를 모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더불어 중앙신도회가 신도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다면 재정자립에 대한 자기 전망은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단이 중앙신도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회 스스로 조직정비 방안을 내오고 발전전망을 수립하여 종단과 신도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서는 일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중신회' 재정자립 위해 지원해야"

김동혼 〈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중앙신도회는 불기 2538년(1994) 불자들의 염망을 한몸에 받으면서 진행된 개혁불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국신도회를 대체하여 창립됐다. 어용불교의 틀을 깨고, 시대적 여망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불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가불자들의 대표기구인 신도회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현재의 신도회는 본·말사(本末寺)신도회 대표들이 중앙신도회를 구성하고 있어 형식상으로는 민주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내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산하단체 활동지원금, 급료 등 경상비 일체를 신도회장 개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과 민주적 운영은 요원한 상태이다. 신도회가 명실상부하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조직뿐 아니라, 재정의 자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신도회에서는 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신도증 발급 업무를 신도회가 주관하고,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총무원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모든 재정 수입이 사찰과 총무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찰과 총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없이는 신도회 재정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천만불자를 대표하는 신도회가 회원들의 회비 수입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회장 개인의 재정 능력에 의존한다면 종단과 불교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단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힘있게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도회가 제자리를 찾고 사회적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도회 발전을 위해 범종단 차원의 지도와 성원 그리고 종합적인 신도회 발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현재 신도교무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5억5천만원에 이른다. 96년부터 신도등록을 하며 받은 1만원씩의 교무금 중 해당사찰에 할당되는 5천원을 뺀 금액의 합계이다. 중앙신도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재정자립 기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총무원에 요청하고 있다.

신도교무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 '교무금의 사용내역'에 따르면, '총무원은 교무금 수입을 포교, 사회, 복지, 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중앙신도회는 신도회 기금화가 교무금의 사용내역에 합당하다는 해석이다. 총무원에서는 설령 신도회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신도교무금이란

포교·복지·문화기금 활용

신도등록 수익 절반 종단 적립

해도 지금의 액수에서 일부를 떼어준다 해도 실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자칫 목돈을 쪼개면 푼돈처럼 쓰여져 표시도 안나게 바닥난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신도회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송회장과 월주 총무원장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송회장은 취임인터뷰에서도 총무원과의 협조를 전제로 회장직을 수락했으며, 교무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총무원장이 약속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밝혔다.

총무원은 총무원장과 송회장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도교무금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회장이 이같은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봐 신도교무금에 관한 모종의 언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정성운 기자

종단지원-조직운영체계화 '조율'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신도회는 종법상의 기구이다. 그러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총무원의 지도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종단과 동떨어진 기구가 아닌 다음에야 종단의 지원은 필요하다. 중앙신도회에서 지적하듯 재정자립을 위해 초기의 얼마간은 더욱 그렇다.

중앙신도회도 1년 동안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어떠 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전국신도회가 몇몇 간부들에 의한 조직운영이 되다보니 특정인에 의해 모양이 지어지고 색깔이 덧씌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혁의 성과물인 중앙신도회 조차 예전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 리더십의 한계는 없었는지 짚어볼 일이다.

하부조직, 그러니까 교구신도회 및 지역 신도단체의 연합체로서의 중앙신도회가 되어야 한다. 재정운영도 분담금 제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결합정도는 협의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느슨한 조직으로는 '명실상부'를 기대할 수 없다. 애초 출범 당시 서둘러 교구신도회를 조직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합리적 조직구성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제대로 된 조직을 갖췄다면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며, 총무원도 신도교무금의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그만큼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처럼 난색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도교무금을 둘러싸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모양을 보여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앙신도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두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반이며 동반지관계라는 점을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 10~10 00
13 25~14 15
22 00~22 50
매주 일요일
18 40~19 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놓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탄허스님 다례

강원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3일 대웅전에서 탄허스님 다례재 및 한암문도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한암문도회의에서는 각종 문도회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암스님 부도 제막

강원 고성 건봉사(주지 해장)는 5일 부도전에서 금암스님 부도 및 공덕비 봉안식을 봉행했다.

금암스님은 5대 만일염불회 화주로 활동했으며 1934년 부처님오신날 만세사건으로 왜경에 연행돼 승적을 박탈당했다. 스님은 1943년 3월 24일 세수 64세로 입적했다.

안동 봉정사 괘불점안

경북 안동 봉정사(주지 법혜·동국대 정각원장)는 3월31일 괘불점안식 및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또 2부행사로 불교무용 나비춤, 관소리, 사물놀이에 이어 정대불사 탑돌이행사가 펼쳐졌다.

태고종

수원 삼불사 개당식



수원 삼불사(주지 혜월)는 3월 29일 개당식을 가졌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인륜빌딩 4층 401호에 위치한 삼불사는 50여평의 규모로 법당, 대방, 공양방을 갖추고 있다.

천태종

금룡사 법당 기공식

구미 금룡사(주지 지도)는 3일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법당은 2백56평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요사채 대방 등이 부대시설로 갖춰질 계획이다.

지도스님은 "흙 한줌한줌에 불자들의 정성을 담아 법당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3사단 OP서 점등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5일 오후 7시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별공 O/P 호국통일기원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타종식 및 점등식, 발원문과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금강불교대학 합창단의 축가 등으로 진행된다. 또 점등탑에서 수색중대까지 제등행렬이 있을 예정이다.

진각종

관음심인당 월초 불공

관음심인당(주교 원명)은 12일까지 7일간 월초불공을 봉행한다.

불공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염송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진호국가기도로 진행된다.

미타종

밀양교구 경제회복 법회

경남 밀양교구원(원장 배원광)은 9일 오전 11시 밀양 남천강변에서 국가경제회복기원 법회 및 수륙대제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밀양교구원 산하 사암주지 및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조속한 국가경제 회복을 기원하고, 근검절약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순직한 호국영령의 천도의식도 갖는다.

대승종

종무원장 봉축행사 논의

총무원(총무원장 일오)은 3월22일 안양 만장사에서 종무원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5천여만원의 신년 예산을 책정하고, 봉축기념행사 등을 논의했다.

화엄종

화엄장학금 75명에 전달



화엄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12일 인천약사사에서 '불기 2542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생 8명 고등학생 67명 등 총 75명에 2천3백여만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한편, 화엄장학회는 이날 〈(가칭)화엄종 장학재단 발전사〉 발간 준비위원회 발족식도 갖는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치매노인 보호소 첫 개설

복지법인 인덕원 1일부터 시범운영

1~15일 동안 맡아 돌봐 급식 목욕 의료 등 서비스



◇노래자랑 회상요법. 치매노인들은 심한 건망증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사는 기억한다. 인덕원 간호사들이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출을 고집하는 치매노인처럼 가족들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드물다. 허락을 하자니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금지할 경우 실랑이를 벌여야 할 뿐더러 자칫 운동부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노인 4명중 3명이 길을 잃어 헤매다 발견될 정도. 치매노인들이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억력 감퇴와 더불어 방향감각과 공간지각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원장 성운스님, 삼천사)은 1일 이들을 돕기 위해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일반노인 단기보호소는 전국 15곳, 연꽃마을 송파노인종합복지관등 치매노인 주간(晝間)보호소 및 요양원도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한 단기보호소는 이번이 처음.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사고 질병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치매노인들을 1일~15일간(2회 연장가능) 24시간 내내 거의 무료(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저소득층은 하루 8천원)로 보살펴 줌으로써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 인덕원은 65세이상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15명을 정원으로 단기보호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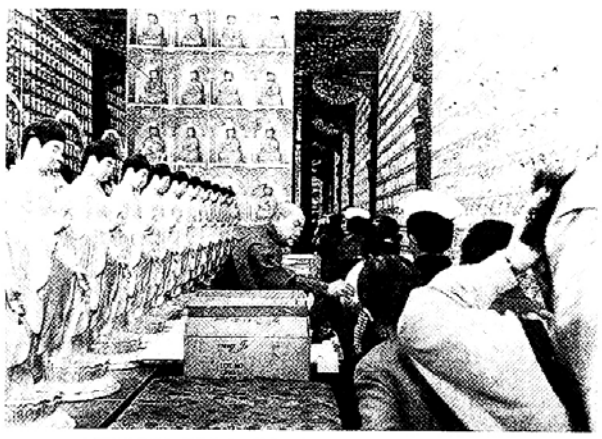
2일 현재 등록 인원은 모두 10명. 할아버지 3명과 할머니 7명이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간보호 대상 노인들과 어울려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요서비스로는 △목욕, 이·미용 등 위생서비스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한방, 수지침, 물리치료 등 위료서비스 △노래교실, 영화감상, 종이접기, 미술교실 등 취미활동을 통한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생활보조원 3명, 야간간병인 2명 등 전담직원과 불광한의원장 도광스님(촉탁의), 연신정신과의원(협력병원) 의료진 등 스텝진이 주·야로 치매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박혜영 사회복지사는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어도 쉬쉬하며 숨기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과 단기보호소를 오가며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덕원은 양천구 신목종합복지관과 함께 서울시에 예산지원 신청을 내놓은 상태. 후원이 아쉬운 현장이다. (02)385-8205

김재경 기자



◇경북 영천 만불사 만불보전 낙성 및 1만7천불 점안법회.

태고종 양평대교서 수륙영산법회

경제난 극복·환경보전 결의

환경보존 및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수륙영산대법회가 1일 남한강 양평대교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륙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존실천 선언문 채택, 수륙영산재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존 △검소한 생활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존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무원 각 부장들은 이날 참석한 불자들을 대표해 붕어 1백마리를 남한강에 방생했다.

IMF 극복 시민 대법회

창원시 불교사암련

창원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정)는 5일 창원용지호수에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0만 시민대화합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제17회 창원시민의 날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원정스님(성주사 주지) 공민배 창원시장등 2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찬불가 놀이패공연, 유등재 등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연등을 내 손으로'라는 주제로 연등만들기 행사를 펼쳐 관심을 모았다.

만불회 17000옥불 봉안

사부대중 3만여명 운집…11년불사 회향

만불회(회주 학성)는 29일 만불보전 낙성 및 1만7천 옥불 점안 법회를 경북 영천 만불산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원담스님(수덕사 방장)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봉주스님(前 해인사 주지) 등 큰스님 친견 및 마정수기 법회가 봉행됐다. 또 구해스님 등 10명의 어산스님들이 3시간에 걸쳐 어산 범패 영가천도 대재를 거행했다.

이에앞서 28일 전야제에는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일만옥불 봉안과 관련 학성스님은 "어려운 시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으로 1만7천 부처님 봉안 대작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이런 힘이 모인다면 지금 닥친 경제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만옥불이 봉안된 만불보전은 1층 2백40평, 2층 2백10평의 목조건물로 기와 7만장, 목재 25만재, 철근 1백10톤이 소요됐다.

보우국사 문화인물 신청 대륜불교문화연구원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스님)은 3월31일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에 태고보우국사를 내년도 문화인물로 신청키로 하는등 98년 사업계획과 올해 예산안 5억원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제2차 태고보우국사 학술발표회 개최 △태고보우국사 전서 완간판 출간 △칠원 심원사지 답사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 99년에 대륜스님 고승평전을 출간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료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 문화재 관리 반대 한국불교승가회 성명서

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회장 무공스님)는 3월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민족문화재관리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불교승가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정부방침은 중앙박물관이 문화재 전체를 환수 및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매장문화재 유적지 분포도 제작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버린 것은 민족문화재 학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승가회는 또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정부는 문화재보존 과학기구및 문화재 창달기구 설치등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구하라고 천명했다.

제주 존자암지 복원된다

현상변경 허가…법당·요사채 등 정비

석가모니부처님의 직계 제자 발타라존자가 직접와서 불법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도 존자암지(도기념물 제43호)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본지 제 27호 11면 참조).

제주도문화재위원회는 3월6일 존자암지가 발굴조사에 의한 유구의 규모에 맞게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자암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진아스님·법륜사주지)는 법당 28평, 요사채 20평 등을 복원하고, 부도 1기 및 기타 현존 유구와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 6월 착공식과 함께 공사를 시작, 내년 초파일에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복원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사)아세아태평양문화협회장 강병규씨를 비롯 일본 남선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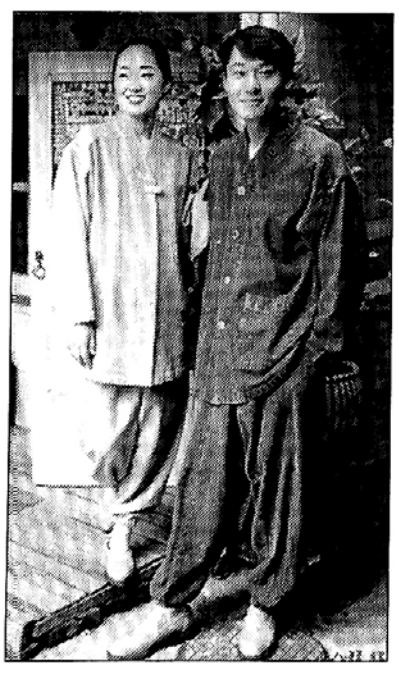
◇제주도 존자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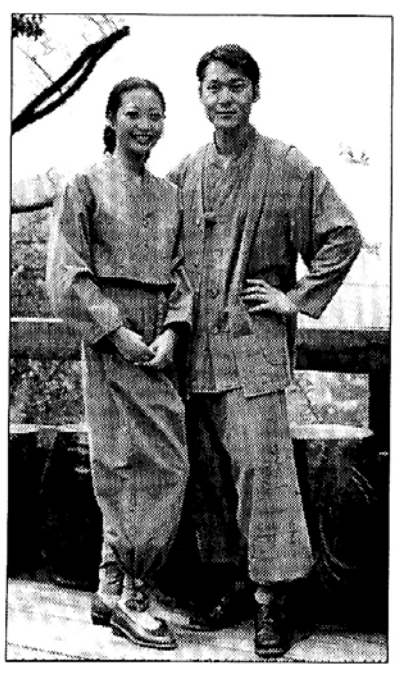
(南禪寺坊) 앵천성산(櫻川城山)스님, 대만 공추친(孔秋泉)박사 등을 3국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존자암 복원후 세계적 성지순례터로 개발하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

존자암지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부도와 부도지등 유구와 청동사천왕상, 명문기, 도자기편류 등의 유물이 출토돼 문헌상의 기록이 사실로 확인됐다. 〈석〉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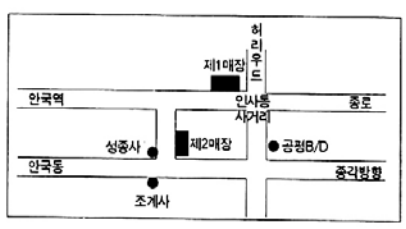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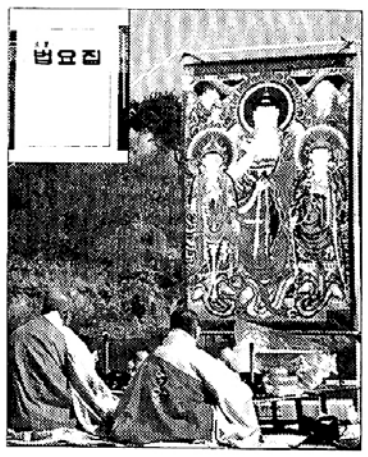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괘 불〉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

노보살 50여명 19년간 정성껏 지은 절

경주 수도사 조계종에 기증

신도들이 19년간 힘모아 지은 절을 조계종에 등록했다.

극락원보살(80세)등 50여 노보살들은 19년간 정성들여 지은 수도사(경주시 외동읍 냉천2리 세터)가 3월30일 성원스님(강화 선원사주지)을 통해 종단에 등록됐다. 수도사는 10일 현판식과 종단등록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수도사는 17평 법당과 명부전 종각 산신각 용왕당 3층석탑 석불입상 일주문을 갖추고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초하루, 보름법회를 열어왔다.

수도사는 77년 부산에 살던 극락원 보살을 비롯한 노보살들이 아기봉아래 가시밭으로 변한 폐가를 구입하고 19년간 같이 일하며 일궈낸 사찰. 최근에는 IMF시대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으로 보시하여 청기와 불사와 주변정리를 완료했다.

"스님이 오셔서 좋은 도량으로 가꿔주시면 그만이지요." 수도사 창건에 앞장서온 극락원보살은 "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열면서 삶을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살다보면 세상은 밝아진다는 믿음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수도사를 일군 노보살들 가운데는 자녀를 출가시킨 신도도 3명이나 되는등 불자로서 보여주는 돈독한 신심은 남다르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단체나 사찰에도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 관각성지인 강화 선원사 복원불사를 위해서도 1천만원을 희사했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성원스님을 뵈었지요. 스님이 강화도 전등사에서 선원사지 복원을 염원하며 기도할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성원스님은 "수도사를 종단에 증여한 노보살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와 수행도량으로 사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노보살들이 지어 조계종에 증여한 수도사 전경.

뉴스 & 뉴스

환경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지정이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의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 조사해 불필요하게 사유권을 침해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가려내 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타당성 재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은 20개 국립공원을 △생태계 보전형 △자연경관형 △문화사적형 등 세 유형으로 분류 각각 유형에 맞게 구역을 재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불학硏 연구원 10명 위촉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선원총람 발간을 비롯 종단 승가교육체계방안연구 활성화를 위한 비상근 연구원 10명을 30일 위촉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연구원은 종호(동국대 강사), 광경(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효탄(동국대 증앙승가대 강사), 권영(동국대 강사), 묘주(동국대 강사), 유진스님(동국대 강사)과 이기운(동국대 경희대 강사), 이병욱(고려대 증앙승가대 강사), 최연식씨(서울대 가톨릭대 강사) 등이다.

일산 포교당 '법계사' 개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법계사(주지 지성)가 새롭게 단장됐다. 1백31평의 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 법계사는 3월 31일 인환(前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법장(무진법장사 주지) 흥선스님(흥국사 주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신도시 포교 원력을 다졌다.

동산반야회 청년회 창립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청년회가 23일 오후 7시 창립법회를 갖는다. 3월22일 발기인 모임을 가진 동산반야회 청년회는 창립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정기법회와 야외법회 등을 통해 청년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청년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인사 '대중공양의집' 개설

마산 정인사(주지 원행) 신도들은 지난해 8월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마련한 20여평의 무료급식장을 확대해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공양을 제공하는 '대중공양의 집'을 개설했다.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공양의 집' 이용자는 현재 2백여명. 지역주민들도 고기와 젓갈 등 부식을 제공하고 있다.

11일 선덕여왕 숭모재

선덕여왕숭모회(회장 최정숙)가 주최하는 제12회 선덕여왕 숭모재가 11일 오전10시30분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행된다. 삼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선덕여왕을 기리는 同숭모재는 매년 음력3월보름 부인사에서 봉행되어 왔다.

불교귀농학교 '문 열다'

한달간 이론교육후 실상사서 현장실습

조계종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 실상사 주지)는 3월28일 오후3시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교식을 갖고 한달간의 이론교육에 들어갔다.

귀농희망자 64명이 참석한 개교식에서 교장 도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농사는 생명을 살리는 불사이자 생명산업"이라며 "바른 직한 삶의 문화를 갖기 위한 지혜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도시인들이 유기적·순환적 공생(共生)의 농업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도시를 품어안는 농촌공동체 마을을 건설하는 일에 불교가 앞장서려 한다"면서 "불교귀농학교에서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왜 귀농인가'란 주제로 첫번째 강의에 나선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은 "귀농은 자신의 삶을 이웃과 자연과 함께 자연친화적, 생태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며 공동체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새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68세의 노인(김형요씨)과 23세의 신세대여성(박정서씨)도 참가했다. 실상사 현장교육은 5월 8~11일간 진행된다(정원 40명). 귀농학교는 1달~2달간의 장기귀농학교도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귀농학교 교장 도법스님이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화 '성철' 상영금지 문도회, 가처분신청

5월 개봉을 앞둔 영화 '성철'(감독 박철수)이 난관에 봉착했다. 불필스님과 성철스님문도회는 2일 영화 성철이 "성철스님의 명예와 불교사상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제작사인 월드시네텍을 상대로 영화제작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문도회는 신청서에서 "영화의 내용이 성철스님의 출가배경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고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과 현대불교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영화가 제작돼 상영될 경우 스님의 초상권과 종교지도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철, 법어내용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음력 3월 불사 전국사찰 '한창'

전국의 각 사찰에서 3월(음력)불사가 한창이다.

올 3월불사는 신심함양과 함께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간동안 각 사찰은 보살계수계산림, 정대불사, 가사불사, 수륙재 등이 주요 행사로 펼쳐진다.

순천 송광사(주지 현고)는 보조국사 제788회 종재일을 맞아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3월 불사를 봉행한다. 송광사는 이 기간동안 3년간의 가사불사회향식을 비롯 보살계수계식, 보조국사 종재가 펼쳐진다. 조계총림방장에 추대된 보성스님의 개당설법도 마련된다.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와 서산대사 478주기 탄신다례, 제4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등을 봉행했다.

종교계 참여 '실업대책기구' 추진

정부-노동계 '합의'

노사정위원장 한광옥 국민회의 부총재와 노동계대표인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은 1일 국정3대 현안중 하나인 실업문제와 관련 대담을 갖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단체 노사정이 참여하는 범국민 실업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현재 종교단체나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실업자구제나 대책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종교계와 노사정위등이 참여하는 실업대책기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1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영국으로 가던중 특별기내에서 "실업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귀국후 고강도의 종합실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윤리교과서 21곳 불교용어 표기 오류"

명성여중 김형중교법사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관련 용어가 잘못 표기되거나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21곳이나 돼 개정 또는 해설 첨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형중교법사(명성여중)가 조사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불타로, 부처님오신날은 석가탄신 기념일로, 부처님 생몰연대는 1956년 방콕 세계불교도대회에서 공인한 불기에 따라 BC624~544년으로 써야 하는데 BC563~483년으로 표기됐다.

이밖에도 불교용어 및 역사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전원 석방 불교대책위 추진

'양심수 전원 석방 불교대책위'가 발족된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교계 단체 대표들은 4일 양심수 전원 석방 불교대책위 실무자 회의를 갖고, 발대식 일정을 논의하는 등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개인소장 고려금동불 등 5점 실종

거래과정서 도난

고려시대 금동여래좌상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국보급문화재 5점이 거래과정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문화재를 모박물관에 고가로 팔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신응석(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신씨가 96년 7월 문화재수집가 하의주(68)씨로부터 넘겨받은 문화재는 고려초기 금동여래좌상(시가 4억원)을 비롯 고려중기 금동보살좌상 2점(3억원), 조선초기 금강경목판(2억5천만원), 통일신라 초기 신라주칠여인입상(2억5천만원) 등 5점. 95년 6월부터 6개월간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세계불교문화대전'에도 전시돼 관심을 끌었던 작품들이다.

경찰은 신씨로부터 금동보살좌상 2점을 서울 인사동 모화랑에 맡기고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다른 문화재의 행방을 캐고 있다.

목탁소리

장엄 코끼리의 수난

김 정 은 〈취재2부 기자〉

봉축 제등행렬에 사용될 동국대 코끼리 장엄물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3월31일 새벽 0시30분경, 대학본관 뒤쪽에 놓여있던 코끼리상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순찰을 돌던 수위가 발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코 부분과 네 다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전소가 된 후였다. 94년과 96년에도 제등행렬을 앞두고 이같은 일이 있었다. 벌써 세번째 맞는 코끼리상의 수난이다. 사건 이후 불교대학회를 중심으로 석림회, 군승사관후보생회, 불교학생회가 나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희성·불교학부3)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다만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시점에서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교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하는 심증만을 갖고 있다.

이번 동국대 코끼리상 전소사건은 불교상징물에 대한 관리소홀과 캠퍼스내의 심각한 종교갈등이 빚은 어이없는 일이다. 코끼리상은 1년내내 본관건물 뒤 주차장에 빌다른 보관 창고 없이 방치돼 있었다. 학교측은 1년에 한번 사용되는 코끼리상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해마다 코끼리상의 보수를 위해 2~3백만원씩을 지원해 왔다.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종립대학이라는 특성속에 괭괭히 흐르고 있는 종교갈등의 기류다. 물론 이번 사건이 이교도의 행동이라는 증거는 없다. 또 이교도에 의한 것일지라도 방화행위가 타종교인 모두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나 타종교 학생의 선교활동에서 빚어지는 학생들간의 물리적 마찰 등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학교당국이 앞장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종립대학이라는 위상을 지키면서 타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소된 코끼리상을 바라보며 부처님 앞에 섰던 신부님과 십자가 앞에 섰던 스님의 모습이 왜 그토록 아름다웠던가를 생각해 보자.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 업체

봉축행사 이미지 통일 지정 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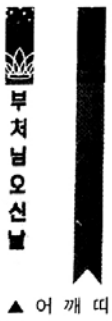
▲ 불자의집 교패

▲ 차량용 스티카


▲ 버 튼 (3가지 색상)


▲ 팬시 스티카(10가지 1세트)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팬 시 스 티 카	10종류 1세트	1,500원
어 깨 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 본 일 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리 본 고 급		330원
리 본 귀빈용	3단 고급리본	1,000원
버 튼		400원
풍 선		300원



▲ 어 깨 띠



(일반) (고급)
▲ 리 본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68페이지,
-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6페이지, 정가 1,500원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신국판 84페이지, 정가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생전예수재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선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76페이지, 개정판
-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생전예수재용품 보급합니다.

"알짜 경제정보 인기비결"

화제의 진행자 BBS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씨

"IMF, IMF 하지만 정작 IMF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MF란 경제가 어려워져 외화가 부족해진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신 그 나라에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며 빠른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사회 전반의 소식과 시사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불교방송의 종합경제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담당PD 조은정)가 IMF시대 인기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업·재테크 방법소개
건강·여행명소도 안내
불교와 경제 접목 계획

월~토요일 아침 7시10분부터 9시까지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해박한 경제지식과 시원스런 화술로 홍승기교수(동국대 경제통상학부)가 진행한다.

'부동산 재테크' 'IMF시대 창업' '소비자정보' '한주간의 경제 동향' '알뜰정보' 등의 코너를 신설한 이 프로는 창업 및 재 투자를 원하는 청취자들에게 초빙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봄철에 맞는 운동, 춘곤증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수요 건강 해법'과 벚꽃여행지, 알뜰 신혼여행지 등을 안내해주는 '국내 명소 순례' 순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실속 정보를 전해 준다.

'안녕하십니까…'는 경전 속에 녹아 있는 경제원리도 찾아 소개해 주는 등 불교와 경제를 접목시킨 내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방송의 종합경제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를 진행하고 있는 홍승기교수.

방송 소식

불교방송 사원 29명 정리해고

비상기구로 팀제 운영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3월 30일 6국 14부를 7팀으로 개편하고 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29명을 정리해고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경제한파가 겹칠때까지 비상기구로 가동될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장과 전무밑으로 기획심의팀, 포교제작팀, 교양제작팀, 보도팀, 기술팀, 관리팀, 광고사업팀 등 7개팀으로 재편됐다. 특히 포교제작팀은 기자와 아나운서, PD 등으로 구성해 포교와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을 스크린하는 부장·국장급 간부 직제가 없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리랑TV '만행' 뽑혀
CATV 1분기 우수 프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98년 1/4분기 케이블TV 보도교양부문 우수프로그램에 아리랑TV(ch 50)의 '만행'(담당PD 이홍기)을 선정했다. '만행'은 미국 하버드대학 석사 출신의 현각스님이 불교 전통 수행방법의 하나인 가을철 만행을 통해 커달음의 세계를 얻어가는 과정을 영상화한 로드다큐이다.

유선방송 종교채널 의무화
국민회의 통합방송법안

불교TV 등 프로그램공급업자(PP)는 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종교채널을 의무 전송하게 된다. 국민회의는 3월30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했다.

한편 종교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 등이 명시되지 않아 SO측이 무료채널로 인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예수. 틴토레토 作. 1560년. 美 워싱턴미술관 소장.

성자들의 자유자재함 나타내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⑥

물위를 걷는 기적

고기처럼 물위를 자유자재로 다니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기적에는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과학의 원동력이며 인류의 미래가 되고 있다. 물위를 자유자재로 다닌 위대한 두 인물이 있다.

달마대사(?~528?)는 520년 불법을 펴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 양무제와의 문답후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했다고 한다. 달마대사가 갈대잎을 타고서 양자강을 건너는 모습은 '折蘆度江圖'라 해서 선화의 소재로 많이 그려지고 선가에는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란 화두가 전해진다.

왼쪽 그림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위를 걸어 베드로 등 제자들에게 걸어가는 장면이다. 이 기적을 본 베드로는 곧바로 어부생활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에게 귀의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는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양자강을 건너는 달마. 해인사 벽화. 조선시대.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종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 ⑤·(끝)

기독교 적극전도에 분발
"이제 말·행동·원력 모아 부처님인연 맺어가야지"

하루는 고급스런 의상을 입은 깔끔한 인상의 중년여성이 찾아왔다. 가게 손님인줄 알았는데 그녀가 인사를 하며 묻는다. 아무개를 아느냐고. 몇주 전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이름이었다.

난 금방 눈물이 앞을 가렸다. 기독교인이지만 나를 이해해줘서 늘 많은 대화를 나누던 절친한 사이였다. 그러한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죽기 이틀 전에도 가게에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나눴던 친구였기에,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감싸주고 격려해주던 친구를 잃었다는 것은 예삿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었다.

친구의 죽음으로 마음 아프겠다며 위로하던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얘기한다. "그 친구가 유언을 했어요. 자매님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녀의 말에 난 깜짝 놀랐다. '아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나오려던 말을 꿀꺽 삼키고 "친구는 저를 이해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자매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 못하면 죽어서 친구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 친구를 봐서라도 꼭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라는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심장판막에 이상이 있었던 친구는 의사의 수술 권고를 미루다가 수술결정을 내린후 심장수술을 하루 앞두고 집안을 치우다가 쓰러져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친구의 형님을 통해 들었다. 워낙 깔끔하던 친구는 자신의 병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자신이 입원하면 주부가 없어 흐트러질 집안을 구석구석 치우는등 무리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어떻게 유언을 했단 말인가, 더구나 나에게 개종하라는 말을.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분은 언제 그 유언을 들었단 말인가.

이런 저런 그녀의 말꼬리를 따질 필요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고픈 마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안다. 나는 그분께 친구와 나의 우정과 친구의 나에 대한 마음씀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친구에 대한 나의 애틋함이 그녀의 개종권고에 한가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었는지 이번 부활절 기념예배에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단호한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는 자신이 한동안 카드를 보냈노라고 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카드를 보이면서 "이것 말이죠" 묻으니 그렇단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준 분이 계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고 했다. 그들에 다시 교회 나올 것을 권유한다. 난 정중하게 거절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집사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부처님 말씀이 적힌 카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고.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는 그녀. "한두 장도 아니고 몇개월을 걸쳐 보내온 카드를 찢어버리지 않았겠느냐"고 물으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라고 솔직한 대답을 한다. "집사님, 저는 이렇게 모아 두었어요. 보내주신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믿는 저는 타종교인에게 개종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인연의 법칙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예요. 저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마세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것을 얘기하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집사님이 가신 뒤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신앙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힘에 대해, 어쩌면 부처님의 말씀을 펴고 전하는데 나도 그만한 에너지가 내 마음에 있음을 안다면 그(녀)의 행위를 존경해야하지 않을까 하면서 미소지었다. 인연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났다. 말과 행동과 원력으로 부처님 인연을 맺어가야겠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그림 · 이준석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 6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소리가 보인다

PCS 016

PCS 단말기
NO 마진 판매!!